

부산 신행 준설토투기장 사업부지내
인류·민속분야(마을문화) 조사보고서

2009. 07.



조사 대상지역 항공사진(上:장항마을, 下:율리마을)

부산 신항 준설토투기장 사업부지내 인류·민속분야(마을문화) 조사보고서

- 목 차 -

제1장 조사개요	5
I. 조사개요	7
1. 연구목적과 조사단 구성	7
2. 조사지역 개관	8
제2장 장항마을	11
I. 마을개관	13
1. 마을의 입지	13
2. 마을의 경관	14
3. 마을과 주민의 구성	18
4. 마을의 생활환경	19
5. 마을의 역사	20
II. 사회조직	23
1. 동회	24
2. 노인회	25
3. 부녀회	26
4. 청년회	27
5. 새마을회	28
6. 다노모시	28
III. 의식주 생활	29
1. 의생활	29
2. 식생활	37
3. 주생활	43
IV. 생업	47
1. 농업	47
2. 어업	49
3. 마을사람들의 자연환경 인지 방식	55
V. 일생의례	57
1. 출생의례	57

2. 혼례	63
3. 상례	74
4. 제례	78
VI. 세시풍속	82
1. 정월의 세시풍속	82
2. 이월의 세시풍속	86
3. 삼월의 세시풍속	87
4. 사월의 세시풍속	88
5. 오월의 세시풍속	88
6. 유월의 세시풍속	88
7. 칠월의 세시풍속	89
8. 팔월의 세시풍속	89
9. 구월의 세시풍속	90
10. 상달의 세시풍속	91
11. 동짓달의 세시풍속	91
12. 섣달의 세시풍속	92
13. 윤달의 세시풍속	92
VII. 민속신앙	93
1. 마을신앙	93
2. 가정신앙	99
VIII. 생애담	102
제3장 율리마을	109
I. 마을개관	111
1. 마을의 입지	111
2. 마을의 경관	111
3. 마을의 생활환경	113
4. 마을의 역사	114
II. 사회조직	115
1. 동회	115
2. 노인회	116
3. 부녀회	117
III. 의식주 생활	119
1. 의생활	119

2. 식생활	123
3. 주생활	126
IV. 생업	128
1. 농업	118
2. 어업	121
V. 일생의례	133
1. 출생의례	133
2. 혼례	135
3. 상례	139
4. 제례	141
VI. 세시풍속	144
1. 정월의 세시풍속	144
2. 이월의 세시풍속	148
3. 삼월의 세시풍속	148
4. 사월의 세시풍속	148
5. 오월의 세시풍속	139
6. 유월의 세시풍속	150
7. 칠월의 세시풍속	150
8. 팔월의 세시풍속	150
9. 구월의 세시풍속	151
10. 상달의 세시풍속	151
11. 동짓달의 세시풍속	151
12. 섣달의 세시풍속	152
13. 윤달의 세시풍속	152
VII. 민속신앙	153
1. 마을신앙	153
2. 가정신앙	154
3. 무속신앙	154
VIII. 생애담	158
제4장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163
I. 종합고찰	165
II. 조사단의견	166

제1장 조사개요

I . 조사개요

1. 조사목적과 조사단 구성

이 보고서는 부산 신항만 남컨테이너 부두배후지 준설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2개 마을(장항마을, 율리마을)의 전통문화와 주민들의 생활을 기록·보존하기 위한 마을민속지이다. 마을은 삶의 터전이자 마음의 안식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정책이 국가적 필요성과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일정부분 강제성을 띠고 시행됨에 따라, 마을주민들의 고통과 갈등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심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마을문화 전반에 대해 가급적 많은 자료를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하여 기록·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지역에 대한 인류·민속분야의 조사는 형식적인 실태조사였다. 이러한 조사는 개발 과정에서 공동체 삶을 박탈당하는 주민들의 현재 생활과 의식 행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장항마을과 율리마을 일대에 대한 민속학적 현지조사를 통해 마을지를 작성하여 사라져가는 생활문화를 재구성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는 데 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밝혀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 이루어질 국책사업에 파생될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 조사는 영구히 사라질 마을의 유·무형 문화유산이 다양한 용도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도 기록·보존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2009년 01월 25일 ~ 2009년 07월 09일에 걸쳐 사전조사, 5차례의 현지조사, 이를 통한 보고서작성으로 이루어졌다. 주민들의 생활과 마을문화 전반을 알아내기 위하여 민속학적 현지조사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보고서에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마을개관, 사회조직, 의식주 생활, 생업, 일생의례, 세시풍속, 민속신앙, 생애담 등 총 8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조사일정과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사개요 및 조사일정

- 조 사 명 : 부산 신항 준설토투기장 사업부지내 인류·민속분야(마을문화) 조사
- 조 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내 장항마을, 율리마을
- 조사기간 : 2009년 01월 25일 ~ 2009년 07월 09일
 - 사 전 조 사 : 2009년 01월 25일 ~ 01월 29일
 - 1차 현지조사 : 2009년 02월 01일 ~ 02월 24일

- 2차 현지조사 : 2009년 05월 01일 ~ 05월 02일
- 3차 현지조사 : 2009년 05월 05일 ~ 05월 13일
- 4차 현지조사 : 2009년 05월 25일 ~ 05월 29일
- 5차 현지조사 : 2009년 06월 10일 ~ 07월 09일
- 보고서 작성 : 2009년 03월 01일 ~ 07월 09일

■ 조사단 구성

· 고고학분야

- 조 사 단 장 : 정의도(한국문화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현창호(한국문화연구원 조사2과장)
- 조사보조원 : 김현식(한국문화연구원 연구원)
- 조사보조원 : 김진희(한국문화연구원 연구원)

· 민속분야

- 책임조사원 : 성재정(미리벌민속박물관 관장)
- 책임조사원 : 남성진(안동대학교 강사, 미리벌민속박물관 객원연구원)
- 조 사 원 : 성윤식(미리벌민속박물관 학예사)
김원구(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박사과정)
김재경(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석사졸업)
- 조사보조원 : 김준식(미리벌민속박물관 연구원)
- 보 조 원 : 황대용(안동대학교 인문대학 민속학과 4학년 재학)
김동연(안동대학교 인문대학 민속학과 4학년 재학)

2. 조사지역 개관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마을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장항마을’과 ‘율리마을’이다. 가덕도의 행정명칭인 천가동은 가덕도가 천성면(天城面)과 가덕면(加德面)으로 분리돼 있던 것이, 1908년 두 면이 합쳐질 때 각 면의 앞글자를 딴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 후 1914년 창원군 천가면, 1980년 의창군 천가면으로 편입되었으며 1989년 현재의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편입되었다. 1970년대 이전까지 두 마을은 경지면적이 좁고, 토양이 척박하여 경제적으로 빈촌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새조개, 피조개 양식의 성공으로 부촌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에는 주민들의 수가 250여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큰 마을을 형성하였다.

장항마을과 율리마을 모두 자연마을로서 장항은 광주김씨, 율리는 김해김씨가 제일 먼저 마을에 정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두 마을은 300~400여 년 정도의 짧지 않은 역사를 간

직하고 있다.

현재 장항마을과 율리마을은 신항만 건설 사업으로 인해 마을철거가 확정되어 마을주민들은 이주 중에 있다. 보상과 이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으며,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주민들의 이주만 남은 상태이다. 주요 생업을 바다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이주는 단순히 보금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의 변화를 의미하며 불투명한 미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간 마을에 체류하여 조사함으로써 친밀도(rapport)를 높였다.

이미 마을주민들의 이주가 오래전부터 진행되다보니 현지조사 시점에는 제보자를 풍부하게 만날 수가 없었다. 특히, 율리마을의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시작한 시점인 2009월 01월 25일 당시 5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이주한 상태였다. 소수의 제보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다보니, 실증적인 자료수집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교차 질문(Cross checking)을 통해 제보의 신빙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제2장 장항마을

I . 마을개관



1. 마을의 입지

장항마을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에 속해 있는 자연마을이다. 긴 항과 포구를 끼고 있는 마을이 노루목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장항(獐項)마을은 울리에서 해안선을 따라 대항마을 방향으로 1.5km 정도 지점에 위치한다. 가덕도에서 장항마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선창이나 천성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 선착장에서 선창으로 가는 도선을 타고 선창에서 하선하여 대기 중인 마을버스를 타면 울리마을을 지나 장항마을까지 간다. 차량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해 안골에 위치한 선착장을 이용해야 한다.

예전에는 용원에서 장항~두문~천성~대항~외항포를 지나는 가덕도 정기여객선이 처음 닿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배도 장항마을로 가지 않는다. 진해 안골포에서 승용차를 싣고 다니던 카페리호도 이곳에서 천성으로 옮겨버렸다.

장항마을의 해안 일대를 개안이라고 하는데 서남쪽으로 고직말 곳이 있고 뒷산 무등 능선에 있는 남쪽바다에 떠발꿈 갯가가 있다. 남쪽 당산곡을 넘으면 열 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다는 백옥개 마을이 있었다.

2. 마을의 경관

1) 자연경관

(1) 설미산

장항마을 뒤에 솟아 있는 산을 ‘설미’ 또는 ‘설미산’이라 부른다. 설미산에는 예전에 산길이 나 있었으나, 지금은 숲이 우거져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설미산에서 예전 산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가면 거북이를 닮은 거북바위와 동굴처럼 생긴 동굴 바위가 있다. 예전 마을 사람들은 약초를 구하기 위해 설미산에 가끔 올랐다고 한다.



<사진 1> 설미산과 장항마을

(2) 독뢰산

마을 입구에 있는 간이선착장 뒤편으로 조그마한 산이 있다. 바다 방향으로 툭 튀어나온 나지막한 구릉을 ‘독뢰산’이라 한다. 홀로 떨어져 있는 산이라 하여 독뢰산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에는 산불을 감시하는 초소가 설치되어 있다. 과거에는 이곳에서 정월대보름에 달맞이도 하고, 삼짇날에는 여성들이 화전놀이도 하는 등 마을사람들의 세시공간 역할도 하였다.



<사진 2> 독뢰산 전경

2) 경제경관

(1) 백옥개

백옥개는 장항마을과 천성동 두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자연마을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마을이 없어지고 장항마을 사람들의 공동조업공간인 짚의 하나로 변하였다. ‘백옥개’라는 지명은 파도에 씻긴 깨끗한 몽돌 바닷가의 큰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가 백옥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¹⁾ 이곳은 주변의 바다 전경이 빼어나고 해안변이 넓기 때문에 낚시터로도 적합하여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또한 백옥개는 ‘백옥포’라고도 불린다. 백옥개 사이로 내(川)가 하나 흐르는데 떨어지는 물이 폭포 같아 ‘배락수’라 불렀다. 이 배락수를 보고 폭포가 있는 곳이라 하여 백옥포라고도 불렀던 것이다. 백옥개의 산등성이에는 거북이 모양을 한 거북바위가 있으며, 남쪽 바닷가에 대밭꿈개가 있다.

(2) 설섬

장항마을에서 북서쪽 약 500m거리에 삼각형 모양으로 솟아 있는 설섬이 있는데, 이곳은 경상남도과 부산광역시의 경계지점이다. 설섬은 ‘입도(立島)’라고도 불린다. 설섬은 소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 섬이다. 섬의 해안을 따라 소나무가 둘러 쌓여있다 보니 무언가 서 있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 ‘설섬’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3) 구래미

설섬 서쪽으로 구래미라는 섬이 있다. 구래미는 ‘해암도’라고도 불렀는데, 구래미는 바위가 많고 물살이 거세다하여 바다 해(海)자에 바위 암(巖)자를 사용하여 불리게 된 지명이다. 구래미에는 승려가 장삼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의 ‘중바위’가 있다.

(4) 허래미

구래미 위쪽으로는 허래미라는 섬이 있다. 허래미는 ‘토도’라고도 불리는데, 황토가 많아 흙 토(土)자를 사용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5) 띠밭꿈

띠밭꿈은 백옥개 끝자락에 위치한 해안이다. 띠밭꿈에는 사람 코처럼 생긴 ‘코바위’가 있고, 그 앞에는 멀리서 총각이 손짓을 하면 처녀들이 떨어져 죽었다는 전설을 간직한 처녀총각 바위가 있다.

(6) 개안

개안은 마을 바로 앞의 해안을 말한다. 해안이 마을 방향으로 들어가 있어 열려있는 해안이라 하여 열 개(開)자를 사용하여 ‘개안’이라고 불렀다.

1) 천가초등학교 제29회 동창회 동창회장 박기수, 1999, 『가덕섬 이야기와 동창 추억록』, 116쪽.



<사진 3> 백옥개 전경



<사진 4> 설섬 전경



<사진 5> 허래미 전경



<사진 6> 구래미 전경



<사진 7> 떠발꿈 전경



<사진 8> 개안 전경

3) 사회·문화적 경관

(1) 마을회관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195번지이다. 지금의 마을회관은 1980년

대 중반에 건립되었다. 예전의 회관은 마을의 입구에 지어져 있었는데, 회관을 새로 지으면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 그리고 현재는 노인정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 건물은 마을 기금으로 만들어 졌는데, 1층은 노인정으로 사용하며, 2층은 넓은 강당으로 되어 있어 마을 회의가 있을 때에 사용하고 있다.



<사진 9> 마을회관 전경



<사진 10> 1층 노인정 내부

(2) 장항초등학교

장항초등학교는 1966년 3월 1일에 천가초등학교 장항분교로 개교하였다.²⁾ 최초의 위치는 마을의 입구 쪽 옛 마을회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후 1971년 3월 1일 현재의 자리에 장항초등학교를 건립하여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는 전교생이 100여명에 다다랐다고 한다.³⁾ 하지만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고 1982년 3월 1일 다시 천가초등학교 장항 분교로 격하되어 귀속되었다가 결국 2001년에 폐교되었다.⁴⁾



<사진 11> 폐교된 장항분교



<사진 12> 학교 내 놀이터

(3) 장항초등학교 복지회관

2) 천가초등학교 제29회 동창회 동창회장 박기수, 1999, 『가덕섬 이야기와 동창 추억록』, 87쪽.

3) 정경임(여, 71세, 본동맥)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장항슈퍼).

4) 천가초등학교 제29회 동창회 동창회장 박기수, 1999, 『가덕섬 이야기와 동창 추억록』, 87쪽.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던 장항초등학교 복지회관은 1980년 10월 20일에 건립되었다. 장항초등학교의 윤원광 교장이 재임하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하사금과 마을개발위원회의 기금,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봉재씨의 협찬으로 지어져 목욕탕과 탁아소 등 주민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었다.⁵⁾ 하지만 장항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복지회관 역시 폐쇄되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진 13> 장항초등학교 복지회관 입구



<사진 14> 장항초등학교 복지회관 현판

3. 마을과 주민의 구성

장항마을에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80년대 후반에는 250여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어장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마을공동사업인 피조개나 새조개 양식으로 인해 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신항만 건설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외지로 이주하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시기별로 <표 1>⁶⁾과 <표 2>⁷⁾로 비교하여 보았다.

마을명	세대수	계	남	여
장항마을	85	246	122	124

<표 3> 1998년 8월 31일자 장항마을 인구현황

마을명	세대수	계	남	여
장항마을	82	139	75	64

<표 4> 2009년 1월 31일자 장항마을 인구현황

5) 복지회관 입구 부분에 대통령 하사금 및 협찬 내용이 담긴 머릿돌이 있다.

6) 천가초등학교 제29회 동창회 동창회장 박기수, 1999, 『가덕섬 이야기와 동창 추억록』, 103쪽.

7) 천가동사무소 인구현황 자료 참고.

현재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10여 년 전과 비교하여 인구수는 100명 정도가 줄었지만 가구 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외지로 이주를 한 세대는 많지만 퇴거를 하지 않아 주소지가 그대로 장항마을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 가구 수를 살펴보면, 2009년 2월에는 35가구 정도가 장항마을에 거주하고 있고, 2009년 6월에는 그보다 줄어 22가구 3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4. 마을의 생활환경

1) 전기와 상수도

장항마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것은 1960년대 후반이다. 당시 장항마을에서는 마을 기금으로 발전기를 구입하여 전력을 공급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육지에서 전기가 공급되었다. 진해 안골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전선이 연결되어 바다를 가로질러 장항에 전기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장항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물물을 사용하여 식수와 빨래 등 생활용수를 해결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마을의 가운데 지점에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우물을 하나 더 만들고 물탱크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2004년도에 녹산공단 폐수처리장에 있는 펌프에 상수도관을 이어 해저를 통해 장항에 상수도가 연결되었다.⁸⁾



<사진 15> 장항마을 우물



<사진 16> 장항마을 물탱크

2) 텔레비전과 전화

가덕도에 텔레비전이 처음 들어온 것은 마을 내에 발전기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처음에는 소수의 가정에만 텔레비전이 있어 동네사람들이 함께 모여 텔레비전을 시청하였다. 이후

8) 김순남(여, 67세, 두문택)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제보자의 집 앞).

차츰 여러 가구에서 텔레비전을 구매하면서 텔레비전은 마을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 처음 마을로 전화선이 들어왔는데, 당시에는 통장의 집에만 전화기가 있었다.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통장의 집에서 전화를 사용하였다.⁹⁾

3) 교통과 시장

1970년대에 들어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마을사람들이 부역으로 동원되어 마을 앞에 작은 비포장 길을 만들어 도로로 사용하였다. 이후 2004년도 즈음에 도로를 확장하게 되었고 5년 후 다시 시멘트로 포장하여 지금의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¹⁰⁾ 장항마을에는 2006년도부터 마을버스가 운행되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마을 앞 부두에서 정기선을 타기도 하였지만 신항만 건설로 인해 정기선이 끊기게 되었고 이후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이다.¹¹⁾

대부분의 장항마을 사람들은 주로 용원에 있는 5일장을 이용하였다. 용원장은 2일, 7일에 장이 서는데 장날에 해산물을 팔고 그 돈으로 곡식이나 반찬거리를 사왔다. 조업을 했을 때에는 잡은 물고기를 부산 영도다리에 있는 어판장에 계약을 맺어 내다 팔았지만 활어를 팔게 되면서 용원에 있는 어판장을 이용하였다.¹²⁾



<사진 17> 장항마을을 오가는 마을버스



<사진 18> 용원시장

5. 마을의 역사

1) 마을의 형성

장항마을의 입향조는 광주김씨로 추정된다. 300여 년 전, 동래에 살고 있던 광주김씨 가

9)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장항슈퍼).

10) 김순남(여, 67세, 두문택)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제보자의 집 앞).

11) 김순남(여, 67세, 두문택)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제보자의 집 앞).

12)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장항슈퍼).

문의 일원이 가덕도의 장항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다. 이후 그가 식솔들과 함께 이곳에서 살게 되면서 마을이 형성된 것이다.¹³⁾

“내가 광주 김씨인데. 광주김씨가 켈 먼저 들어왔다. 우리 9대조가 들어왔지. 내 9대조가 들어왔거든. 보자 삼 구 이십칠. 270년 되네. 한 대에 30년 치면. 우리가 광주에서 왔거든. 경기도 광주. 그 때는 동래에 살았는데 귀양 왔지. 이쪽으로 귀양을 왔지. 그래 들어온 거다.”¹⁴⁾

광주김씨 다음으로는 경주이씨가 마을로 들어왔다. 이후 김해김씨와 광산김씨가 마을에 들어와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대대로 거주하면서 지금의 장항마을이 되었다. 현재 장항마을은 여러 성씨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각성마을이다.

2)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장항의 이웃마을인 천성에는 일본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복 후 일본인들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¹⁵⁾ 장항마을에도 장항초등학교의 우측 편에 군수물자를 보관하던 창고가 하나 있었다.¹⁶⁾ 지금은 숲이 우거져 그 모습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일본인들이 장항마을에까지 거주하였다는 것이 추정가능하다.

3) 한국전쟁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덕도는 피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피난처가 되었다. 해안지역에 피난민의 수가 넘쳐나자 군함을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피난민들을 보냈다. 이러한 사정은 가덕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수의 피난민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당시 집에 방이 두 개 이상인 사람들은 하나만 쓰고 여분의 방은 모두 피난민들에게 내어 주었다. 이렇듯 당시 마을사람들은 불평 없이 피난민들을 도와주었다고 한다.¹⁷⁾

4) 새마을운동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마을에 큰 변화가 생겼다. 마을 앞에는 도로가 생겼으며, 사람 한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었던 마을의 골목길은 확장되어 리어카가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붕을 개량하여 가옥들도 현대식으로 일정부분 변화하였다. 마을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마을의 공동사업이라 생각하여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13) 김상곤(남, 71세)의 제보(2009년 2월 16일, 제보자의 집).

14) 김상곤(남, 71세)의 제보(2009년 6월 23일, 장항마을 앞 길).

15) 김순남(여, 67세, 두문택)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제보자의 집 앞).

16)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장항슈퍼).

17) 김순남(여, 67세, 두문택)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제보자의 집 앞).



<사진 19>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모습



<사진 20>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 공사 모습

5) 신항만 건설 사업

1995년 신항만 건설 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먼저 어선과 어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5년부터 신항만 남컨테이너 부두 배후지로 선정되면서 어장의 철거를 시작으로, 지금은 마을 내에 대한 철거를 하고 있다. 이미 마을을 떠나 이주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지만, 아직까지 30여 명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노년층으로 이주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는 마을을 떠날 수 없다고 한다.¹⁸⁾

18)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장항슈퍼).

II. 사회조직

장항마을의 사회조직은 동회와 노인회, 그리고 부녀회¹⁹⁾와 향우회가 있다. 과거 마을사람들이 많았을 때에는 새마을운동과 맞물려 다양한 조직이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 신항만 건설로 인해 마을사람들의 상당수가 마을을 떠났으며, 마을사람들이 고령화 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사람이 줄어들어 사회조직 또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장항마을의 사회조직 존재양상을 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시기 명칭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현재
노인회				→	→
부녀회		→	→	→	→ 명목상 존재
청년회		→	→		
향우회				→	→
새마을회		→	→		
단오모시		→	→		

<표 5> 장항마을 시기별 사회조직 존재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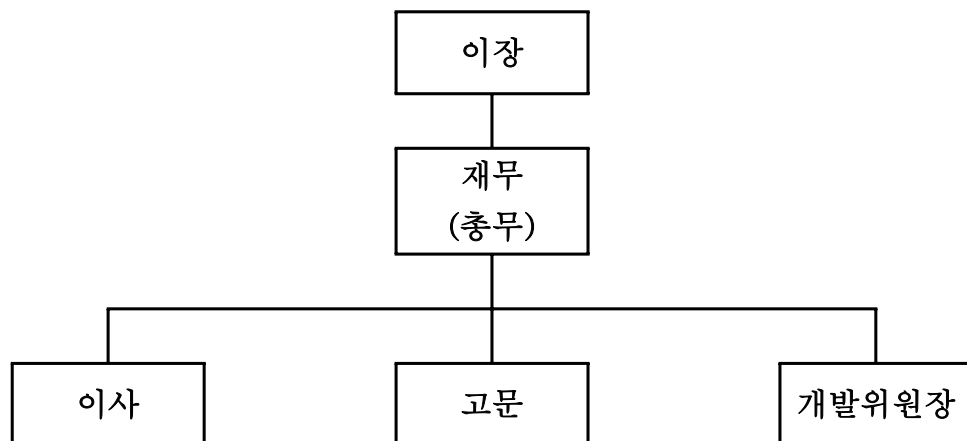
또한 광주김씨가 입향한 뒤, 지금까지 광주김씨, 김해김씨 다수가 마을에 거주하고 있지만 문중조직은 발달하지 못하였다. 여성들의 조직도 새마을운동 때 생긴 부녀회 밖에 없었으며 자발적으로 생긴 친목계도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새마을운동과 함께 국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 생겨난 공식적인 조직들인 청년회, 노인회, 부녀회가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였기 때문에 다른 조직들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피조개 양식과 같이 공동어업이 주된 마을의 생업이었기 때문에 마을구성원들의 생활양식이 비슷하고, 경제적인 위치 또한 비슷하였다. 그러므로 가문별 문중조직이나 친분 중심의 친목계는 형성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9) 현재 부녀회는 회장과 기구는 존재하나 실질적인 활동은 없다.

1. 동회

동회는 마을의 이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회는 마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과 함께 마을에 여러 조직들이 구성되었다. 부녀회, 청년회, 새마을회가 생겨났는데, 이러한 조직들은 동회를 중심으로 산하조직과 함께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특히 부녀회의 경우에는 동회에서 나오는 마을기금으로 운영되었을 만큼, 과거에는 동회가 마을 내에서 영향력이 큰 조직이었다. 하지만 신항만 건설로 인해 마을사람들의 대다수가 마을을 떠난 상황이어서 지금은 마을회의를 수행하는 역할만 할 뿐, 예전처럼 다른 조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다.

동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에는 이장, 재무, 이사, 고문, 개발위원장과 같이 조직이 세분화되어있었지만 새마을운동이 끝나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장과 재무로만 구성되었다. 현재 장항마을의 이장은 김춘수(남, 63세)씨이며, 재무(총무)는 김만배(남, 58세)씨 이다. 이장은 구청으로부터 일정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재무는 그렇지 않다. 이장과 재무의 임기는 2년이며, 마을회의를 거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다. 마을사람들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이 가능하다.



<그림 1> 새마을운동 당시 동회 조직도

동회의 주된 역할은 마을회의이다. 1년에 2회 정도 마을회의를 가지는데, 시기별로 그날이 달랐다. 먼저 동회의 역할이 활발했던 1950년대~1980년대까지는 음력 1월 5일과 8월 18일이었다. 1월 5일에는 새해를 맞아 회비를 거두고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였다. 회비는 가구당 3,000원이었으며 마을기금으로 사용하였다. 회비를 거둔 다음에는 마을의 발전방향과 마을 내의 문제점들을 논의하였고 마을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한해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8월 18일에는 찜 분배를 하였다. 장항마을에서 관리하는 다섯 곳의 찜에 대해 추첨을 통해 고루 분배하였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양력 8월 30일과 12월 31일에 마을회의를 하고 있다. 현재는 회의를 통해 이주에 대한 의논을 주로 하고 있다.

동회의 회칙은 현재 찾아볼 수가 없다. 20여 년 전 당시 이장이 개인문제 때문에 회칙 및

동회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소각하였기 때문에 동회와 관련된 과거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다시 회칙을 재정하였지만 동회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관리소홀로 인해 분실된 상태이다. 이처럼 신행만 건설 이후, 동회의 구성 및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고, 현재는 마을의 모든 대소사가 동회보다는 노인회를 통해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는 상황이다.

2. 노인회

장항마을의 노인회는 1988년에 생겨났다. 본래 새마을운동 당시 생긴 청년회가 마을의 중심역할을 하였으나 청년회 회원들의 나이가 많아지자 자연스럽게 그들을 중심으로 노인회가 구성된 것이다. 노인회는 회장과 부회장, 총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53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했으며 회장, 부회장, 이사진, 고문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다수의 마을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노인회 회원과 임원진이 축소되었다. 현재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 39명의 회원들과 회장, 부회장, 총무로만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사진 21> 노인정 문패



<사진 22> 노인정 입구

노인회의 가입조건은 65세 이상에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였으나, 지금은 회원이 점차 줄어들어 회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회원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비는 없으나 가입시기가 지나면 벌금의 일종으로 지난 연도만큼 가입비를 받는 경우도 있다. 연회비는 1만원이며 회원 및 재정 관리는 노인회 총무가 맡고 있다. 노인회의 회비만으로 회관을 운영하는 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회관 운영과 행사 때 지출되는 대부분의 경비를 구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노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어버이날이다. 정기총회 때는 노인회의 주요 사업선정과 임원을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보통 한 사람이 4~5년 이상씩 연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원을 자청해서 하려는 사람도 부족할뿐더러 마을사람들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원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총회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한다. 어버이날 행사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해 먹고 춤과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놀면

서 보낸다.²⁰⁾ 또한 2주에 한 번씩 노인회 회원들은 단체로 차량을 이용하여 진해 용원에 나가 목욕을 하고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이때에는 별도로 회원들에게 차비와 식비를 거둔다.



<사진 23> 용원에 위치한 목욕탕



<사진 24> 점심식사 모습



<사진 25> 노인회 표창장



<사진 26> 노인강령



<사진 27> 노인회 실천사항

3. 부녀회

부녀회는 1970년대 중반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되었다. 새마을운동 당시 청년회의 전신인 4H구락부와 부녀회가 조직되었다. 장항마을 역시 부녀회가 조직되었는데, 당시 정경임씨가 초대회장을 맡았다.²¹⁾ 부녀회가 처음 조직될 당시 마을 내 기혼의 여성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였고, 그 수가 50여명에 달하였다. 부녀회의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마을기금으로 마련하였다.

20) 김정대(남, 75세, 노인회 총무)의 제보(2009년 2월 21일, 장항노인회관).

21) 정경임씨는 부녀회 초대회장을 맡아 10 여 년 정도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초기 부녀회는 새마을운동의 중심이 되는 사업에 앞장서서 활동하였다. 어촌마을의 성격 상 평소 마을에는 부녀자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1990년대 까지만 해도 부녀회의 역할은 청년회나 노인회만큼 마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장항마을의 부녀회는 비록 문서화 된 회칙이나 규정은 없었지만 서로간의 협동심이 남달라 조직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마을의 도로를 정비하거나 지붕개량과 같은 건설사업과 논이나 밭농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두레와 같은 노동공동체 역할도 하였다.

부녀회가 조직되고 5년 정도 지난 무렵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출산제한 정책을 홍보하고 실천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끝난 후에는 국가정책 중심의 활동보다는 마을 내에서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일들에 앞장섰다. 주기적으로 마을청소를 담당하면서 마을에 상이 나거나 잔치가 있을 때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대접하는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피조개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늘어났다. 또한 피조개 양식 때 잡은 다양한 해산물들을 팔아 봄에 부녀회원들끼리 관광을 다니기도 하였다. 이렇게 마을의 중심축이었던 부녀회는 신항만 건설과 함께 다수의 회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실질적인 활동은 없어지고 그 명맥만 겨우 이어가고 있다.²²⁾



<사진 28> 부녀회 표창장

4. 청년회

청년회는 새마을운동 당시에 생겨난 조직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마을의 주축은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청년회는 부녀회와 함께 마을에서 가장 활발한 조직 가운데 하나였다. 20세를 전후한 마을 내에 기혼인 남성은 청년회에 가입할 수 있었다. 청년회는 부녀회와 성격이 비슷하였다. 가입비나 회비는 없었고 문서화된 회칙도 없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에 청년회는 가옥의 지붕개량과 도로정비, 환경미화를 담당하면서 마을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이 끝나고 회원들이 고령화되면서 청년회는 사라지고 청년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노인회를 조직하게 되었다.²³⁾

22)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19일, 제보자의 집).



<사진 29> 청년회기

5. 새마을회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침에 의해 생겨난 조직으로 마을기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던 1970년대 초에 부녀회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나 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부족해 1년 후에 사라졌다. 새마을회의 주된 목적이 마을기금 마련이었던 만큼, 인근의 학생들과 마을사람들을 대상으로 문방구 겸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여기서 생긴 수익을 마을기금으로 사용하였다. 새마을회에는 마을의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했고, 한 달에 한 가구씩 가게를 운영하였다.²⁴⁾

6. 다노모시

다노모시는 일본말로서 친목계의 일종이다. 마을에서 생겨난 여러 친목계를 마을사람들은 다노모시라고 불렀는데 계마다 목적이 달랐다. 남성들이 중심으로 생겨난 한 다노모시는 1970년대 말에 생겨나 10년 정도 명맥을 유지하다가 사라졌다. 이 다노모시의 목적은 마을 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돕는 데 있었다. 일정금액을 정해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들에게 회비를 거두고, 일 년 동안 모은 회비를 마을 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였다. 이후 피조개 양식으로 인해 가정마다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자 모은 회비로 일 년에 한 번씩 마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관광을 보내주었다. 이 다노모시는 1980년대 후반에 사라지게 되었다.

23) 김정대(남, 75세, 노인회 총무)와 김정문(남, 69세)의 제보(2009년 2월 17일, 김정대씨 집).

24)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19일, 장항슈퍼).

III. 의식주 생활

1. 의생활

1) 옷감 마련과 옷 관리 방법

(1) 옷감 마련

옷감을 마련하는 것은 의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다. 1920년대 장항마을에서는 탕건을 제작하여 팔아 붓짐장수를 통해 삼베, 무명, 명주, 모시 등을 구입했다.

“여긴 바다라 길쌈 같은 거는 할지를 몰라. 쉽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는 탕건을 만들었는데, 말총 말꼬리 같은 걸로 만드는 거 티비 보면 안 나오더냐 모자? 내 윗대에서부터 만들었는데 한 70~80년 전에 만들기 시작했지. 붓짐잠수가 베를 들고 오면 탕건이랑 바꾸서 옷감을 샀지.”²⁵⁾

탕건을 제작하여 판 것으로 옷감을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1950년대 이전까지는 목화를 재배하여 옷감으로 사용한 가정도 있었다. 정정임씨가 시집왔을 때만 해도 목화를 재배했다. 재배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목화의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바느질

정정임씨는 시집오기 전 친정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바느질과 길쌈을 배웠다고 한다. 어른들이 "촌에서 바느질을 못하면 시집을 못 간다."고 하였기 때문에 11세~12세가 되었을 때부터 바느질을 배웠다. 바느질 기술 전승 방식은 체계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어른들 옆에서 구경을 하기도 하고 어른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였다. 옷이 터지고 양말에 구멍이 나면 직접 수선해야 하기 때문에 반진고리는 생활필수품이었다. 반진고리 안에는 실, 바늘, 골무 등이 있는데 친정에서 시집올 때 챙겨 오는 것으로,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손수 만들어 왔다고 한다.

“집에서 다 만들어서하지. 골무도 직접 만들었는데, 실이나 바늘은 장에서 사야 되고, 가족 골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실이랑 바늘 담아놓는 통있지. 그걸 반지꼬리라 하지. 반지꼬리는 각시가 시집 올 때 꼭 가지고 오거든.”²⁶⁾

25) 정정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7일, 제보자의 집).

26) 정정임(여, 74세, 백옥개택)의 제보(2009년 2월 11일, 제보자의 집).

모든 여성들이 바느질에 능숙한 것은 아니었다. 마을에서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을 ‘바느질 받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남의 일을 돕기도 한다. 정정임씨는 자식들의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힐 정도로 바느질을 잘하는 편이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바느질을 대신해 주지는 않았다. 당시에 바다일이 많아 다른 사람의 일을 도울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느질 방법은 계절에 따라 달리하기도 한다. 여름에는 촘촘히 하는 반면에 겨울에는 성글게 바느질을 한다. 그 이유는 여름옷은 한번 하면 다시 뜯을 일이 없지만 겨울옷은 솜과 천을 분리해서 빨아야 하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솜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솜을 해가지고 두 겹데기로 하고 여름에는 한 겹데기로 한데. 겨울에는 솜 넣어서 두 겹으로 하고 여름에는 헐렁하게 하지. 겨울옷이야 바느질을 헐겁게 하는데 왜냐면 다시 따야 하거든. 여름옷은 촘촘해야지.” 27)

(3) 빨래

장항마을에는 마을 위쪽 부분과 마을회관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빨래터가 있다. 이 두 곳의 빨래터는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을 이용한다. 하지만 1960년대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설치된 이후부터는 사용빈도가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이상수도가 설치되기 이전에 몇몇 주민들은 우물물을 길러와 집에서 빨래를 하기도 하는데 삶아 빨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물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각 가정에 수도가 들어오면서 우물에 가서 빨래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급기야 1990년대 들어 마을사람들의 생업 중 어업의 비중이 높아지자 개울이 마르게 되었다. 논은 항상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개울물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 논이 사라지자 그 기반이 붕괴된 것이다.



<사진 30> 빨래터 1



<사진 31> 빨래터 2

“빨래는 도랑에서 한 20년, 10년 밖에 안 된다. 물이 자꾸 없어지 뿌대. 농사를 위에서 안 지우니까. 옛날에는 간헐있는 물이 있으니깐 물이 내려오는데. 논에 농사를 안 지우니깐 논에 비가 오고 나면 한번 싹 빠져 빠고 나면 없는 기라. 그래서 잘 못쓰지 그

27) 정정임(여, 74세, 백옥개덕)의 제보(2009년 2월 11일, 제보자의 집).

러다가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오니깐. 위에 우물 상수도가 있는데, 그건 예전에 쓰고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와서 지금은 안 쓰지. 수도가 아마 작년에 들어왔지. 수도는 예전에 들어왔는데 빨래를 세탁기를 쓰지. 세탁기 돌린지는 오래됐구.”²⁸⁾

빨래비누를 사용하기 전에는 주로 당가루²⁹⁾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가루를 사용하여 애벌빨래를 하고 잿물을 이용하여 다시 뻥다. 잿물은 짚을 태워 만든 잿물과 시장에서 구입한 양잿물을 이용하였다. 양잿물은 현재의 용원장에서 구입했다. 양잿물로 빨래를 하면 물이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한다. 양잿물로 빨래하면 3번 정도 빨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양잿물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옛날에는 세제가 없었지. 부잣집은 흰 비누 쓰고 했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까만 비누 쓰고, 머로 만들었는지 잘 모른다. 비누가 찢득찢득 해가지고 찰떡같은데 그거 심하게 독해가꼬 재물하고 만들었는데 그거 많이 쓰면 손바닥이 다 패이. 그래서 그거는 흠 많이 묻으면 흐르는 물에 흔들고 비누를 많이 써서 없애지. 그리고 양잿물도 쓰지. 그제한 30~40년 되었다. 옛날에는 무명옷 같은 거는 때가 잘 안 나가거든 그래서 삶을 때 양잿물을 넣고 했거든.”³⁰⁾

겨울에는 솜과 이불의 포를 분리해서 뻥다. 솜과 함께 빨게 되면 빨랫감의 부피가 늘어나 힘들기 때문이다. 빨래를 할 때는 어른 옷과 아기 옷을 구별해 세탁한다. 어른 옷은 먼저 얻어낸 잿물을 사용하여 세탁하는데, 특히 어른들의 외출복은 일상복보다 더욱 신경을 써야 했다. 빨래를 마치고 나면 햇빛이 잘 드는 마당에 줄을 걸어 말렸다.

다림질하기 전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옷을 마주잡고 당겨서 편다. 이불의 경우는 크기 때문에 올케, 시누이 등이 함께 하기도 한다. 다림질 할 때는 다리미와 인두,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다리미는 둥근 쇠그릇 위에 솥을 올려놓고 다리는 것으로 나무 손잡이가 달려있다. 인두는 화로에 달궈서 동정이나 깃을 다릴 때 사용한다. 길쭉한 쇠막대기 끝에 작은 머리가 달려있는 형태다. 남성들의 외출복은 깔끔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빨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서 다린다. 한복의 경우는 줄을 잘못 잡으면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한다.

“남자들 외출복은 다림질을 해야하자나. 풀을 먹여서 물을 뿌리고 난 후에 다림질을 하지. 그러면 주름이 잘 잡혀. 이거 안하면 남자들 외출할 때 안 되니까 입고 오면 빨래해서 해조야지.”³¹⁾

1960년대 이전에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옷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커다란 장롱은 보편화 되지 않았고, 가정마다 라면박스 모양의 작은 함에 옷을 보관했다. 함은 대부분 결혼 예물로 가져온 것이거나 집에서 직접 나무로 짠 것으로 앞으로 당겨서 여는 것도

28) 박행자(여, 66, 천성택)의 제보(2009년 2월 8일, 장항노인회관).

29) 등겨(벗겨 놓은 벼의 껍질)기름에다 가성소다를 섞어 만들었다. 질감과 형태는 거칠고 검은 형태였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이것을 ‘까만 비누’라고 부른다.

30) 박행자(여, 66, 천성택)의 제보(2009년 2월 8일, 장항노인회관).

31) 김순남(여, 67세, 두문택)의 제보(2009년 2월 10일, 제보자의 집).

있고 위로 여는 것도 있다. 자주 입는 옷은 벽에 못을 박아서 걸거나 요즈음 욕실의 수건걸이와 비슷한 형태로 만든 햇대에 걸어 보관하였다. 전통사회에서 옷을 오래 보관하려면 담뱃잎을 말린 것을 천에 싸서 같이 넣어 두어 벌레 먹는 것을 방지하였다. 지금은 대부분이 큰 장롱을 구입하여 그 곳에 옷을 보관하고, 시장에서 파는 쯔약을 이용해 벌레 먹는 것을 예방한다.

“옷 좋게 하려면 담뱃잎 말린 거를 천에 싸서 넣어 놓으면 벌레도 없구 옷도 깨끗하니 그래 너 놓지. 지금이야 머가 많이 나오니까 수월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거 해놔야 벌레가 없거든. 번거로워도 좋으니까 했지.”³²⁾

2) 일상복

요즈음 장항마을 할머니들의 일상복은 대부분 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것들이다. 가까운 용원 시장에서 만 원 이하의 비싸지 않은 옷들을 살 수 있다. 1980년대부터 남방이나 스웨터, 티셔츠 종류의 옷과 바지를 많이 구입해서 입었다. 장항마을 사람들은 들일을 나가거나 집안에 있을 때에 바지가 치마보다 활동하는 데 더 편리하기 때문에 바지를 더 선호한다.

할머니들은 딸이나 며느리들에게 선물로 옷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옷들은 대체로 외출복으로 아껴 입고, 할머니들이 직접 시장에서 산 옷을 일상복으로 즐겨 입는다. 그 이유는 선물로 들어 온 옷의 가격과 품질이 자신이 산 옷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비록 자신의 취향에는 맞지 않을지언정 선물해준 사람의 마음이 고맙기 때문이다.

3) 외출복

여성의 외출복도 치마보다는 바지가 선호된다. 시장에 갈 때의 옷차림은 평상복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색이 조금 화려한 것과 단조로운 무늬보다 화려한 꽃무늬를 선호한다. 상의는 이렇게 화려하고 무늬가 있는 블라우스나 티를 입고 그 위에 재킷을 입는다. 바지는 검정색 계통의 어두운 색 바지에 낮은 굽의 구두 또는 단화를 착용한다.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옷들을 보면 꽃무늬 옷이 많다.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는 옷은 할머니가 직접 구입 할 때도 있고, 며느리가 선물 해줄 때도 있다.

남자의 외출복은 남색이나 검정색의 칼라티를 입거나 남방을 많이 입는다. 그 위에 점퍼나 재킷을 덧입는다. 바지는 어두운 색 면바지를 입거나 기지바지를 입는다. 그러나 중요한 자리에 갈 경우에는 양복을 차려 입는다.

“옛날에야 한복도 입고 치마도 입고했는데, 요즘은 치마보다는 바지를 입지. 바지가 되게 편하니까. 시장에 나가면 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다니면 되지. 요즘 아지매들은 취향 따라 입더라고 다른 거 없이 자기 마음에 들면 입는 거지.”³³⁾

32) 신묘순(여, 78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33) 신묘순(여, 78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사진 32> 1960년대 김순남씨 부모님
외출복



<사진 33> 1980년대 외출복

4) 작업복

(1) 남성의 작업복

장항마을은 바다일과 농사일을 할 때 입는 옷을 구분을 하지 않았다. 또한 여러 벌의 옷을 구비해 놓고 입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평상복과 일복의 구분도 분명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헤지거나 낚아 외출복으로 못 입는 옷들이 대부분 작업복으로 사용되며, 상의는 어두운 색의 남방이나 티셔츠를 입고 날씨가 추울 경우 그 위에 점퍼를 입는다. 하의는 트레이닝복과 군대를 다녀 온 남성은 군복바지를 입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작업복으로 우장을 많이 입었다. 1940~1950년대에는 짚을 엮어 우장을 만들었는데, 짚을 반으로 접어 앞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비가 쉽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장은 작업복 이외에 우의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장항마을에서는 우장과 함께 삿갓을 쓰기도 하였다. 1980년대부터 해사복으로 갑바³⁴⁾를 많이 입었다.



<사진 34> 작업복(남성)

34) 비닐로 만든 옷의 일종으로 바다일과 농사일을 할 때에 입는다. 방수가 되는 잘 되는 장점으로 인해 주로 바다일에 사용되는 작업복이다.

“남자들은 주로 바지만 입기도하고 비 오면 우장입고 하지. 우장은 짚으로 만든긴데 가볍고 좋아. 근데 요즘은 안 입제. 시장에서 나오는 게 좋고 입으면 편하구나 일할 때도 수월하니까. 옛날 꺼는 일할 때 힘들었거든 근데 요즘 나오는 거는 가볍고 좋지.”³⁵⁾

(2) 여성의 작업복

1970년대 이후부터는 작업복으로 몸빼바지를 많이 입는다. 치마는 작업을 하는 데 나뭇가지에 걸리는 등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주로 바지를 입고 일한다. 양말은 목이 긴 남자 양말을 신는데, 목이 짧은 여성 양말보다 보온성이 높고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신발은 고무신, 고무슬리퍼 혹은 합성재질로 만든 가볍고 질긴 신발을 많이 신는다.

여성의 작업복에서 모자와 토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모자는 색이 있고 챙이 넓은 것을 쓰는데, 단순히 햇빛을 가리는 용도뿐만 아니라 방한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토시는 시장에서 구입하기도 하고 오래 된 옷의 소매 부분만 잘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토시를 끼지 않으면 쉽게 옷을 버리기 때문에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토시를 낀다. 여성의 해사복은 남성과 동일하게 갑바를 선호한다.

“여자들이야 예전에는 치마 입고했는데, 70년대에는 몸빼를 입고했지. 몸빼가 많이 편하니까 그걸 많이 입더라고. 몸빼는 바다일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 자주 입지. 그리고 요즘은 바다에 나갈 때 티셔츠나 갑바를 입고 밭일 할 때는 토시도 쓰고 일하지.”³⁶⁾



<사진 35> 신묘순씨 작업복

5) 의례복

(1) 출생복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입는 옷이 배냇저고리이다. 배냇저고리는 출산일이 다가오면

35) 김응철(남, 85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36) 신묘순(여, 78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시어머니가 아기의 피부의 자극을 주지 않는 무명으로 만든다. 매일 갈아입을 수 있게 서너벌의 옷을 준비해 둔다. 배냇저고리에는 단추 대신 옷고름을 달아놓는데 옷고름은 볼펜 정도의 길이로 만든다. 육남매를 낳은 정경임씨는 배냇저고리를 물려 입히다가 옷이 허름해지고 터지면 다시 배냇저고리를 새로 만들어 입혔다.

“처음에 애를 놓으면 기저귀를 준비해놓지. 애가 나올 달이 되면 싹 청소해놓고, 애 목욕시키고 나면은 미리 준비해놓은 배냇저고리를 쓰지. 배냇저고리는 주로 담이나 면으로 된 걸 쓴다. 저고리는 찌보둥(곱게)하게 접어가지고 옷고름을 달아주지. 담백(단추)은 안달고 저고리는 옷고름을 달아놓지.”³⁷⁾

아기의 옷은 한 겹으로 입히고 포대기에 싣는다. 포대기는 담과 면으로 만들어서 입혔다. 포대기는 방석 크기 정도이다. 포대기를 싸는 이유는 아기가 태어나면 자신의 머리를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의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포대기도 처음 낳았을 때 하는 거는 자부둥(방석)보다 큰 거 깔고 안거든. 그게 방석보다 크다. 포대기는 애를 업을 때 쓰는데, 업기 전에 포대기를 갈아가지고 애를 눕혀서 싸거든(그 모양이 사각형이야) 그리고 나서 애를 업지. 애를 싸면 머리를 싸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애기가 안으면은 처음에 고개가 머리를 못 이기니깐 방석이 머리를 받쳐주는 거지. 이불이 받쳐주니까 애가 안 다치거든.”³⁸⁾

(2) 혼례복

1950년대에 결혼한 정경임씨는 신랑 측으로부터 예단으로 신부의 옷과 속옷, 이불, 옷감 등을 받았다. 그 당시에는 신부의 집이 가난할 경우, 신랑 측에서 신부의 옷을 지어주고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신부는 받은 옷감으로 신랑, 신부 옷과 신랑 측의 가족수를 고려하여 옷을 짓는다. 또한 혼수에는 이불, 버선, 기타의 옷 등이 포함된다.

신랑의 혼례복으로 사모관대를 착용한다. 장항마을에는 마을사람들이 구입해 놓은 혼례복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했다. 상의는 두루마기와 함께 가슴에 학문양이 있는 남색의 활옷을 입는다. 하의는 바지저고리를 입고 발에는 가죽신발을 신고 손에는 하얀 장갑을 낀다.

여자의 경우는 족두리를 머리에 쓰고 치마저고리와 흰 천을 손에 두른다. 천에는 금색의 학문양이 새겨져 있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들어간 저고리를 입었는데, 남정보다 화려하다. 이것을 제보자는 장옷으로 기억하고 있다. 신랑과 신부의 옷에 새겨진 학은 부유함의 상징이다. 신발은 남성의 경우처럼 가죽신발을 신지만 여자의 신발은 앞부분이 올라가 있고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37)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7일, 제보자의 집).

38)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7일, 제보자의 집).



<사진 36> 혼례복 1



<사진 37> 혼례복 2

(3) 상례복과 수의

상복은 미리 만들지 않고 상이 나면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상복의 재료는 삼베를 많이 쓰는데 주로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구입하여 만들었다. 삼베는 고가(高價)였기 때문에 부잣집의 경우에만 모든 자식들이 삼베로 만든 상복을 입을 수 있었다. 집안이 넉넉지 못할 경우에는 원상주인 큰아들과 큰 며느리만이 삼베로 된 상복을 입고 그 아래 자식들은 광목으로 지은 상복을 입었다.

“부잣집 사람들은 상복을 상재 원상재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딸하고는 삼베로 하고 못사는 집에는 원상재로 큰아들 큰 며느리만 삼베로 하고 그 뒤에는 광목으로 했지. 근데 지금은 부자거나 마라거나 원상재만 삼베를 입지 전부 광목으로 하더라고.”³⁹⁾

상복의 색깔을 살펴보면, 삼베는 누런색을 띠고 광목은 흰색을 띤다. 상주들은 상복 이외에 머리에 두건을 쓴다. 두건을 쓰고 ‘따뱅이’를 쓴다. 따뱅이는 새끼를 꼬아 놓은 머리띠를 말한다. 여자의 경우에는 두건을 쓰지 않고 수건을 쓴다. 사각형의 모양의 수건을 머리에 덮고 따뱅이를 하였다. 허리에 두르는 띠는 남성에게만 해당된다. 여성의 경우는 출가를 하여 남의 집 사람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 이후부터 상복이 양복으로 변하였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왼쪽 팔에 띠를 둘렀다. 망자와 사촌 이내의 가까운 친척은 흰색으로 두 줄을 두르고 사위나 친척은 한 줄을 두른다. 여성들은 검은 치마를 입고 머리에 흰 천을 단 편을 꼽는 것으로 대신한다.

망자(亡者)가 입는 옷을 수의(壽衣)라 한다. 수의는 환갑에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프면 미리 만들어 두는 경우도 있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윤달이 드는 해에 수의를 만들어 놓는다. 수의는 삼베나 명주 등으로 만드는데, 수의의 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지 못하고 상이 난 당일에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39)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7일, 제보자의 집).

“삼베, 수의나 명주를 할라하면 주로 윤달에 만들었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윤달 드는 해에 다 만들어 놓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수의가 비싸서 사지도 못했어.”⁴⁰⁾

수의는 보편적으로 윤달에 만드는데, 윤달은 “공달”이라고 해서 손이 없고 탈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수의를 만들 때는 하루 만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동네사람과 친지들이 모여서 만든다. 하루 만에 다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해로 미룬다.

“윤달에 할 때는 수의를 만들 때는 주로 손 없는 날 받아가지고 하지. 아흐레 열 이 날은 손이 없거든. 손이 하루 이틀 동에 있고 사흘 나을 남에 있고 다섯 여세 서에 있고 이래 여래 북에 있고 손 없는 날에 만들어. 수의는 자꾸 하다가 나아두고 하면 안되니까 하루에 끝내야지.”⁴¹⁾

수의는 상자에 담아 장롱 안에 깊숙한 곳에 보관한다. 여성의 수의는 복건, 면, 턱받침, 약수, 버선, 속적삼, 저고리, 두루마기, 속곳, 속바지, 속치마, 베게, 노깃돈 주머니 등으로 구성된다. 복건은 얼굴과 머리를 덮는 마름모 모양의 끈이 달린 천이다. 면은 망자의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모자처럼 생겼다. 버선은 삼베로 만든다. 속적삼과 저고리는 한 번에 입힐 수 있도록 겹쳐 둔다. 속에 입는 옷 종류 역시 겹쳐둔다. 남성의 수의는 여성과 많이 다르지 않다. 상의에 속적삼, 적삼, 두루마기, 도포가 있고, 하의에 속곳, 속바지, 바지가 있다. 상하의는 한 번에 입힐 수 있도록 겹쳐 둔다.

2. 식생활

1) 통일벼 보급 이전의 식생활

(1) 주식

통일벼 보급 이전에는 쌀밥을 구경하기가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주식은 쌀밥이 아닌 잡곡밥이었다. 심지어 밥이 아닌 죽이나 면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점심과 저녁은 주로 다른 것을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식량이 많은 가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점심에는 고구마와 나물 등을 먹고 저녁에는 죽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한다.

“통일벼 나오기 전까지는 쌀밥은 구경도 못했지. 잡곡밥 먹고 잔수(조), 내조를 밥 해 먹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도 발이 많아야 먹는 거고. 못 살 때는 밥도 잘 못 먹고 살았지. 그리고 밭에서 많이 나는 시래기 국도 먹고 했지.”⁴²⁾

40)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7일, 제보자의 집).

41)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7일, 제보자의 집).

42)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18일, 제보자의 집).

밥을 할 때는 잡곡밥을 먹는데, 보리와 조를 섞어서 먹는다. 계절에 따라 여름이나 가을철에 수확한 농작물의 잎을 밥에 섞어 먹기도 했다. 주로 먹는 것은 보리밥이나 조를 섞은 밥이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은 가정은 곡식을 넣어서 밥을 먹었고,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죽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여름이나 겨울철이 되면 감자, 고구마를 수확하게 되는데, 수확한 농산물은 점심 한 끼를 먹는데 손색이 없었다. 저녁에는 집에 있는 음식으로 죽을 쑤어 먹었다.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저녁에는 죽을 먹는다. 죽은 산과 밭에서 나오는 나물과 인근바다에서 나오는 재료를 이용한다. 겨울철 해가 짧은 시기에는 점심을 거른 일도 많았다고 한다.

(2) 부식

1970년대 이전에 장항마을에는 부식 역시 풍족하지 못하였다. 주로 된장과 바다에서 사는 미역, 파래, 또는 산나물 등을 이용해 부식을 만들어 먹었다. 된장은 주로 국을 끓여 먹거나 산나물과 섞어서 먹었으며 미역, 파래 등은 젓갈에 섞어서 먹었다. 장항마을에서는 된장, 나물, 미역 등이 대표적인 부식이라 할 수 있다.

① 장류

장항마을에서는 주로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을 먹었다. 된장은 주로 주식인 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된장이 들어가는 음식으로는 된장국, 냉잇국, 나물 무침, 죽 등이 있다. 된장은 특별히 조리하지 않고 나물을 먹을 때 함께 먹기도 한다. 겨울철에는 음식의 재료가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한 배추를 말려서 시래기 된장국을 자주 먹었다고 한다. 식사를 할 경우에는 하나의 반찬 정도는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된장으로 만든 국이나 시래깃국이었다.

“장은 이달에 정월달에 정월 20일, 10일 경이나 말날에. 간장 메주 담그면 장이 되거든 3월 되면 장을 뜨거든. 뜨면 간장은 간장대로 된장은 된장대로. 건더기는 된장이고 맑은 거는 간장이고.”⁴³⁾



<사진 38> 정경임씨 댁 장독대



<사진 39> 정경임씨 댁 메주

43) 정경임(여, 71세, 본동댁)의 제보(2009년 2월 18일, 제보자의 집).

② 젓갈류

장항마을 사람들은 멸치젓, 게젓, 물메기젓 등을 직접 만들어 먹었다. 멸치젓의 경우에는 멸치가 연근해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조업을 나가서 멸치잡이를 하는 가정은 직접 잡은 것으로 담가 먹었고, 멸치를 잡지 않는 가정은 부산의 기장에서 멸치를 사와서 젓갈을 담았다.

물메기를 이용한 젓갈에는 알젓, 물메기 대창젓 등이 있다. 물메기 젓갈은 소금으로 간을 한 뒤 양념을 하여 먹었다. 멸치젓은 주로 김치를 담글 때 사용하였다. 다른 젓갈류는 주로 육지에서 팔아 수입원으로 이용하였다. 게젓의 경우에는 육지에서 반찬으로 많이 사가기 때문에 담가두었다가 장이 열리면 내다 팔았다.

“자잔한 개(게) 바다에 내려가면 요막한 개가 있거든 잡아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한양 철 해서 용원장 가서 팔지. 개를 한 밥그릇에 얼마 해가지고 팔았어. 육지는 개젓 같은 거 없으니까 촌사람(육지사람)이 반찬 할려고 사로 온다고. 그것도 있고 장사꾼이 한동이 채로 사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⁴⁴⁾

③ 김치류

김치는 된장과 함께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부식 가운데 하나이다. 김치는 배추, 무 등으로 만들어 먹었다. 김치의 종류에는 배추김치, 무김치, 깍두기 등 다양하다. 김장은 12월과 1월초에 담그며, 고춧가루와 곡식가루를 사용한다. 김치를 담글 때에는 멸치액젓을 사용하여 양념을 하는데, 남은 것은 고추절임⁴⁵⁾을 하는 데 사용한다.

“김치랑 된장은 반찬에 올리자나. 김치도 하고 찌개도 하고 볶아도 먹고 하니까. 종류도 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많잖아. 12월 1월에 담가서 냅두면 몇 달은 먹지. 예전에는 하고 나면 독에 묻어두는데, 지금이야 냉장고 있고 하니 한걸 수월하지 만들고 넣어두는데.”⁴⁶⁾

(3) 별식

장항마을의 경우 술을 직접 담가서 먹는 탁주(막걸리)가 특별한 날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라 할 수 있다. 장항마을의 탁주는 일을 하고 먹거나 제사 등에 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 산나물, 감자, 고구마, 해산물 등이 있다.

① 손님이 왔을 때 먹는 음식

먹을 것이 부족했던 장항마을의 경우는 손님이 오는 경우라도 특별한 상을 올릴 수가 없었다. 미리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 가짓수가 많아 질 뿐 특별한 음식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44)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18일, 제보자의 집).

45) 가을에 수확한 고춧잎을 따서 소금에 삭혀 놓는다. 김장철에 하고 남은 양념으로 고춧잎을 절인다.

46) 오정자(여, 70세, 김해택)의 제보(2009년 2월 7일, 제보자의 집).

“귀한사람들 와도 사람들 대접할게 바다에 머가 있나. 들어온다고 미리 얘기해조야 장이라도 봐서 차리지. 손님 오면 여기는 바닷가니깐 회하고 구이하고 다른 건 만들지도 몰라. 해줘봐야 같치나 매운탕 해주고 그랬지.”⁴⁷⁾

오정자씨의 경우 손님이 왔을 때 계절 생선을 가지고 회를 대접하거나 매운탕, 전, 조림 등의 음식을 대접하였다고 한다. 바닷가 마을 특성상 장을 보지 않으면 육지음식은 대접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다에 나는 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준비했다.

② 가정에서 직접 만든 “탁주”

탁주는 각 가정에서 직접 담가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가정에서 밀을 수확하는 철에 직접 만들어 독에 보관했다. 탁주를 먹을 때 특별히 먹었던 안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주라고 해 봐야 된장과 나물이 고작이었고, 일을 하면서 생기는 수확물을 안주로 삼는다.

참으로 먹는 것 이외에 탁주는 제의나 잔치에 사용하였다. 탁주는 잔치에 오는 손님이나 친지들에게 대접하는 하였으며,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제의에도 탁주는 빠지지 않고 올랐다. 탁주는 손으로 직접 만드는데, 그 만큼 정성이 들어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탁주도 직접 만들어서 먹었지. 집마다 시어머니한테 배우고 하니까 만들고 했지. 그거 만들어서 바다에서 일하거나 밭에서 일하면 사람들에게 주고 하면 좋아했지. 밀 수확하면 막걸리 만들고 하는데 아저씨가 술을 안 좋아하니 조금 만들어서 손님이나 제사 때 쓰고 했어.”⁴⁸⁾

③ 톱툰이 먹는 “간식”

정경임씨의 경우 장에 미역과 해산물 등을 팔아서 생기는 수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간식거리를 사주었다. 주로 간식은 찰떡, 쫄떡 등이었다. 떡은 제사 때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좋은 간식거리였다. 장항마을에서는 밀을 직접 재배하여 개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였다. 밀가루를 물에 개어 소금 간을 하고 난 후 솥에 부쳐 먹었다. 개떡에 콩을 넣어 먹기도 하였다.

“옛날에 먼 간식을 먹노. 시아버지나 애들이나 장에 가서 빵을 사주거나 개떡이라고 아나? 밀가루로 소금 넣고 간 맞춰가지고 주무르면 떡이 되는데 거기다 맛있어 보이라고 콩 하나씩 얹어 주면 그게 간식이야 판거 없어.”⁴⁹⁾

2) 통일벼 보급 후 식생활 변화

(1) 주식

통일벼 보급 후 쌀의 수확량은 늘었지만 농토(農土)가 좁았기 때문에 쌀밥만 먹는 집은

47) 정정임(여, 74세, 백옥개떡)의 제보(2009년 2월 19일, 제보자의 집).

48) 신묘순(여, 78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49) 정정임(여, 74세, 백옥개떡)의 제보(2009년 2월 19일, 제보자의 집).

별로 없었다. 단지 밥에 쌀의 양이 많아지고, 아침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점심, 저녁에도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일벼를 하고 나서부터는 쌀이 많아지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없고 새마을이 다 길 낸다 머다 하나까 돈도 벌고 이러니까 먹고 살만하더라. 그러니까 반찬도 좀 틀려지고 여기가 섬인데 도선도 들어오고 마트도 생기니까 반찬이 틀려질 수밖에 없지. 쌀도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다 먹을 수는 없구 보리랑 썩아 먹고 했지.”⁵⁰⁾

신묘순씨 댁의 경우에도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조밥, 보리밥, 톳나물밥 등을 먹었다. 시집 올 당시에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시어머니는 잡곡을 섞거나 해조류 등을 섞어서 밥을 만들었으며, 끼니가 모자랄 경우에는 죽을 만들어서 끼니를 해결했다.



<사진 40> 신묘순씨 댁 일상식

(2) 부식

과거의 부식과 반찬은 장류와 산나물, 김치 등이 전부였던 반면에 현재의 반찬은 다양하다. 육지를 잇는 여객선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결 수월하게 음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장류와 김치를 제외하고는 먹을 만큼만의 양을 해먹었으나, 현재는 냉장고가 들어오면서 다른 반찬들까지도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먹게 되었다.

(3) 의례 음식

오정자씨에 따르면 생일상이라고 해봤자 미역국과 밥을 차리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반찬은 나물을 해서 먹고, 별 다르게 차리지는 않는다. 생일이라고 특별한 것은 떡을 해주는 것뿐이다. 한편 어른과 아이의 떡은 다르게 해서 먹는다. 어른은 시루떡을 하고, 아이의 경우에는 수수떡을 한다. 아이에게 수수떡을 하는 이유는 수수가 잡귀와 액을 물리치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50) 신묘순(여, 78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생일이라고 머 있나 미역국이랑 나물 가지가지 하고 거기다 애 생일상에는 떡이나 올리면 됐지. 애 생일상에는 수수올리고 어른은 그냥 팔 시루 올리고 했지. 애들 생일상에는 수수가 액을 물리친다고 해서 애 생일에는 꼭 올리지. 그래야 안 아프고 잘되니까.”⁵¹⁾

명절에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해도 평소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준비한다. 장항마을 제사 음식의 경우 육류보다는 어류 위주로 상에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는 바닷가니까 새우튀김하고 명태는 사와야 하거든 명태전하고 쥐포, 쥐포 말린 거 튀김하고, 두투라고 시장에 가면 큰 상어를 여 넓이 마치 잘라가 파는게 있어. 여는 바다다 보니까 멍 다 생선이나 이런 거지, 육지처럼 고기 보단 생선을 많이 올리지 장에도 많이 팔고 상에도 멍 다 그런 거 올리니까.”⁵²⁾

3) 취사도구의 발달과 음식 저장의 변화

냄비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마솥을 이용해 음식을 해 먹었다. 솥에 밥과 국을 했고, 가끔 전을 부쳐 먹는 데는 솥뚜껑을 이용했다. 솥뚜껑을 뒤집어 아래에 장작으로 불을 떼고, 그 열로 전을 구웠다. 냄비와 프라이팬이 없던 시절에는 솥은 다용도 기능을 가진 조리도구였다. 또한 장항마을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독을 이용하여 보관하였다고 한다. 쉽게 상하는 음식은 먹을 만큼의 양만 만들어 먹었다. 곡식은 ‘고방’이라는 곳에 보관했다. 된장처럼 숙성을 해야 하는 음식들은 장독에 보관하거나 땅에 묻어 보관하였다.

“지때지때 해먹지. 하루 먹을 만큼 해먹고 여름철 되면 장아찌를 콩잎도 된장 넣어가지고 짜게 해놓고 장아찌 만들어 먹고. 장아찌나 된장, 김치 같은 거 숙성을 시켜야 하거든. 그래서 가을이 되면 구데기를 파가지고 담아놓는다. 그래서 겨울이나 봄 되면 담아놓았던 거 내나서 먹고 하지.”⁵³⁾

냉장고와 가스레인지의 출현은 식생활의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요리를 하는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장항마을에서는 1970년경에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냉장고로 인해 음식을 오래 저장하게 되어 음식 장만과 보관에 어려움이 사라졌다. 또한 가스레인지로 인해 힘들게 장작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졌다.

51)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18일, 제보자의 집).

52) 정경임(여, 74세, 백옥개택)의 제보(2009년 2월 19일, 제보자의 집).

53)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18일, 제보자의 집).



<사진 41> 정경임씨 댁 솔



<사진 42> 정경임씨 댁 가스레인지

3. 주생활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장항마을의 가옥은 3칸 초가집이 대부분 이었다. 당시 마을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와집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초가집으로 구성되어있던 마을의 주거 형태는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인해 마을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을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사라호 왔을 때 우리막내아들이 51세인데 우리아들 태어날 때니까 딱 50년 전이네. 태풍이 얼마나 치던지 클 날 뻔 했어. 집이 몇 채가 날라갔는지 몰라. 태풍 올 때는 온 마을이 다 초가집이었으니. 비바람불고 파도가 여까지 치니까 집이 날라가는 거지.”⁵⁴⁾

형편이 나은 집은 벽돌집을 지었고 그렇지 못한 집은 기존의 초가집을 보수하여 살았다. 초가와 벽돌집의 혼재양상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던 1970년대까지 이어졌다. 새마을운동과 함께 마을의 피조개양식이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을 중심으로 시멘트집을 짓기 시작했다.

현재 장항마을에 있는 주택의 수는 모두 80여 가구로, 초가집을 시멘트와 벽돌로 개조하여 슬레이트를 얹은 집이 45채이고, 1980년 이후 양옥식의 주택은 15채이다. 또한 1990년대 말 조립식 건축 자재를 이용해 신축한 집이 10채이다.

■ 가족구성원 변화에 따른 가옥변화

가족의 구성원의 변화는 가옥의 공간 이용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웅철씨의 가옥도 시대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바뀌면서 공간의 이용방식이 변화하였다. 가족구성원을 변화시킨 계기는 부모님의 사망과 아들의 결혼과 출가 등이었다. 김웅철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54) 김웅철(남, 85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주거생활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이사

김응철씨는 1945년 무렵에 부모님, 남동생, 여동생들과 함께 현재 살고 있는 장항마을로 이사를 왔다. 집은 정지, 큰방, 작은방, 마루, 사랑방, 안방, 고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가족들이 생활하기에는 적당했다고 한다. 큰방에서는 부모님이 생활하셨고 작은방에서는 김응철씨와 남동생이 생활을 하였으며 안방은 여동생들이 함께 생활을 하였다.

(2) 결혼 후(1950년)

19살에 김응철씨가 결혼을 하면서 방의 주인은 바뀌게 된다. 작은방에 김응철씨 내외가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남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큰방에서 생활하였다. 안방은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들이 살았다. 사랑방은 주로 남자어른인 아버지의 공간이었는데 손님이 올 경우에 머무는 곳이기도 하였다. 김응철씨가 자식을 낳게 된 후부터는 김응철씨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3)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1961년)

김응철씨가 3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후에 어머니만 모시고 살게 되었다. 큰방에서는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이 함께 살았으며 작은방에서는 김응철씨 내외가 살고 안방에서는 여동생들이 살았다.

초가집에서 생활을 하던 김응철씨 가족은 1959년 사라호 태풍에 의해 집이 무너졌다. 당시에는 집을 보수하여 살다가 1970년에 새마을 운동을 함께 시작된 지붕개량사업으로 흙과 나무의 복합형인 흙벽돌집으로 보수했다.

“태풍 사라호 오기 전에는 다 초가집이었지. 그때 다 날라가고 나니까 도루꼬(벽돌)로 집 지은 사람은 집 집 짓고, 아닌 사람은 초가 살다가 새마을 운동 때 스텡드로 바뀌거든. 그때는 바꾸라고 하니까 보조금도 나오고 해서 수리했지.”⁵⁵⁾

집을 짓기 위해서 우선 기존의 초가집을 부순 후 마을의 어른을 불러 풍수를 보았다. 풍수를 본 결과 집의 터가 나쁘지 않다는 말을 듣고 나서 집을 지었다. 현재의 집은 김응철씨와 목수가 함께 집을 지었다. 집에 들어가는 재료는 부산의 장에 직접 가서 구하였다. 용원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산에까지 가야만했다.

55) 김응철(남, 85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그림 2> 1960년 김웅철씨 가옥 평면도

(4)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1980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김웅철씨 내외가 큰 방에서 생활하였고, 작은방은 아들들이 생활을 하였다. 딸들은 안방에서 생활하며, 사랑방은 손님들이나 친지가 오면 내주는 방으로 이용양상이 변했다. 자식들이 장성하여 외지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방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았다. 작은방은 주로 자식들이 방학을 하는 때에만 사용하였고, 보통 때에는 김웅철씨 내외와 딸들만이 생활을 하였다. 1985년 맏아들이 결혼하여 함께 살게 되면서 공간 이용방식은 다시 한 번 크게 변화한다. 결혼한 아들 내외는 작은방에서 살았고,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은 방학 때와 같이 집에 와있을 경우에는 사랑방에서 생활했다. 고방에는 곡식을 보관하며, 마당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미역과 어류 등을 말리는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예전에 보일러 없을 때는 나무가 연료지. 할아버지가 고기 잡으로 바다 나가니까 내가 주로 산에 올라서 나무하고 아니면 사서 쓸 때도 있고. 나무로 때는 방이 3개나 되니까 어찌 다 해서 하겠노. 사서 살아야지. 동네사람들 중에 해달라 하면 해주는 사람도 있고 돈 주면 해다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형편이 안 좋으니 많이는 머 사고 조금만 사서 때고 했다.”⁵⁶⁾

김웅철씨 집의 난방은 구들을 사용하다가 연탄보일러가 보급이 되면서 바뀌었다. 연탄보일러로 바꾸게 되면서 땀감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편해졌다. 당시에는 연탄값이 많이 비싸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보일러를 설치 할 때에는 구들을 다 떼어내지 않고 바로 호수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 연탄보일러를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지(부엌)도 하나의 방처럼 이용이 가능하게 개조하였다.

1996년에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꾸었다. 기름이 연탄 가격에 비해 고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지만 더 편했다고 한다.

“옛날에 온돌 쓰지 지금은 보일러 쓰고. 기름보일러가 15년 전인가 들왔고 처음에는

56) 김웅철(남, 85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나무 쓰다가 연탄으로 바꾸고 기름 쓰고. 그러다가 보일러도 기름 값이 많이 나오니까 전기장판이 더 좋다 아이가. 요즘은 기름보단 전기장판을 많이 사용하지.”⁵⁷⁾

(5) 만아들의 출가(1990년)

만아들내외는 결혼을 한 후 2년 동안을 함께 살다가 출가를 하였다. 출가를 한 후에는 나머지 자식들도 출가하여 김응철씨 내외만이 생활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양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림 3> 김응철씨 현재의 가옥 평면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1990년대 자식들이 벽돌집으로 개조해 주었다. 난방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름 값이 비싸지고 난 후부터는, 명절이나 주말에 자식들이 오지 않으면 큰방을 제외하고는 난방을 하지 않는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게 부담스러워지면서 며느리가 사다 준 전기장판을 난방 보조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요즘에는 내가 아파서 집에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난방도 잘 안하고 부산에 있는 시간이 많고 가끔 오면야 장판 눌러놓으면 따뜻하지. 군불이나 기름 틀어봤자 돈만 나가고 오래걸리자나. 오래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⁵⁸⁾

공간	큰방	작은방	안방	사랑방
시기				
개조 전	시아버지, 어머니, 자식	할아버지, 할머니	시누이	시아버지, 손자
개조 후	시아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손님	자식들(방학)
명절	시아버지, 어머니, 자식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들	친지들

<표 4> 주택 거주 현황

57) 김응철(남, 85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58) 김응철(남, 85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IV. 생업

장항마을의 생업활동은 크게 3시기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어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1970년대 이전이다. 이 시기에 남성들은 전라도와 강원도 지역으로 배를 타고 나가 삼치와 산마⁵⁹⁾를 잡아왔고, 여성들은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거나 연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며 생활을 꾸려 나갔다. 두 번째 시기인 1970년대 이후에는 발달된 어업기술과 양식에 적합한 연안의 바다를 기반으로 피조개양식을 시작했다. 또한 연근해에서 서식하는 어패류를 잡아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신항만 건설이 시작된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이다. 신항만 건설이 시작되면서 연근해 어업을 중심으로 하던 주민들의 생업은 크게 축소되었다. 신항만 건설로 인해 과거의 풍족한 수산물들은 사라졌고 소규모 미역채취만이 주민들의 유일한 생업활동이 되었다.

1. 농업

가덕도의 장항마을도 다른 섬마을과 같이 물이 매우 부족한 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논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마을 뒷산을 개간하여 보리, 밀, 양파, 콩,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 1950년대 이전에는 주로 보리와 밀 등을 많이 생산하였다. 통일벼가 보급되기 시작한 1970년대 들어서는 양파를 재배하여 일정부분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주로 고추와 콩 등을 재배하며 집안에서 장이나 김장을 담그는 정도만을 경작하고 있다.⁶⁰⁾

양력 곡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콩												
보리												
밀												
양파												
고추												

〈표 5〉 장항마을 농업력(재배시기)

59) ‘양미리’를 주민들은 ‘산마’라고 부른다.

60) 김순자(여, 68세)의 제보(2009년 2월 19일, 제보자의 집).

1) 보리, 밀

보리와 밀은 통일벼가 보급되기 이전, 쌀을 대신 할 수 있는 곡물로 많이 재배되었던 작물이었다. 하지만 농토가 좁고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출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보리와 밀은 파종시기, 수확시기, 재배기술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주식이 되는 작물이었기 때문에 쌀을 곡식으로 인식하는 타지역과 달리 장항마을사람들은 보리와 밀을 ‘곡식’이라 부른다.

보리와 밀의 재배방법은 거의 비슷하다. 재배방법을 살펴보면, 늦가을에 밭을 고른 후 씨앗을 파종한다. 파종할 때에는 땅이 멍쳐있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등글이’⁶¹⁾로 흙을 다진 후에 파종해야 한다. 등글이는 씨를 덮는 연장으로⁶²⁾ 등글넓적한 소나무에 구멍을 뚫은 후 장대를 달아 만드는 농기구이다.

밭에 골은 촘촘히 만들지 않고 폭이 90cm가량 되도록 넓게 만든다. 파종 후에는 인분과 나뭇잎을 밭에 덮어준다. 이것은 겨울에 작물이 얼지 않도록 하는 보온기능과 더불어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 그리고 이듬해 경칩(驚蟄) 무렵에 밭매기를 한차례 해 주면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리와 밀의 수확은 하지(夏至) 전후에 이루어진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 말린 후 마당으로 옮겨 도리깨로 타작하면 일 년 농사가 마무리 된다.



<사진 43> 김응철씨 댁 등글이

2) 양파

양파는 장항마을에서 유일하게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했던 농작물이었다. 가덕도에 양파를 처음 보급한 사람은 본동에 거주하는 박한택씨였다. 박한택씨는 1970년대 일본산 양파 종자를 도입하여 처음으로 재배에 성공하였다. 당시 양파는 다른 작물과 비교할 수 없는 고소득 작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양파를 재배하였다.

“그 때 사람들이 양파를 얼마나 했다고. 물 아닌 땅에서도 돈이 난다고. 좋았지 애들

61) 곱방메를 일컫는 가덕도 지역의 방언이다.

62) 김동섭, 2004, 『제주도 전래 농기구』, 민속원, 109쪽.

공부도 시키고. 이젠 안 해. 해도 팔러가는 돈이 더 드는데 머”⁶³⁾

기온이 따뜻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덕도의 기후는 양파재배에 적격이었다. 양파는 마을에 많은 소득을 가져다주었지만, 1990년대 초 가덕도에서 부산으로 가는 여객선이 인구감소와 버스의 발달로 인해 사라지면서 양파재배도 자취를 감추었다. 여객선이 다니지 않게 된 후 양파를 부산으로 가져나가는 운송비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파의 생육기간은 8~9개월 정도였다. 장항마을에서는 10월경에 파종하면 겨울을 지나고 4~5월경에 수확하여 판매하였다. 양파재배의 시작은 파종부터 시작되는데 모종을 키우기 위해 2개월간의 육묘기간을 거쳐야 한다. 육묘할 때는 왕겨나 차광막으로 피복을 하고 수시로 잡초를 뽑아줘야 한다. 웃거름은 총 3번 뿌리는데 파종이 끝난 직후 월동을 위해 뿌려주고, 파종이 끝난 일주일후에 한번을 뿌리며, 그 후에는 2월이나 3월에 마지막으로 뿌려준다.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3월 초에는 벌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2월 말경부터 살충제를 뿌려주는데, 4월과 5월까지 몇 차례 뿌려주어야 한다. 그 후 6월이 되면 수확을 할 수 있다. 수확한 양파는 주로 여객선을 이용하여 부산으로 실어나가 농산물집하장에 판매하였다.

3) 콩

콩은 부식의 기본재료인 메주를 만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료이기 때문에 중요한 재배작물로 여겨지고 있다. 콩을 파종하기 전에는 거름을 주고 골을 만들고 비닐을 덮어 두어 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 후에 지난해 받아둔 씨앗 콩을 직접 파종한다.

“비닐일 안 씌우고 그냥하면 풀도 많이 나고 땅도 몰라 뽑기 때문에 비닐을 하는 거야. 옛날에 비닐 없을 때는 풀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⁶⁴⁾

콩의 파종은 4월 초에 이루어진다. 콩은 다른 작물에 비해 발아가 빠르다. 심은 지 3~4일이 되면 떡잎(쌍)이 올라온다. 떡잎이 나온 뒤 3~4일 후 잎이 하나인 초엽(初葉)이 나온다. 그 후 5일 정도 지나면 잎이 세 개 달린 본 잎이 나온다. 본 잎이 다섯 개쯤 달릴 때 순을 따준다. 순을 따주는 이유는 콩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콩에 사용하는 농약은 살충제와 영양제이다. 살충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친다. 장항마을은 날씨가 따뜻해 벌레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농약을 많이 치는 편이라고 한다. 6월경에 콩을 수확 한 후 이듬해 심을 종자가 될 만한 것을 골라내어 보관해두고 나머지는 주로 장을 담가먹었다.

2. 어업

63) 김정렬(여, 86세, 먹을택)의 제보(2009년 2월 19일, 제보자의 집).

64) 김순자(여, 68세)의 제보(2009년 2월 6일, 제보자의 집).

마을에서는 어업을 주로 ‘물일’ 혹은 ‘물질’이라고 부른다. 1950년대 이전에는 큰 배를 이용하여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으나, 1970년대부터 피조개양식과 연근해어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큰 배를 이용해 어업을 할 시기에는 장항마을 사람들이 큰 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주로 진해, 부산 등의 배에 취업해서 조업했다. 이후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터를 장착한 목선이나 일제모터가 달린 서넛끼⁶⁵⁾를 이용하여 부부가 함께 연근해 어업을 많이 하였다. 특히, 가덕도 주변에는 낙동강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이곳에 다양한 어종이 잡힌다. 또 마을 공동재산인 짬에서 질 좋은 미역과 바지락 등을 채취하여 소득을 올리기도 하였다.

양력 어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미역												
피조개	 종패살포						 수확					
바지락 새조개												
산마												
삼치												

〈표 6〉 장항마을 어업력

1) 짬과 미역의 채취

(1) 짬의 위치

장항마을의 짬을 크게 살펴보면 ‘개안’, ‘설섬’, ‘허래미’, ‘구래미’, ‘띠발꿈’, ‘백옥개’, 6곳이다. 질 좋은 미역과 바지락 등을 채취할 수 있었던 짬은 신항만 건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마을 앞 ‘개안’은 간척사업이 진행 중이고 ‘설섬’, ‘허래미’, ‘구래미’ 옆으로는 대형선박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해산물을 채취할 수 없다. 현재는 ‘띠발꿈’과 ‘백옥개’만이 미역을 채취할 수 있으나 조류의 변화로 예전보다 채취량은 줄어들었다. 과거에는 ‘백옥개’가 미역의 질이 가장 좋았고 채취량도 많았다고 하며, 마을 앞 개안은 굴이나 바지락 등을 채취하기에 가장 좋은 짬이었다고 마을사람들은 기억한다.

(2) 짬의 분배

장항마을의 짬 분배는 매년 바지락과 굴 채취를 하기 직전인 10월경에 이루어진다. 짬의 배분은 마을에 68가구가 있던 1970년대 초반의 경우 ‘개안’ 10가구, ‘설섬’ 6가구, ‘허래미’

65) 고성능의 일제 모터보트를 주민들은 ‘서넛끼’라 칭한다.

15가구. ‘구래미’ 8가구, ‘띠발꿈’ 17가구, ‘백옥개’ 12가구로 나눠 분배하였다.⁶⁶⁾ 짬에서 채취된 생산물은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취에 참여한 가구는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3) 짬의 운영과 관리

짬 분배를 통해 같은 짬에 소속된 가구들은 한 해 동안 생업 공동체를 형성하여 채취 및 분배의 전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짬에서 이루어지는 어패류의 채취와 미역채취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짬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그곳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 등을 통하여 1년 동안 자신들의 짬을 관리한다.

(4) 미역채취

장항마을에서 채취되는 미역은 ‘돌미역’이다. 돌미역은 짙은 빛을 띠고 두께도 두툼한 편이어서 일반 미역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미역채취는 대개 썰물 때 이루어지는데 채취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를 타고 나가 각자 맡은 짬 부근으로 가서 미역을 채취하는데 주로 3인 1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명은 노를 저어 미역이 많은 쪽으로 배를 이동시키고 다른 2명은 낫대와 트리로 미역을 채취한다. 낫대는 3~4m의 대나무에 낫을 달아 바위 위에서 물속에 있는 미역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채취도구이다. 낫대는 해안선과 가까운 곳에서 미역의 위치가 눈에 확인될 때 주로 사용한다. 트리는 한쪽 끝부분에 쇠꼬챙이를 사방으로 박아놓고 다른 한쪽 끝에는 돌리기 쉽도록 비스듬하게 나무를 묶어 만든 것이다. 배를 타고 나가 바다에 미역이 있는 방향으로 배를 몰아 쇠꼬챙이가 달린 쪽을 바닥까지 집어넣고 돌리면 미역줄기가 트리에 감겨 올라온다. 이렇게 채취한 미역은 마을로 가져와 뿌리부분을 자르고 채취에 참여한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진다.



<사진 44> 트리



<사진 45> 트리 손잡이 부분



<사진 46> 트리 앞부분

66) 정경임(여, 71세 본동맥)의 제보(2009년 2월 7일, 제보자의 집).



<사진 47> 트리를 이용한 미역채취



<사진 48> 미역분류

(5) 미역 건조 및 판매

분배를 통하여 집으로 가져온 생미역은 미역밭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건조시킨다. 건조시킬 때에는 햇볕이 잘 드는 낮을 이용한다.



<사진 49> 미역건조



<사진 50> 정정임씨 댁 미역밭

건조작업을 거친 미역은 판매를 하는데 시기마다 판매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신항만 건설 이전 마을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미역을 일괄 수거하여 공동으로 판매하였다. 판매한 수익은 조업에 참여한 마을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었으며, 일부는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였다.

“여쎬 머 많이도 나지도 않으니까. 그냥 친척집에도 팔고. 친척이 아는 사람이 부산에서 이런 장사를 해. 거도 팔고. 머 그냥 아릅아릅 파는 거지. 많지도 않으니까. 공사 때문에 잘 나가지도 못하는데 머”⁶⁷⁾

현재에는 마을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고 신항만 건설 이후 채취량이 줄었기 때문에 상인을 통한 판매가 아닌 친지 같은 인맥을 통한 직거래로 판매방식이 변하였다. 2009년 2월 현재 미역은 2.5kg 한 단에 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역의 채취량이 줄었고, 채취를 할 수

67) 박행자(여, 66세, 천성택)의 제보(2009년 2월 3일, 장항슈퍼).

있는 마을사람들 또한 많이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2) 피조개양식

피조개양식은 1978년부터 시작하여 신항만 건설 이전까지, 마을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다. 장항마을 앞바다에서 피조개양식이 성행했던 까닭은 낙동강하구의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이어서 피조개의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피조개는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1978년도의 경우에는 마리당 50원하는 종패를 열 달간 양식하여, 마리당 800원에 일본으로 수출하였다고 한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피조개 양식은 30년 전인 1978년 강석중씨가 처음 시작하였다. 강석중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을 하여 종패 값이나 받으려고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피조개 양식이 성공을 거두자 마을에서는 협업사업회를 조직하여 마을공동으로 피조개양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을사람들이 ‘피조개로 자식 키웠고, 집도 새로 지었다’는 말을 할 정도로 피조개는 마을의 대표 수입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피조개 양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피조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마을에서 5년을 살아야 비로소 얻을 수 있었다.

협업사업회에서는 종패 구입부터 판매까지 피조개 양식에 관한 전반적인 일들을 맡았다. 협업사업회에서는 매년 회의를 통해 그 해에 종패 비용을 출자하였다. 종패 비용 출자는 따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협업사업회에 소속되어있는 가정마다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출자하였다. 종패는 2월 말경에 협업사업회에서 일괄적으로 거제도에서 구입해 왔다.

구입한 종패는 마을로 가져와 작은 배 몇 척에 나누어 싣고 마을 앞바다에 뿌렸다. 그리고 열 달 정도 경비선을 한척 띄우고 다른 마을사람들이 채취해가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채취한 피조개는 마을의 협업사업회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을 하였다. 그 수익금의 1할은 협업사업회의 회비로 적립하여 마을의 공동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였다.



<사진 51> 피조개 종패 분류 모습



<사진 52> 피조개 종패 뿌리는 모습

3) 연근해어업

1970년대 이후 고기잡이는 마을 앞의 바다를 이용하는 연근해 어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힘은 들지만 부부가 함께 조업을 나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1990년대 초반 서넷끼(일제 모터보트)가 도입되기 전에는 1톤 미만의 소형 목선을 타고 조업하였다.



<사진 53> 서넷끼를 타고 나가는 모습

하지만 연근해 어업을 남녀 두 명의 힘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강망과 삼각망, 도루숫기 등 힘과 기술을 요하는 작업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함께 조업을 하였다. 이강망과 삼각망은 건강한 성인 남성 2명이 필요하고 도루숫기는 큰 그물이라 5명이 필요했다. 1980년대 당시 일용근로자의 일당은 5만원이었다.

“그물은 부부간은 못치지. 그건 사람 써야대. 힘들어서, 머 멀리서 델꼬 와가 하는 게 아니라. 동네남자 델꼬 나가 치는 거지. 그래도 공으로는 일 못 시켜. 5만원씩 조써. 그때가 1997년인가 그랬어.” “그물이 다 그렇게 생겼어. 입구쪽을 들어서 저 짝을 땡기면 고기들이 한군데로 다 들어온다고. 그럼 그걸 퍼 담아 오는 거지 머. 그물은 다시 고정 시켜두고.”⁶⁸⁾

그물은 계절에 따라 설치해두는 기간이 달랐다. 여름철에는 일주일 정도, 겨울철에는 20여일정도 그 자리에 고정해 두었다. 그물 안에 해초가 많이 자라면 그물을 끌어올려 집으로 가져간다. 가져온 그물은 말려서 해초를 제거하고 구멍이 난 곳은 보수한다. 그물로 잡는 어류 가운데서 감성돔, 전어, 농어 등을 좋은 물고기로 인식하였다. 잡은 물고기는 마을에서 배를 타고 10분정도 거리에 있는 용원공동어시장에 판매하였다.

5) 어로도구

68) 김상곤(남, 71세)의 제보(2009년 2월 16일, 제보자의 집).

1950년대까지 어부들은 무명실과 명주실을 사용해 그물을 만들었는데, 자신들의 어업활동에 필요한 도구들은 대부분 직접 만들었다. 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이라면 능히 그물을 짤 수 있어야만 했다. 그물을 짤 때는 대나무로 만든 바늘을 사용하였다. 그물바늘의 크기에 따라서 그물코의 크기가 결정된다. 큰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에는 주로 큰 바늘을 사용하여 그물을 짜고, 작은 고기를 잡을 때에는 작은 바늘을 사용하였다. 성인 남자가 일주일 정도 노력하면 30발 정도의 그물을 만들 수 있었다.

그물의 아랫부분에는 작은 돌과 같은 추를 달아 그물이 물속으로 가라앉도록 하고, 위쪽 부분에는 나무껍질을 달아 물에 뜰 수 있도록 하였다. 명주실로 만든 그물은 터지기 쉬우므로 감물을 들어서 튼튼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물색깔이 밝으면 고기가 몰려들지 않기 때문에 참나무껍질을 삶아, 그 물에 실을 적서 옅은 밤색으로 물을 들이기도 했다.



<사진 54> 그물바늘



<사진 55> 조개방틀

3. 마을사람들의 자연환경 인지 방식

해안가의 마을에서는 효율적인 어업활동을 위하여 바람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의 특성과 그 영향을 잘 알고 있어야 어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민속지식은 전승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⁶⁹⁾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이 다르고 그 특성도 달라진다. 어떤 바람은 좋은 바람이라고 반기는 반면에, 또 어떤 바람은 나쁜 바람으로 인식되어진다. 아래의 표는 장항마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바람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북풍	북동풍	동풍	동남풍	남풍	남서풍	서풍	북서풍
각내기 바람	높새바람	셋바람	셋마손	맞바람	된갈바람	된바람	노블

<표 7> 장항마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바람의 종류

69) 『경남 어촌민속지』, 앞의 책, 163쪽.

위의 표에서 좋은 바람이라 인식되는 것은 북서풍이다. 김봉곤씨에 따르면⁷⁰⁾ 북서풍이 불면 “노블나따” 혹은 “노블난다”라고 하며, 이때에는 날씨가 좋다고 한다. 남풍인 맞바람이 몇 일간 계속되면 ‘맞날’이라 불리는 태풍이 온다. 맞날은 주로 3월부터 9월까지 분다. 또한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와 남쪽으로 나가면 큰 태풍이 분다. 동풍인 셋바람은 1월부터 5월까지 많이 분다. 셋바람이 불면 좋은 어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북풍인 각내기바람은 바다에서 마을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이다. 이 바람이 불면 좋은 어류가 많이 잡힌다고 하여 좋은 바람이라 인식하고 있다. 날이 따뜻해지면 된갈바람이 분다. 된갈바람이 불면 바다에는 잡을 어류가 없다고 한다. 동풍인 셋바람을 따라 많은 구름이 마을방향으로 들어오면 비가 오랜 기간 내리는데, 이때에는 조업을 나가지 못한다.

어촌마을에서 날씨를 예측하지 못하고 바다에 나갔다가는 사고가 나기 십상이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날씨를 예측하였다. 장항마을에서는 여전히 경험으로 축적된 아래의 인지내용을 어업에 활용하고 있었다.

- ① 몸이 쭈시면 날이 흐리다.
- ② 꿈에 미역 캐고 고기 잡으면 비 온다.
- ③ 갈매기가 하늘 높이 날면 바람이 많이 분다.
- ④ 구름이 마을로 들어오면 바람이 많이 분다.
- ⑤ 셋구름이 오면 비가 많이 길게 온다.
- ⑥ 북서풍이 불면 (노블나면) 날씨가 좋다. “노블나따” “노블난다”
- ⑦ 달이 갓 쏜다, 달무리지면 비 온다
- ⑧ 하루살이가 끓으면 비 온다.
- ⑨ 노을 지면 내일 날씨가 좋다.
- ⑩ 해가 넘어갈 때 해가 유난히 빨가면 비가 귀해진다. 가뭄 온다.
- ⑪ 달에 별이 가깝게 있으면 바람 분다.

70) 김봉곤(남, 75세)의 제보(2009년 2월 13일, 제보자의 집).

V. 일생의례

1. 출생의례

출생의례는 비록 사례(四禮)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생의례에 있어 일생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례이다. 장항마을에서 나타나는 출산의례를 산전의례, 산후의례로 나누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산전의례

(1) 기자의례

장항마을에서는 가신으로 삼신을 모시지 않을뿐더러 아기를 낳기 위한 기자행위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정경임씨⁷¹⁾의 사례 외에는 기자와 관련된 치성이나 주술행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아들을 낳으려고 치성을 드리고 그런 건 없었어요?” “있었어. 정월 보름에 시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아저씨를 놓을 때 달을 받고 낳았다고 자꾸 달 받으러 자꾸 시켜서 시아버지랑 시어머니하고 우리는 따로 살았거든. 자꾸 시켜서 동네 뒷산에 높은 산에 아저씨랑 둘이서 같이 갔지. 달뜨는 거 볼라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그래 가가꼬 달뜨고 할아버지가 그래 시켜주데. 달뜨는 거 보고 절 3번하고, 돌을 하나 주어다가 치마에 싸가 와가지고 이불 밑에 넣어 노라고 하데. 그래서 그래 했지.”⁷²⁾

정경임씨는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자 시아버지의 권유로 달(月)에게 치성을 드리게 되었다. 대부분의 어촌에서는 뱃일을 하는 사람이 주로 남자였기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이 더 강하게 나타났었다. 그러므로 남자 아이를 낳기 위하여 치성을 드리는 기자의례 또한 강하게 전승되었다. 하지만 장항마을에서 기자의례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집에서 어렵지 않게 득남을 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며 다른 가신신앙들과 마찬가지로 삼신할매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2) 태몽

태몽은 반드시 임신부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태아의 아버지나 조부모, 외조부모, 고모 등 가까운 친척이 꿀 때도 있다. 또한 태몽의 시기도 일정한 것은 아니며 수태 전후나 출산 전후가 될 수도 있다. 정경임씨의 경우, 6남매의 태몽을 모두 자신이 꾸었다고 한다.

71)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씨는 1남 5녀를 두고 있는데, 딸을 내리 넷을 낳고 다섯째로 아들을 출산하였다.

72)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12일, 장항슈퍼).

(“그럼 첫째 나올 때 태몽은 어떤 거 꾸셨어요?”) “태몽은 내 아들인줄 알았지. 누런 개가 보이길래. 아들인줄 알았는데 딸이데. 아주 누런 개가 아주 막 내 앞에 앉아가지고, 옆에 이래 있데.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인게.” (“그럼 누런 큰 개가 나오면 아들이예요?”) “그렇지. 혼자 생각에 누런 개도 크고 하니까 아들이라고 생각했지. 그 때 당시 또 젊었으니까 남자인줄 알고.” (“태몽 좀 더 알려주세요, 할머니. 둘째는 어떤 태몽 꾸셨어요?”) “둘째는 절에 나락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나무가 한 그루 서가 있더라고. 거기 나무가 서가 있더라고. 거기 나무가 서가 있는 거기에 열매가 두 개가 열려 있는데 내가 가니까, 한 개가 아래로 툭 내려지는데 내가 그때 주우니까 요래가꼬 알이 쪽 빠져나가고, 껍질만 요래 있더라고. 그러니까 딸이데. 셋째는 뭐 뱀 꿈이고, 우물에 물 길으러 가니까 누가 바가지를 얹어놔데, 보니까 달걀을 썩 빼먹데. 그래 딸을 낳고. 넷째도 뱀 꿈이고. 아들 낳을 때는 용꿈을 꿔지. 아저씨가 삼층집에 페인트칠한 삼층집에 문을 열어놔는데 내가 위로 이래 쳐다보니까 용을 두 마리를 요래 쥐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여서 그걸 그래 쥐고 있냐고 이리 내놓으소 하니까 여기 알을 탁 내놓더니 여기 입에 딱 들어가뿌데. 그래가 꿈에도 내가 알을 안 흘릴라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들 낳네. 그래 내가 용을 두 마리 봤기 때문에 아들 다음에 또 아들인가 싶어서 그게 알을 하나 밖에 안 먹어 가지고 그런가봐요. 내 혼자 생각에.. 막 내는 개꿈이고. 근데 내로 봐서는 아들 낳는 꿈은 용 꿈 같이 다르고 딸들은 개고, 뱀이고 마, 꿈이 자주 꿈을 자주 꾸고 지저분하니 아들은 그렇게 딱 한번 꾸고나니 안꾸데.”⁷³⁾

“아들을 낳는 꿈은 크고 굵은 짐승이나 박하고, 뱀 같은거 그런 거 꾸는 거고, 여자는 작은 거. 작은 거 꾸면 딸이데.”⁷⁴⁾

위의 태몽에서 알 수 있듯이 아들의 경우는 용과 같이 커다란 동물이 나오고 꿈도 선명한 반면, 딸의 경우는 그 대상이 작으며 꿈 또한 선명치 않게 여러 번 꿔다고 한다. 이렇게 꿈 안에서 나타나는 대상물의 특징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고 있다.

(3) 태교

오늘날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 태교에 대해서 신경을 아주 많이 쓰게 되지만 제보자들이 살던 당시는 매운 시집살이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큰 문제였기에 여유롭게 태교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그냥 그때는 먹고 산다고 맨날 눈만 뜨면 일이고, 배타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미역 캐야 되고 뽕 캐야 되고. 나는 아들이라고 생각 안하고, 딸이라고 놓는 날까지 계속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랑 둘이서 들망이라고 그거를 들라놓으니까, 내가 따라가서 노질해야 되고, 그물 가져오면 개 낚야하고 그랬거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해가꼬, 안 먹어 본거는 없고, 먹고 싶은 거는 그때 첫째가 생겼을 때에는 첫째가 생긴 지도 모르고 돼지고기를 매일 먹고 싶데. 돼지고기가 먹고 싶을 때 아저씨가 동네에 누가 새끼 돼지 자그마한 거를 잡아가 사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그

73)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12일, 장항슈퍼).

74) 오정자(여, 70세, 김해택)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걸 먹었거든.”⁷⁵⁾

여성들은 아이를 가져도 가사노동에서 쉽게 벗어 날 수 없었다.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에는 산달이 다 되어서야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이를 가져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사노동에 전념하여야 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태교는 거의 불가능 했다. 비록 태교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임신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출산까지 임신부 자신은 물론 그 가족들 까지도 매사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다.

“임신하면 상제들 안보고 잔치 같은데 안가고 그러지. 또 제사지낼 때 찌집하고 깨는 볶으면 안돼. 그러면 아 얼굴과 몸에 뭐가 나가든. 그 기 포적이라고 하는 건데. 삼신할매가 표시를 내는 거라. 포적이라고. 그럼 몸에 뭐가 막 일나. 그래서 제사 때 찌집도 안 굽고 그냥 대충 해서 치우고 그래.”⁷⁶⁾

금기의 내용은 상제를 보지 않고 전을 붙이거나 깨를 볶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이 난 집에 임신부가 가면 아기에게 부정을 타기 때문에 멀리하였고, 전을 붙이거나 깨를 볶는 일은 삼신할매가 아기에게 표시를 내어 아기의 피부가 상한다고 하여 금하였다. 하지만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금기를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산후의례

산후의례는 출산, 출산 후 삼일, 초이레(초 7일), 세이레(삼 7일), 백일, 돌, 생일 등과 같이 아기가 그날에 이르기까지 무사히 성장한 것에 대해 축하하고, 앞으로 무병장수하기를 기원해주는 풍습이다.

(1) 출산

임신을 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출산준비를 한다. 출산준비는 세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진다.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한 준비, 산모를 위한 준비, 출산을 위한 준비가 그것이다. 아기를 위해서 베넛저고리나 기저귀를 미리 만들어 놓음으로써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산모를 위해서는 출산 후 미역국을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하거나 기력을 보충하기 위한 음식들을 준비해 둔다.

출산을 위한 준비로는 탯줄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도구나 금줄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이 준비는 몇 달간의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규격화되어 있었다. 출산을 경험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상의해 가면서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친정어머니나 임신부 당사자가 하였다. 당사자가 할 경우에는 이웃의 출산 경험이 풍부한 아낙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75)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12일, 장항슈퍼).

76)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12일, 장항슈퍼).

“그때 첫째 낳을 때는 산파가 있으셨어요?” “산파가 아니고 동네 할머니가. 이 동네는 산파가 따로 없어. 애기를 3~4일 못 낳아가지고 이럴 때 산파가 왔지, 보통 낳는 사람들은. 나는 첫 애기만 이웃 할머니가 받았지, 둘째는 첫 애기 낳을 때는 3일을 배가 아파가꼬 그래가 이웃 할머니가 와서 요렇게 해줬는데, 둘째는 방에서 낳는데 아무도 없어서 내가 혼자 낳아 뿌고. 다음부터는 셋째는 둘째 낳으니까 딸인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딸만 자꾸 낳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셋째 낳을 때는 애기 낳는다는 말도 안하고 나 혼자 애기 낳을 달이 되면, 지금은 비닐이 있는데, 그때는 비닐도 없고, 푸대에 거기다가 애기 옷하고 가위하고 실하고 애기 낳을 때 되면 딱 싸가지고, 소독도 없고, 소주, 소주 그 병에 조금 살머시 넣어놨다가 그래가 애기 낳고 나서 소주 그거 가지고 가위 소독하고 그래가꼬 나 혼자 했지요.”⁷⁷⁾

요즘에는 출산을 병원에서 하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아기를 출산하였다. 집에서 아기를 낳을 때는 동네에 산파가 있어서 아기를 받아 주었지만 장항에는 산파가 없었다고 한다. 임신한 것 자체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 아기를 낳을 때 산모 혼자 방 안에서 밖으로 신음소리조차 나가지 못하게 하여 모든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었다.

(2) 산후처리

출산을 한 뒤 산모와 아기에게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자르게 되는데 탯줄은 흔히 가위로 잘랐다.

“탯줄 자를 때, 가위로 자르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기 배꼽 있는 쪽에 실을 짊 묶고, 또 끊는 쪽에 한번 묶고, 안 묶으면 피가 막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를 묶어가지고 복판을 자르거든.”⁷⁸⁾

탯줄을 자를 때에는 피가 나지 않도록 탯줄의 양끝을 실로 묶은 뒤 그 가운데를 잘랐다. 이때 자른 탯줄과 태반 처리는 매우 중요하였다. 그래서 태반은 부정 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좋은 방위의 정결한 장소에 묻거나 태우는 것이 보통이나 장항마을에서는 탯줄과 태반을 바다에 버렸다. 바다에 버린 이유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개 시어른이 시켜서 바다에 버렸다고 한다.

“옛날에는 여기는 애기를 낳아놓고, 촌에는 탯줄을 태우거든. 태우는데, 여기 섬에는 전부 바다에 갖다 버리죠. 바다에 버리는데 그냥 안 버리고, 포대에 넣어가지고 우에는 푹푹 싸가지고, 새끼로 묶어서 돌로 달아가지고 못 뜨게 그래가지고 갖다 버리죠.”

(3) 산후금기

출산을 알리는 의미에서 금줄⁷⁹⁾을 치는데 지역에 따라 금줄에 다는 내용물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금줄로 이용할 새끼줄은 반드시 왼쪽으로 꼬아서 만드는데 그 이유는 금줄

77)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12일, 장항슈퍼).

78)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12일, 장항슈퍼).

79) 장항마을에서는 금줄을 ‘궁구’라 부른다.

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물건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새끼와는 반대로 꼬았다. 일단 아기가 태어나면 식구들은 한쪽 대문 기둥에서 다른 쪽 대문 기둥까지 어른 키 정도의 높이로 금줄을 치게 되는데 가운데는 좀 처지도록 하였다. 남자일 경우 숯, 고추, 술과 미역을 새끼에 끼워 걸고, 여자일 경우에는 고추를 빼고 걸었다.

“딸 낳을 때는 숯하고 술, 청술을 쏘고, 여기는 미역을 달테. 미역 달고 그래가 하고, 아들 낳았을 때는 고추 쏘고, 추가해요, 빨간 고추. 그래가 금줄을 삼칠일. 삼칠이 21, 삼칠밤을 쳤지. 금줄 쳐놔를 때는 동네 사람들 못 들어오고, 아무도 안 왔어. 친척들도. 삼칠일 동안. 부정 탄다고. 여기 금줄만 치는 게 아니고, 장대에도 이렇게 붙여 놔. 장대 한 개만. 못 들어오라고.”⁸⁰⁾

“아를 낳으면 공구를 치거든. 공구를 치면 상제하고 결혼 날 받은 사람은 못 들어와. 시아버지가 왼새끼를 꼬아가지고 만들고 걸어 뒀지. 아들 낳으면 고추하고 숯하고 술있고, 미역도 걸고, 딸 낳으면 고추 빼고 걸고. 그런데 딸 낳아도 다음에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고추를 걸때도 있데.”⁸¹⁾

금줄을 치는 이유는 출산을 알림과 동시에 상가 등 곳은 곳에 간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만일, 곳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 아기에게 부정이 끼거나 복을 감하여 산모에게 해가 미친다고 한다. 금줄은 세이레동안 치는 경우가 많았고 이레 또는 두이레동안 치는 집들도 있었다. 금줄을 쳐놓은 동안에는 집안 식구들도 곳은 곳의 출입을 삼가야 했다. 금줄을 쳐놓는 기간이 끝나면 금줄은 거둬서 태워버렸다.

(4) 삼신상

아기를 낳게 되면 삼신상을 차렸다. 가신으로 삼신을 모시지는 않지만 출산을 한 후에는 삼신상을 차려 놓았다.

“삼신상 차렸어. 근데 여기는 상을 안 차리고 그냥 방바닥에다가 짚을 한 단 요래 손 없는 쪽으로 깔고. 하루 이틀 뒤에 있고, 사흘날 서에 있고 그게 있거든. 손 없는 쪽에. 밥하고 때마다, 때마다 그렇게, 집 위에다가 미역국하고 밥하고 놓았다가 내리고 그래 산모하고 애기 잘 크고 젖 잘 나오라고 하라고 그랬지. 그것도 삼칠일동안 차렸지. 금줄 거둘 때 그것도 치웠대.”⁸²⁾

“삼신상은 시어마이가 차렸는데. 물 한 그릇 하고 마른미역하고 올리데. 물은 매일 우물에 가서 새로 떠오고. 이레가 되면 미국 하고 밥 올리고 했다가 그건 내가 먹고 치우데.”⁸³⁾

삼신상을 차리는 방법은 가정마다 다르지만 이레까지는 짚단을 깔고 그 위에 상을 차리다가 이레가 지나면 짚단을 치우고 삼신상만 차렸다. 주로 미역국과 밥을 그 위에 올려놓고

80)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12일, 장항슈퍼).

81) 오정자(여, 70세, 김해택)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82)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12일, 장항슈퍼).

83) 오정자(여, 70세, 김해택)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삼신할매에게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빌었다.

(5) 이레

출생 이후 처음 맞는 의례는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치르는 첫이레다. 이날 아침에는 방의 윗목에 삼신상을 차리고 밥을 올렸다가 산모가 먹었다. 이때 금줄을 걷는 경우도 있는데 금줄을 걷으면 일가친척들이나 동네사람들이 아기를 볼 수 있었다.

“7일 때,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밥하고 미역국 끓이고, 그래놓고 빌지. 빌고, 삼신 할머니 애기 잘 크고, 똥 찢찢 싸지 말고 대변 잘보고 거기.”⁸⁴⁾

(6) 돌잔치

돌은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 태어난 날은 생일이라 하여 축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히 태어나서 처음 맞는 생일에는 친인척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성대하게 잔치를 하였다. 돌잔치 때 여러 음식을 차려놓고 사람을 초대하면 초대 받은 사람들은 반지나 옷, 돈을 아기에게 주었다.

“돌잔치 때 그냥 수수를 떡 찌고, 수수가 원래 액을 물리친다고, 돌 때는 수수떡을 하거든, 수수떡 하고, 미역국 끓이고, 쌀하고, 과일 조금 사가꼬 먹고 그렇지. 상에 놓는 거는 수수떡하고 미역국하고 밥하고 그렇게 밖에 안놔. 그럼 돌 때 마을사람들 오면 반지 같은 거주고, 반지는 이제 친척들이 해주고, 마을 사람들은 돈 같은 거, 아니면 애기 속옷(?) 입히고 주머니 채워주면 거기에 좀 넣어주고.”⁸⁵⁾

돌잔치 때에는 돌상을 차리는데 돌상 앞에 아기를 앉혀 놓고 음식, 책이나 연필, 돈 등을 골라잡게 하여 그 아기의 장래를 점치는 돌잡이도 하였다. 돌잡이는 아기가 잡는 것으로 보아 그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미리 점쳐보는 한편, 돌상 주위를 돌면서 물건을 집게 함으로써 아기의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돌잔치 때 음식이랑 실, 돈, 연필 이런 거 놓잖아요. 그런 거 잡잖아요. 그런 건. 어떤 애는 연필을 먼저 잡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먹을 걸 먼저 잡는 애가 있고, 아들이(애들이) 여럿이니깐 다 다르더라고. 아들은 연필을 먼저 잡데. 실 공책하고. 먹을 거 잡으면 욕심이 많다고 그러지. 욕심이. 실 잡으면 오래 산다 그러고. 돈 잡으면 돈 많이 번다 그러고. 실 잡으면 명이 길고.”⁸⁶⁾

장항마을 여성들은 일을 하다가도 집으로 뛰어 들어가 아기를 낳아야 했다. 출산 후에는 산후 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아기를 위한 의례는 잊지 않았다.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아도 아기에게 해가 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한다.

84)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12일, 장항슈퍼).

85)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12일, 장항슈퍼).

86)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12일, 장항슈퍼).

2. 혼례

장항마을 사람들은 대부분이 20세를 전후해서 혼례를 하였다. 여성의 경우, 일제의 처녀 공출로 인해 조혼을 하는 풍습에 따라 혼례를 치른 경우가 많았고, 남성의 경우 군대를 가기전이나 군대에 다녀와서 혼례를 치루는 경우가 많았다. 오정자씨의 사례를 통해 1950년대 후반에 행해지던 장항마을 혼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혼담

오정자씨는 19세가 되던 해 동짓달에 김해에서 장항마을로 시집을 왔다. 당시 시삼촌의 처외가가 장항마을에 있었고, 남편 될 사람의 집안이 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자라 하여 외삼촌이 중신을 서게 되었다.

“혼담은 나는 김해평야에 살았고, 영감은 여 살았는데, 인제 우리 집에 시삼촌의 처외가가 여기 있었던 거야. 연결이 되어가지고 혼담이 됐는 갑데. 어려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지. 그때는 시집 안 간다는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시집간다는 말도 못하고. 그래가 어찌 혼담이 됐는데, 여기 와서 고생만 무지하게 했지.”⁸⁷⁾

2) 의혼

혼사가 결정되면 중매쟁이를 통해 가문과 인격을 알아보고 궁합을 보았다. 만약 궁합이 좋아서 양가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남자 측에서는 중매자를 통해 혼인하기를 청하는 청혼서를 보내고, 청혼서를 받은 신부 측에서는 다른 의사가 없으면 혼인을 승낙하는 허혼서를 보냈다.

3) 납채, 납기

정혼이 되면 남자 집에서는 신랑 될 사람의 본관 성명을 적은 사주를 여자 집으로 보내는데, 이를 ‘사주단자’라고 한다. 사주단자에는 대간지에 모년 모월 모일 모시라 쓰고, 줄을 바꾸어 본관 성명을 쓴다. 사주단자를 보낼 때에는 청실과 홍실로 감고 사주보에 싸서 보내기도 하는데, 이때 납채서를 함께 보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중매인이나 마을에서 복이 많은 사람을 가려 뽑아 여자 집에 보내며, 여자 측에서는 대청이나 큰 방에 상을 차려 놓고 정중히 받았다.

“그게 혼담을 하먼은 그때는 종갓집에서 사성일이라 하는 것을 보내주는 거라. 요즘으로 치면 상견례로 치지. 요즘에는 양가 부모가 앉아서 상견례를 하는데, 그때는 그게

87) 오정자(여, 70세, 김해덕)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아니고, 사성이라 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거기서 중신애비가 종갓집에서 중신애비가 사성을 가지고 처녀 집으로 갖다 주는 거라.”⁸⁸⁾

사주를 받은 여자 집에서는 좋은 날을 받아 혼인 날짜를 정하고 남자 측에 알리는데 이절차를 납기라고 하였다. 혼일 날짜는 양가 집안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달은 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주로 조상 제사가 있는 달이나 부모의 생일이 있는 달은 피하였다.

“그래 갖다 주면 처녀 집에서 날 받는 사람, 날 받는 사람이 있거든. 별도로. 뭐, 스님한테나 집 안에서도 글 잘 알고, 풍수를. 우리는 우리 친정에 우리 할아버지가 풍수고 이래서 날을 받아서 했거든. 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점잖은 분이시고. 그래서 날을 받으면은 봉차날이 언제다, 잔치가 언제다, 결혼식이 언제다 해가지고, 그거를 또 총각 집에서 중신애비가 또 가져 오는 거라.”⁸⁹⁾

4) 납폐(納幣)

혼약이 성립되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혼서지와 채단을 함께 넣어서 보내었다. 이것을 ‘봉채’라 하였다.

“봉채는 집안사람이나 총각하고 그때는, 요즘은 가방에 간단하게 들고 오지만, 그때는 봉채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짐이 무거운 기라. 그래서 총각 따라오고, 집안사람 따라오고. 요새는 봉채를 빨리 안들어 갈라고 일부러 버티고 돈 받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러면 상놈이라고 그랬어. 그냥 얹전하게 갖다 주고, 갖다 주면 처녀 집에서는 봉채를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마당에 다가 덕석 펴고, 덕석이라고 멍석을 그거를 펴고, 병풍치고, 물 떠다 놓고,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그냥 조용하게 부모네들이 함을 받는 기라. 받아가지고 방에 가서 끌러놓고 이야기하고 끌러놓고 보고.”⁹⁰⁾

과거에는 함을 들일 때 조용하고 경건하게 들이고 함이 들어오면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받아들였다. 봉채 안에는 채단과 혼서지가 들어 있었다. 채단은 청홍색의 치마저고리와 이불감이다. 신부 집에서는 받은 채단으로 신부의 혼례복과 이불을 만들었다.

“이불은 총각 집에서 봉채로 보면 이불하고 속하고 처녀 집으로 줘. 처녀 집에 줘서, 처녀 집에서 마당에다가 요즘은 이불집에서 다 되잖아. 그때는 옛날이 되가지고, 처녀 집에서 덕석을 패고, 마당에 바람 안 불고, 낮 고요하니 좋은 날. 그래가 이불을 꿰매가지고 그랬었지. 그래해 가지고 그게 이불이라. 그리고 우리가 상 받은 거나 이렇게 상답이 이불이라 거든. 옛날에 우리 결혼식 할 때는 상이불 해가 온 그런 것도 없었고, 중년에 가가지고는 우리들 아들 내 며느리보고 딸 갈 적에 상이불이라고 하는 거는 시아

88)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89)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90)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버지, 시어머니 이불 해가 가는 것을 그것도 상이불이라고 하거든. 우리도 며느리한테는 다 상이불 받았어.”⁹¹⁾

옷과 이불을 만들 때에는 마당에서 하였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고 좋은 날을 받아 친척이나 마을사람들 중 바느질 솜씨가 좋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여 함께 만들었다.

“옷감을 만들어야 시집가지. 가져가지. 시집을 가면은 총각 집에서 온 것을 다 옷감을 다 만들어서 가야되. 이불도 꼬매서 가고, 옷감도 옷으로 만들어 입고. 우리는 우리 옷은 또 좀 잘하는 사람이 집안사람이 바느질 못하는 사람은 못 하거든. 요즘은 바느질 같이 그런 거 그때는 그런 거 없고, 집안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 가족 중에서 숙모나, 고모 이런 가족이나 이웃 사돈도 빼고, 이웃 사람 중에서 바느질 좀 예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웃 끼리끼리 다 해서 보통 다 해주거든.”⁹²⁾

옷을 만들 때에는 시댁식구들의 옷까지 함께 만들어 갔었다. 보통은 세벌을 해서 가지만 신랑 집에서 옷감을 많이 보내줄 경우에는 옷을 더 만들어 가기도 하였다.

“우리 집에서 시집 올 적에는 다른 사람보다는 적게 해갔지. 친정이 못 살기 때문에. 많이 하는 사람은 요즘도 안 그런가, 많이 하는 사람은 몇 천 만원씩 해가지고 막 그때는 우리 친정이 못 살아가고 좀 적은 형편이고, 이집은 옛날에 총각 집은 잘 살아 가지고, 봉채를 옷감 많이 받았어, 나는. 많이. 옷을 다섯 벌 하고도, 또 한 가지씩 별도로 더 넣거든. 다섯 벌 해가지고. 그래 주는 사람이 없어. 보통 세 벌인데, 그때 난 다섯 벌 담고.”⁹³⁾

옷감과 함께 들어있는 혼서지는 색색의 실로 감은 뒤, 빨간 보자기에 싸서 보냈다. 혼인을 하고 보통 장농의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평생을 보관한다. 그러다 부인이 죽으면 묘에 함께 묻는데 이는 혼서지를 보고 신랑을 찾아가라는 의미이다.

(“할머니 그럼 봉채 올 때, 이런 혼서지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봉채 오면 총각 집에서, 총각 집에서 이거는 총각 집에서 하는기라. 이것도 아무나 못 쓰고, 돈 들여서 써가지고, 이래 하거든. 돈 들여서 써가지고, 이것만 이래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요래 해가지고, 요거는 날 받이고 요거는 애장지인데, 저거는 능수대로 요게 애장지거든. 여기다가는 옛날에 꽃 실. 꽃 실을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이런 실로 좀 잘한다고 이거를 막 감아가지고, 보자기도 이런 빨간 보자기 이쁜 보자기 딱 이쁘게 만들어서 끈을 만들어 딱 싸가지고 그래가 동시에 딱 넣어서 오는 기라. 한데 넣어서 오면, 처음에 시집을 오면서 여기에 옷감을 넣어서 오지. 그때는 창호지가 하얗 때지만, 요새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누렇게 됐지.”⁹⁴⁾

5) 대례(大禮)

91) 오정자(여, 70세, 김해택)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92) 오정자(여, 70세, 김해택)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93) 오정자(여, 70세, 김해택)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94) 오정자(여, 70세, 김해택)의 제보(2009년 2월 15일, 제보자의 집).

대례는 흔히 말하는 결혼식이다. 혼인날이 되면 신랑은 신부 집으로 가마를 타고 오는데 이를 ‘초행’이라고 하였다. 가마는 주로 이웃사람이 들어주며, 초행을 갈 때에는 집안 어른과 신랑의 친구들을 대동하였다.

“그럼 할아버지가 오실 때는 걸어서 오셨어요?” “그때는 버스가 빨간 버스, 빨간 그거 버스 완행이 시내에서 북부까지 가는 게 있었거든. 북부까지 가는 게 있고, 북부까지 가가지고 북부에서 김해 오는 버스 있고. 그럼 김해에서 김해평야 올라 하면은 택시 타야 되. 택시 불러가지고. 그래 왔거든.”⁹⁵⁾

신부의 집까지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가마를 타거나 걸어오지만 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버스를 타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택시를 타고 오기도 하였다. 초행길에는 신랑 집에서 남자아이가 신랑의 신발을 들고 따라왔다. 혼례를 치를 때 신을 신발을 들고 오는데 보통 신랑의 동생들이 따라왔다.

“시아버지랑, 총각 또 그날에 신 들고 온다고 우리 막내. 막내 시동생. 열두 살 넘었는데. 우리 육지는 신 들고 오는 거 그런 거 없었어. 여기는 신 들고 온다면서, 그러면 쪼그마한 시동생이 따라왔는데, 혼례식을 하려면 신을 벗고 나막신을 같은 것을 신어야 하는데, 신을 이렇게 들고 있는 기라. 그렇게 들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시동생이 따라왔데. 그래 오고, 시삼촌이나 시 큰아버지가 있으면 따라오고.”⁹⁶⁾

이렇게 신부 마을에 도착한 신랑은 바로 신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의 사랑방에 머물렀다. 신랑이 머물고 있는 방에 신부 집에서 상을 차려 들이는데 신랑의 상과 상각들의 두 개의 상을 차려주었다. 신랑은 이 음식을 먹고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혼례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렸다.

“신랑이랑 시아버지랑 상각을 오시면은 옛날에 우리 친정에는 옛날에는 사랑채가 없는 집이 없고, 옛날에는 적당히 살림을 사는 사람은 아래채가 있는 기라. 아래채가 있었어. 사랑채가 있었어. 사랑채가. 우리 거기 집은 드문드문 있어 사랑채에 모시고. 큰상 두 상을 차리고, 하나는 새신랑 상 하나, 하나는 상각상 하나. 그렇게 두 상 차리는 기라.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큰 힘이라. 그래 상각상하고 신랑상하고 두상을 채리거든.”⁹⁷⁾

한편 신랑과 함께 온 우인들(지인들)은 신부의 집에서 술과 음식을 대접 받고 신부를 놀리기도 하였다.

“우인들이 오면 돈 내놓으라 하고, 신부 데리고 와서 신부 노래시키라고 하고, 난 모른 척, 밖에도 못 보는 기라. 그날 때까지는 신랑 얼굴도 못 보지. 쳐다보지도 못하고.

95)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96)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97)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5일, 제보자의 집).

우인들한테 술 대줘야 하지. 상각들 어서 가야하는데 안가면 옛날에 정종이 얼마나 귀하노. 정종도 대접해야지, 때에 따라서 과일도 줘야지, 안주도 대접해야지, 어서 떼어버릴라고, 어서 가야 되. 그 사람들. 노래를 했는데, 내가 노래를 너무 할 줄 모르는 기라. 몰라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총각은 우리 집 할아버지가 스물다섯이니까, 나는 열아홉인데 만으로 치면 열여덟도 안되지. 12월생이니까. 그래가 노래를 해야 하는데, 내가 노래가 있나, 노래를 모르고, 얼른 전부 보내야 할텐데, 안 보내면 우리 친정집이 못 살기 때문에 한 시간이라도 더 붙잡고 있으면 손해고 낭비가 되는 기라. 닭도 그때 시골에는 닭을 많이 키웠거든. 그러면 닭을 안 줄라고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오동추야 달이 밝아 이거를 불렀는데 이거 한 소리 들을라고 안가고 있데.”⁹⁸⁾

신부는 신랑이 마을에 도착하였다는 기별이 오면, 함을 받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옷과 화장품으로 혼례 준비를 하였다. 화장은 이웃사람이나 친척들 중에 젊은 사람이 신부화장을 도와주었다.

“결혼식을 한 2~3일 놔두고 목욕하러 가는 거라. 옛날에 우리 시대에 목욕이라고 하면 여름 아니면 설달그믐에 물 내려가지고 또, 팔월 달에 한번하고, 여름에는 일로 더우니까 찬물로 하고, 아니면 목욕 못했어. 화장하는 거는 이웃에, 이웃이 아니고 친척들, 다 친척이 많이 있거든. 젊은 사람. 우리는 우리 올케언니가. 갓 시집 온 새댁이, 첫 애기 밖에 안 낳은 올케 언니가 화장을 해줬지. 지금은 친척이 있어도 결혼식 날 바로 슬쩍 비치고 하는데, 옛날에는 모래 쭉 잔치라고 하면 온 친척들이 다 와. 와가지고 먼 사람 떡방아도 썰놓고, 전부 준비해가지고, 그 떡가루 썰가 떡 쳐가지고 그 떡을 전부 쌀로 80키로짜리 그것도 더 하는 기라. 그 쌀을 다 떡을 할라 그러면 가족관계가 얼마나 많이 모여야 되. 이웃사람도 거들고 그래하거든.”⁹⁹⁾

신랑과 신부가 혼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신부 집 마당에서는 붉은 보자기를 덮은 높은 상을 마당 중앙에 놓고, 양쪽에는 자리를 깔아 초례 준비를 하였다. 상 위에는 촛대 한 쌍, 대추, 밤을 비롯한 음식들을 차리며, 꽃병은 마주보게 놓고 오색실로 묶었다. 또한 꽃병에는 주로 대나무와 술을 꽂았다. 이는 절개를 지키고 장수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오색실은 정이 있어서 떨어지지 말라는 뜻이다.

“이제 청실 홍실 이거는 어데라도 청실홍실 밤하고 대추 한 개 띠고, 밤 한 개 띠고 이래가지고 청실홍실 이래가지고 청실홍실 밤하고 해가지고, 병이 있는 거라. 병도 이런 병이 아니고, 옛날에는 뉘주 병이라고 요즘은 좀 골동품 같은 거, 하얀 병이 있거든, 손잡이 있는 거. 거기다가 대나무 꽂고, 또 동백나무, 우리 거기는 저기 멀리까지 가서 동백나무 구해왔어. 거기 동백나무 물 담아가 꽂고, 병에다가 청실홍실로 감고, 이쪽에 병에다 담고, 또 저쪽도 병에다 감고 그래가 이래이래 청실홍실이 되지.”¹⁰⁰⁾

또한 혼례상 위에는 ‘용떡’이라고 하여 가래떡이 올라갔다. 가래떡을 길게 뽑아 쟁반위에

98)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99)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5일, 제보자의 집).

100)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5일, 제보자의 집).

둥글게 말아서 두 군데에 나눠 올려놓았다. 그리고 가래떡의 끝부분마다 밤과 대추 물렸다.

“상 위에는 특별히 올라가는 거 없고, 과일 간단하게 한두 가지 오르고, 용떡이라고 있어. 가래떡. 가래떡 그걸 해가지고, 두 군데로 담아가지고 가래떡을 큰 쟁반에다가 요래요래 돌돌돌 사래가지고. 그걸 용떡이라고 하는 기라. 가래떡을 요래 해가지고, 하나는 용 한 마리는, 입도 없고 가래떡이지만, 이걸 좀 이래 해가지고 썬아가 입에 대추를 이래 물리고, 또 하나는 밤을 또 하나 물리고, 용떡이라 하는 그걸 놓고, 다른 걸 안 놓거든.”¹⁰¹⁾

초례 준비가 끝나면 신랑은 마당으로 들어오는데, 식은 홀기에 따라 진행되었다. 초례는 전안례 · 교배례 · 합근례 등 크게 3가지의 절차로 치렀다. 신랑은 나무로 만든 오리¹⁰²⁾를 가지고 가서 초례에 쓰는데, 이것을 전안례라 하였다. 오리는 평생 해로하고, 짝이 죽어도 개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평생을 한 사람만 보고 잘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총각이 나와가지고 남색 오리를 머리만 내어놓고, 오리를 방으로 던져주는갑데. 신부화장하고 그러는 방을. 그리로 던져주면 오리가 방으로 와. 오리가 방에 오면, 신랑이 왔다는 표신가 모르지. 옛날 풍습에. 오리를 넣어주면 그럼 신부가 단장이 다 됐으면, 총각은 이제 두루마기 입고 사모관대하고 그럼 신부가 나가는 거지. 그때는 우리는 신랑은 이제 두루마기 입고 바지입고 하는데, 신부는 하얀 수건 이래 큰 수건가지고 앞을 가리니까 신랑이 뵈인지 청실홍실 암것도 안보이. 앞이 안보이. 신랑도 처녀 얼굴도 못 보지. 우리는 나을 때 집안 오빠들, 삼촌들, 새댁들은 구경도 안하고, 사촌 오빠도 되고, 육촌 오빠도 되고, 삼촌도 되고, 이래가지고 방에서부터 양쪽에 잡고 오는기라. 신부를 복판에 두고. 근데 여기 오니까네, 여자가 시키데. 나도 우리 시누 시집갈 때, 절 한번 시켜봤다.”¹⁰³⁾

오리를 받은 신부는 이제 혼례를 치를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고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으로 나을 때에는 집안의 남자 두 명이 신부를 양 옆에서 마당까지 부축해 나왔다. 신부가 나오면 신랑과 신부는 맞절을 하는데, 이를 ‘교배례’라 하였다. 홀기에 쓰인 절차에 따라 신랑이 먼저 절을 하고 이어 신부가 절을 하였다.

“이제 나오면 절을 하자나. 그것도 나는 모르겠고, 요즘도 와 그거 하면은 주례사가 신랑신부 맞절하고 시키는대로 하잖아요. 신랑신부 맞절, 하면 맞절하고, 행진하면 행진 하다시피, 그때도 전부 홀기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시켜주는대로 하는 기라. 신랑은 절로 재배라 하제. 신랑은 재배를 몇 번하고, 신부는 재배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시키데. 시키는대로 하는 기라. 어르신들이 홀 부르는 사람이 부르면, 지금은 신랑입장, 신부입장 그러지만, 그때는 신부는 출~ 이라거든. 신부 출~하면 신부 오라카는 기고. 그래하는 갑데. 우린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참 잘해.”¹⁰⁴⁾

101)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102) 목안을 쓰는 것이 보통이나 기리기와 비슷한 오리를 사용하였기도 하였다.

103)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104)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교배례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가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를 ‘합근례’라 하였다. 먼저 술을 마시기 전에 신랑은 세숫대야에 담긴 물에 손을 씻었다. 술을 조금씩 마시거나 입만 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숨에 마시고 안주까지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신랑이 술을 마시고 나면 신부가 술을 마시는데 신부가 술을 마실 때에는 직접 마시지 않고 신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술을 손에 묻혀 신부의 입에 뿌려주었다.

“재배를 하고 나면 술을 마시는데, 술 마시기 전에 손을 씻어. 신랑이 그렇게 하는 갑데. 대야에다가 판에다가 수건을 판에다가 이래 깨끗한 새 수건을 펴고, 대야에 다가, 세숫대야 아니고 밥 먹는 대야에 다가도 총각 앞에 갔다 주는갑데. 이제 총각은 술을 주면은 또 좀 내성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신랑이 술을 조금 입에다 댔다가 말고, 이라고 또 인제 안주로 밥을 주거든. 박력 있는 사람은 술도 훌쩍 먹어버리고, 밥도 우락부락 부숴버리고 그다 막 송편을 (채록불가) 안 그런 사람은 술도 살짝 입에다 대고, 밥 깎아 놓은 그것도 입에 댔다가 말지. 신부는 술은 입도 안대지. 손에 묻혀 가지고 입 있는데 묻혀주데. 그래 하데. 우리 그때. 그런데, 우리 김해 풍습하고 여기 풍습하고 완전하게 다르데. 요즘 치면은 저 베트남하고 여기 한국하고 풍습이 완전히 다른 거처럼.”¹⁰⁵⁾

혼례가 끝나면 신랑은 큰상을 받았다. 신부 집에서는 신랑과 상각들이 첫날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먹으라고 음식을 한가득 차려 상을 넣어주면 신랑과 상각들, 우인들이 음식을 나눠먹었다.

“사진 찍고 나면 첫 날밤 될 때까지 신랑은 큰 상을 받고, 상각도 큰 상을 받고, 또 여기는 신랑 큰 상을 차려 놓으면, 우인들이 다 뺏아 먹고, 신랑은 먹지도 못하고.”¹⁰⁶⁾

6) 신방(新房)옛보기

혼례식 날 저녁에는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서 첫날밤을 보냈다. 신방은 주로 신랑이 있던 큰방을 사용하는데, 날이 저물어도 우인들은 쉽게 방을 비워주지 않았다. 신랑과 신부의 첫날밤을 방해하기 위해 장난을 치는 것이었다. 우인들을 달래기 위해 신랑의 가족과 신부의 가족들이 우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 그제야 방을 비워주었다.

“신부가 큰 방으로 들어가야지. 그래 하면은 상각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안가고 거기서 자고, 그때는 가라해도 안되고, 상각을 주면은 막 두드리고 노래 부르고 야단법석을 떨다가 12시가 되어도 방을 안 비워주는 기라. 첫날밤을 치러야할 방을 안 비워주는 기라. 한 새벽 2시, 3시 되면 그제야 방을 비워줘. 그래하면은 막 상각들이 안가면 처녀 집에서는 어마이나 오래비나 이런 사람들이 상각을 꼬우고, 오만 것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래가 상각들이 다른 집에 가서 자고. 그래 하거든.”¹⁰⁷⁾

105)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106)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5일, 제보자의 집).

107)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우인들이 모두 물러가고 신방에 신랑만 혼자 남아있으면 신부가 신방으로 들어갔다. 혼례 북 그대로 입고 양옆에 여자 친척들이 도와주면서 신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면 처녀가 신랑 방으로 들어가지. 그때는 언니도 있고 올케언니도 다 있었으니까 언니들이 데려다 주거든. 그때는 족두리하고 다 쓴 채로. 낮에 내가 혼례 했지. 낮에 내가 혼례 한 그 차림으로 다 해가지고 총각 방으로 가는 기라.”¹⁰⁸⁾

신방에는 ‘방개상’이라고 부르던 상이 하나 놓여있었다. 그 위에는 술과 약간의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첫날밤을 치르기 전에 신랑과 신부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신랑은 술을 조금 마시지만 신부는 부끄러워 마시지 않았다.

“첫날밤에 가면은 그때는 말이 방개상 이러대. 그래가 판에다가 이런 판에다가 갖가지 안주 해가지고 술로 그때는 탁주가 아니고 청주 별도로 떠 놓았다가, 신랑하고 신부 있는 방에 들여주지. 들여다주면, 이제 그거를 옮겨 할라고 하면은 그거를 각시가 신랑한테 먼저 한잔 부어주고, 신랑이 마시고 나면 또 신랑이 각시한테 부어줘야 하는데, 옛날 우리 그럴 적에는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부어 달라고 그래도 내가 부어주지도 않았고, 막 주는 것도 안 얻어 먹었고.”¹⁰⁹⁾

방개상에 차려진 술과 음식을 먹고 나면 잠을 자게 된다. 잠을 자기 전에 신랑은 신부의 족두리를 벗겨주고 옷고름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오정자씨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신랑이 옷을 벗겨주는 것을 거부하자 신랑은 마음이 상해서 혼자 누워 자버렸다.

“총각이 비녀 빼주고, 옷고름 풀어주지. 옷은 안 벗겨도 옷고름 풀어주고, 족두리 쓴 거 벗겨 주고 벗겨주거든. 벗겨주는데, 나는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모르고 그래가지고 너무 할 줄 몰라가지고 총각은 스물다섯이니까 총각은 알거는 다 아는데, 나는 너무 어려서 아무 것도 모르는 기라. 그래서 총각 보고는 치웠는 기라 내가. 말로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를 막 잡아 덩기고 돌아 앉혀서 술도 따라달라고 하고 부끄러움타면 안 따라주고, 우리는 신부가 너무 싱거운기라.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딱 요래 앉아가지고 신랑 술도 안 부어주고, 가만히 있었는데, 신랑은 낮에 무인들하고 술이 한잔 됐지, 또 스물다섯이면 술 한 잔 할 때 됐거든. 바로 저 윗목에 지 혼자 누워 자네.”¹¹⁰⁾

신랑이 혼자 누워 자자 신부는 눕지도 못하고 혼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새벽이 되자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

“그래 조금씩 앉아 있다가 누워보지도 못하고, 조금씩 앉아 있다가 내 자보니 영 날이 새벽됐네. 새벽에 그 때 시계가 있나, 새벽쯤 됐다 싶으면 작은 방으로 가 버리지. 신랑 여서 누워 자고.”¹¹¹⁾

108)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109)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110)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111)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첫날밤에는 사람들이 구멍을 뚫어서 신방을 엿보기도 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병풍을 문 앞에 세워 신방을 가리기도 하였지만 장난이 심해 병풍도 밀어내곤 하였다. 늦게까지 신방 엿보기가 이어지면 신부의 어머니가 장난을 그만 두게 하고 쫓아내었다.

(“첫날밤 한다고 동네사람들이 엿보고 하지 않았어요?”) “했지. 이제 신부가 들어가면 문 뒤에서 유리문이 아니고 그때는 창호지 막 다 뜯어 놓는다. 들여다본다고 그래 했거든. 병풍은 한 개 있는데, 뒷문이 있는갑네. 뒷문도 해놓고. 그러면 처녀 집에서 처녀 엄마는 막 쫓아내고, 그래가꼬 얼마나 옛날에는 장난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 흥이 아니거든. 장난이지.”¹¹²⁾

7) 신랑다루기

혼례를 치른 다음날을 ‘동상제날’이라고 하였다. 동상제날 아침이 되면 상각들은 상을 받고 돌아간다. 상각이 돌아가고 오후가 되면 신부의 남자 친척들은 신랑다루기를 하였다. 다다미 방망이로 신랑을 사정없이 때리고 짓궂은 장난을 쳤다.

“다음 날은 동상제 날이라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상제 날이라고 하거든. 집안 간에 집안에 오빠 삼촌 이런 사람은 좀 점잔을 차려가지고 옛날 풍습에 많이 점잔을, 우리 김해 풍습 점잔을 채렸어. 무조건 신랑 다룬다고 신랑을 막 다듬이 방망이로 신랑을 두드려 패고 그러는 기라. 그래가 나이 어린 신랑들은 벗겨서, 그때 우리들은 스물다섯이 되니까 그라진 않했지. 참 아프다고 하데. 다다미 방망이로 때리니까 군대 가서 기합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하데.”¹¹³⁾

신랑다루기를 하면서 신랑에게 첫날밤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밤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어떤 것을 먹었는지 물어보면서 신랑이 어젯밤 방개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하나하나 말하고 나면 처남들은 장모에게 어제 먹은 음식을 내어 오라고 하였다. 장모가 음식을 차려주면 그제야 신랑 다루기를 멈추었다.

“때리면서 뭘 물어보거든. 어제 밤에 처녀가 그러면 결혼을 했은께, 첫날밤을 치렀는지 말았는지, 근데 ‘이러마 와 넘은 꽃을 꺾었노?’ 그래가 처남들이 욕을 하고, ‘그래 어제 뭘 먹었노?’ 물어보면, 먹은 게 아무것도 먹었다 해가지고 그때는 장모님 소리가 생명부지. 처음에는 장모님 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지. 요새는 결혼 안했어도, 어머님, 장모님 하지만은, 그때가 참 장모님 소리가 안 나오지. 한번 본 적이 없어든. 그럼 안 죽을라고 “장모님!”하고 부르거든. 장모님 부르면은 장모가 오면은 어제 저녁에 먹은 거 내 놓으라고 안하나. 먹지도 않았는데, 처남들이 내 놓으라고 하면, 어제 저녁에 차린 상, 요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 음식이 큰 음식이라고, 그거를 다 봐두었다가 처남들 막 두들겨 패고 한 처남들한테 다 갖다 주고 달걀다고.”¹¹⁴⁾

112)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5일, 제보자의 집).

113)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114)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5일, 제보자의 집).

8) 우귀(于歸 또는 신행=新行)

신부가 신랑을 따라서 시댁으로 가서 며느리로서 치르는 절차를 ‘우귀’ 또는 ‘신행’이라고 하였다. 혼례를 마치면 신랑과 신부는 삼 일간 신부 집에 머물다가 시댁으로 갔다. 이때 시댁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부엌에 들어가 술뚜껑을 세 번 들어다 놔다 하는데, 이때는 친정과 마지막 이별이기 때문에 슬퍼서 계속 울음이 나온다고 하였다.

“삼일이 지나면 이제 시댁으로 가는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술뚜껑을 만져보고 가거든. 술뚜껑을 만질 때 그 눈물은, 요즘은 눈물 흘리나, 누가 우나 그때는 얼마나 우는지, 그때 옛날에 풍습은 딸 시집가는 날에는 초상나는 날이지, 가족도 울고, 부모들도 울고, 시집에 오는 사람도 울고 다 울었거든. 그렇게 다 헤어져서 시집에 오고. 그랬거든. 잘못된 풍습이란다.”¹¹⁵⁾

신행을 할 때 친정에서 상각으로 부친과 삼촌이 동행하고 처각들과 웃각시라고 하는 올케 두 명이 함께 하였다. 그리고 소금, 쌀, 고춧가루를 한곳에 싸서 가는데 이것들을 가는 길에 던져서 잡귀와 액을 물리쳤다. 신행을 할 때 보통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가는데 거리가 멀 경우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신부는 올 때, 웃각시라고 하는 사람은 올케언니하고 집안 올케하고, 두 명 따라오고, 처각들은 우르르 다 오고, 집안 처각은 많이 따라오고, 많이 가는 게 흥이 아니고, 우리 부친하고 삼촌들하고 상각따라 오고, 웃각시 따라오고, 또 처각들이 우르르 다 와가지고 처각들이 와가지고 내어오라고 하고 못살게 구는기라. 이게 반대로 됐지. 무인들이 신부 집 와서 못살게 하듯이.” (“신행 갈 때 가마타고 가셨어요?”) “이제 신행 갈 때는 가마는 안 타봤어. 나는 가마를 안타고, 택시타고 와가지고 배로 용원에 우리 배가 와가지고 우리를 싣고 왔거든. 시집을 오면서도 친정집에서 이래 봉다리를 이런 거 싸주데. 소금도 싸고, 쌀도 싸고, 또 고춧가루도 싸가지고 그래 인제 웃각시가 그걸 가져가. 웃각시가 그걸 간직해가지고 신부에게 한 개 던지고, 또 차 탈라 그러면 차 머리에 한 개 던지고, 또 배 탈라 그러면 배 머리에 한 개 던져버리고, 들어오면서 다 던져버리고.”¹¹⁶⁾

신부가 시댁에 들어올 때에는 대문에다 짚단을 추려놓고 불을 붙여 놓는데 신부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밟고 들어왔다. 이것 또한 집안에 잡귀와 액이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였다.

“대문 들어 서면은 짚단을 달아. 짚을 딱 짚단을 이래 추려가지고 딱 준비를 해가지고 세워 놓는 거라. 세워놓으면 신부가 오면은 짚단을 세워놓고 불을 붙이는데, 불을 붙이면 옛날에 비단치마 이래 입어 놓은 거 웃각시가 와서 요래주고, 발로 탁 밟고 불로

115)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4일, 제보자의 집).

116)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5일, 제보자의 집).

떠는 거라. 잡귀가 못 따라 오게 할라고.”¹¹⁷⁾

9) 현구고례(見舅姑禮)

신부가 시댁에 도착하면, 새 며느리로써 처음 시부모를 뵙고, 가족이나 친족들과 상면하는데, 이 절차를 ‘현구고례’라고 하였다. 신부는 먼저 시어른들에게 절을 하고 나중에는 집안 어른들에게 한꺼번에 인사를 하였다. 신부가 절을 할 때는 대반이 옆에서 도와주었다. 신부는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 방에 들어가서 큰상을 받았다. 이때 상각으로 온 장인도 다른 방에서 큰상을 받았다.

“인사드릴 때는 이쪽에서 또 신부 맞이하는 대반자라고 대반인이라고 있거든. 사람이. 그 대반이는 배타고 오면 배 머리에 나서가 있어. 이래 꾸며가지고. 새색시가 그 집에 들어오면 며느리들이 앞집 숙모도 되고, 며느리도 되고 꾸며가지고 나서가 있는 거라. 그러면 그게 옷각시 따라 온 사람이 신부 측에서 오는 사람이 오면은 요즘 치면 예식장에서 신부 아버지가 신랑한테 신부를 넘겨주듯이, 그때는 처의 집에서 올케 언니나 숙모나 누가 옷각시라고 둘이 따라오거든. 일단 그때는 잘 따라왔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이집 사람한테 신부를 인계해주고, 이집에 동서되는 사람이나, 동서나, 숙모되는 젊은 사람. 젊어도 좀 자식 잘 놓고, 아들 딸 잘 놓고, 혼자 된 사람 아니고 이런 사람 골라가지고 대반 앉히고, 옷각시도 그런 사람 앉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 쪽에 사람은 그렇게 인계해주고 말지.”¹¹⁸⁾

10) 사관드리기

신부는 신행을 온 이튿날부터 시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하였다. 이때 친정에서 준비해 온 조청과 엿 등 간단한 음식을 차려두고 문안인사를 드렸다.

“다음날 이제 문안인사를 드리러 가자나. 그러면 옛날에는 시집오면 신부가 방에 딱 들어서면은 시어머니 농부터 보지마라. 시어머니 농부터 쳐다보면 시어머니 눈에 밍보인다고 우리 시절에는 그래 시키는 거라. 문 열고 그러면 농이 여기 있으니까 농부터 먼저 보이는 걸 어찌나. 문지방에 먼저 들어설 때는 농부터 쳐다보지 말고 윗천장부터 먼저 쳐다봐라. 윗천장부터 쳐다 보면은 누가 위로보고 대우받고 산다고. 그래 시키고, 시어머니 농부터 보면 시어머니 눈 밖에 난다고, 시어머니 농부터 보지 말라고 그러데.”¹¹⁹⁾

문안인사를 드릴 때에 신부의 태도는 시댁식구들로 하여금 신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는데 방안에 있는 가구를 먼저 보지 말고 천장을 지켜보라고 하였다. 눈을 위로 향

117)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5일, 제보자의 집).

118)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5일, 제보자의 집).

119)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5일, 제보자의 집).

하여 보면 시댁에서 위로 보고 대우를 받으며 산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11) 재행(再行 또는 근친=觀親)

혼인 후 신랑과 신부가 친정에 가는 것을 ‘재행’또는 ‘근친’, ‘근행’이라고 하였다. 재행은 가정 형편에 따라 가는 시기가 다르나, 오정자씨는 신행을 간 달을 넘기지 않고 그 달에 재행을 갔다고 하였다. 재행을 갈 때에는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보냈다.

“근행이라고 그거는 삼일 뒤에 안가고 몇일 있다가 가지. 달은 안 넘긴다 해가지고 삼일 되는 게 아니고, 그름지기 하면 날짜가 없으면 달로 안 넘기고 가야된다 해가지고 삼일 만에도 가고 사일 만에도 가고 하는데, 또 좀 초승에 하면은 십일이나 십오일 있다가 달 안 넘길라고 그래 친정 가는 걸 근행이라 하거든.”¹²⁰⁾

3. 상례

상례는 가정마다 경제력의 차이, 종갓집의 여부, 선조의 영향 등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장항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김웅철씨의 사례를 통해 장항마을 상례문화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1) 임종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을 임종이라고 한다. 임종이 가까워 오면 어른을 평소 거처하던 방에 눕혔다. 자녀나 가까운 친척들은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며 유언을 듣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가는 길을 곁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요새는 다 병원에 있지만 옛날에는 병원에나 가나? 집에 이래 있으면 친척들이 와서 옆에 지켜보거든. 그래 이제 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숨이 넘어가는걸 보는기라. 숨이 넘어가면 알아. 사람이 힘이 탁 빠지고 그러거든.”¹²¹⁾

2) 부고와 초혼

사람이 죽으면 먼저 객지에 떨어져있는 자식이나 친지에게 고인의 죽음을 알렸다. 요즘에는 전화로 알리지만 전화가 없을 때에는 부고장을 보내거나 직접 사람을 보냈다. 부고장에는 만상주부터 상주들의 이름을 쓰고 죽은 이의 이름과 임종 일시도 함께 적었다.

120) 오정자(여, 70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2월 15일, 제보자의 집).

121) 김웅철(남, 85세)의 제보(2009년 2월 19일, 제보자의 집).

“사람이 죽으면 인제 부고장을 보내자나. 요새야 전화가 있으니께 다 전화로 하고 하지만 옛날에 전화 없을 때는 부고장을 보냈다고. 가까운 데는 사람들 보내고, 부고장에는 상주 이름 쓰고, 죽은 사람 언제 죽었는지 쓰고 그래 보내지.”¹²²⁾

고인의 죽음을 알리면 초혼을 하였다. 초혼은 고복이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지붕에 올라가서 망인의 옷을 손에 들고 집주소와 관직이나 택호 또는 이름을 부르며 ‘복’이라는 말을 세 번 외친다. 이것은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염원하는 것이다.

“인제 사람이 죽었다고 알리는 기라. 지붕에 올라가서 할 때도 있고, 그냥 마당에서 할 때도 있고. 옷을 들고 가갸고 3번 외치거든. 복이라고. 그게 이제 초상난 거 동네에 알리고 죽은 사람 좋은데 가라고 그러는 기지.”¹²³⁾

연락을 받은 마을사람들은 상갓집으로 모여 각자 역할을 나누어 일을 도왔다. 여자들은 주로 음식을 만들거나 손님을 대접하고, 남자들은 상갓집을 꾸미거나 힘쓰는 일을 하였다.

“우리는 초상이 나면 반이 나나져 있거든. 그럼 반대로 하는 기라. 1반, 2반, 3반 돌아가면서. 자기 차례가 되면 초상난 집에 가서 음식 하고 손님 대접하고 그러지. 옷은 우리가 안 만들어. 다 초상난 집에서 하지. 요새는 바느질도 안하고 다 사서 하고 그러지.”¹²⁴⁾

3) 염습

사람이 죽으면 몸에 있는 구멍을 통해 고인물이 흘러내리는데, 이를 청결히 닦아주고 수의를 입혔다. 이를 ‘염’이라고 하였다. 염이 끝나면 물에 불린 쌀을 시신의 입에 넣었다. 이는 저승에 가서 평생 동안 먹고 살 식량을 의미하였다.

‘습’은 시신을 싸서 입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사망한 다음날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자식이나 친척에게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이틀이나 사흘 뒤에 하기도 하였다.

“죽은 사람 염을 하자나. 염은 죽은 사람한테 구멍이 있는 거는 다 막아. 코하고 귀하고 이런데 다 막지. 안 막으면 물이 막 나오거든. 그래가 막고 입에는 이제 쌀을 물에 불려갸고 넣거든. 이거는 인제 죽었으니께 저승에 가자나. 저승 가서 잘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지. 이러고 나면 이제 습한다고 수의 입혀서 관에 넣는 거지.”¹²⁵⁾

122) 김웅철(남, 85세)의 제보(2009년 2월 19일, 제보자의 집).

123) 김웅철(남, 85세)의 제보(2009년 2월 19일, 제보자의 집).

124) 김웅철(남, 85세)의 제보(2009년 2월 19일, 제보자의 집).

125) 김웅철(남, 85세)의 제보(2009년 2월 19일, 제보자의 집).

4) 소렴과 대렴

소렴은 시신을 옷과 이불로 감싸는 일이다. 보통 대렴과 동시에 하였다. 대렴은 소렴을 끝낸 시신을 칠성판에 옮기고 입관하는 절차이다. 이때는 손톱과 머리카락을 주머니에 넣고, 망자가 사용하던 옷이나 이불을 사용해 관 속에서 시신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였다. 또한 입에는 쌀과 구슬을 물리고 주머니에는 노잣돈을 넣었는데, 이것은 저승에 갈 때 넉넉하게 가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입관의 절차가 끝나면 시신을 대청에 옮겨 놓고, 그 앞에 병풍을 쳐서 빈소를 차렸다.

빈소를 두면, 사랑방에는 사진을 걸고 큰 상을 차렸다. 그 상에는 큼지막한 대구포와 과일, 유과 등을 올렸다. 남자들은 보통 이 방에서 쉼을 신고, 막대기를 쥔고 있었다. 막대기는 어머니가 죽으면 버들막대기, 아버지가 죽으면 대나무를 썼는데, 이 또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여자는 버들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려 다른 집으로 개가할 수 있지만, 남자는 새사람을 맞더라도 대쪽같이 자신의 집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5) 성복

입관 후 영좌를 설치하면, 상주는 옷을 갈아입고 성복제를 지냈다. 상주는 삼베로 된 상복을 입고 제상을 차려 분향하고 헌주한 다음 재배하였다. 남녀 복인은 마주서서 절을 하고 곡을 하였다. 상복은 상주와 만며느리만 삼베로 된 상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은 흰옷이나 검은 양복을 입고 삼베를 머리와 팔 또는 다리에 걸쳤다.

“성복은 얹혀놓고 그날 지내지. 인제 상주네가 다 흰옷입고. 상주랑 만며느리는 삼베로 된 거 입고. 다른 사람들은 흰옷입고. 요새는 검은 거 양복입고. 삼베를 머리에 쓰고 팔에나 다리에 달고 하지. 그래가 빈소라고 차려놔.”¹²⁶⁾

6) 출상

임종한 지 보통 3일이 지나면 시신을 장지로 옮기는데, 마을에서 보관하던 상여를 사용했다. 상여가 나가기 전에 약간의 음식과 술을 준비해서 발인제를 올린다.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가 나갔다. 상여는 고인이 살던 집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장지로 이동하였다. 상여가 나가면 상가에서는 고인이 입던 옷과 신발 등을 인적이 드문 곳에서 태웠다.

“3일장 지내자나. 그럼 3일째 되면 출상을 나가지. 시신을 생여에 해가지고 장지로 옮기는 기라. 생여 나가기 전에 이제 상을 차려놓고 발인제 하는거를 지내. 떠나니깐 인제 인사하고 절하고 잘 가시라는 거지. 절하고 상주네가 글로 보고 다 절하지 생여 나갈 때. 그래 이제 생여가 나가면 인제 죽은 사람이 입던 거 옷하고 신발하고 그런 거.

126) 김웅철(남, 85세)의 제보(2009년 2월 19일, 제보자의 집).

그런 걸 인제 사람들 안 다닌데. 잘 안보이고. 거서 인제 태우지.”¹²⁷⁾

7) 산신제와 하관

장일 아침이면 마을사람들이 매장 준비를 위해 산에 올랐다. 마을사람들이 직접 땅을 파서 뿔자리를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고인의 빈소를 설치하여 영정 사진과 촛대를 두었다. 땅을 파기 전에는 음식과 술을 차려놓고 산신에게 고하는 산신제를 올렸다. 특별한 음식은 따로 없으며 떡과 과일, 술잔을 간소하게 준비하였다.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관을 하고 봉분을 만들었다. 봉분을 만들 때는 본동에 거주하던 선소리꾼을 불렀는데, 그가 부르던 달구소리에 맞추어 봉분을 만들었다고 한다. 시신을 매장하고 난 다음, 상주와 손님들이 묘를 향해 절을 하고, 손님들은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고인을 보내는 마지막 과정을 지켜보았다.

“옛날에 시신을 묻어야 되자나. 옛날에는 포크레인이 있나 뭐가 있나. 동네 사람들이 올라가서 땅 파고 했지. 땅 파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그래가 땅을 파면 이제 생여(상여) 올라와가지고 옆에서 제를 지내. 산에 이제 묻으니까 산신한테 알리는 거라고. 간단하게 지내고 그럼 옆에 이제 또 빈소를 차리지. 영정 올려놓고 빈소 차려놔. 그리고 나면 이제 관을 묻고 봉분을 만들면 끝이지 뭐.”

8) 삼우제

산으로 가져갔던 영정은 다시 집으로 가져왔다. 시신이 있던 자리에 상을 차리고 그 위에 영정을 올려서 고인이 생전에 식사를 하던 것처럼 음식을 올리고 곡을 하였다. 이는 삼우제를 지내는 15일 동안 하는데, 삼우제가 끝나면 영정은 상복과 함께 태웠다.

9) 답제

답제는 그동안 입었던 상복을 완전히 벗은 뒤 3년 상기를 마쳤음을 알리는 제사이다. 비로소 탈상을 하는 것이었다. 답제가 끝나면 상제들은 고기와 술을 먹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입었던 상복을 평상복 차림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지금은 3년 상을 지내는 가정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삼우제를 끝으로 상례를 마친다.

“요새 누가 3년 상을 치르나? 다 삼우 끝나면 끝난다. 옛날에야 3년 상 치른다고 3년 동안 음식도 함부로 못 먹고 계속 상복입고 있었지. 요새 누가 그래 하겠나? 안 그런다. 그래 못하지. 자기 생활도 있고 그런데 힘들어 못한다.”¹²⁸⁾

127) 김웅철(남, 85세)의 제보(2009년 2월 19일, 제보자의 집).

128) 김웅철(남, 85세)의 제보(2009년 2월 19일, 제보자의 집).

4. 제례

제례는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조상숭배 의례이다. 제례의 종류는 기제사, 불천위, 향사 등 펍 다양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기제사가 보편적인 제사로 인식되고 있다.¹²⁹⁾ 장항마을의 경우, 4대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2대나 3대 봉사를 하는 가정들도 있다. 이용호 씨 댁의 경우, 3대조까지 제사를 모시는데 부모와 조부, 친형의 제사를 모신다.

제사가 다가오면 삼일 전에 제수를 준비하거나 늦어도 하루 전에는 준비를 한다. 보통 제수준비는 여자들이 용원에서 장을 봐왔다. 예전에는 떡도 집에서 만들고 술도 직접 담가서 썼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제수를 가게에서 사서 준비한다.

“제사 지내기 2~3일전에 용원장에 가가지고 장을 봐오지. 그럼 장만해가지고 평일에 아버지 제사 때가 되면은 오늘 저녁에 제사를 지내면 오전부터 장만해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게 제례지.”¹³⁰⁾

저녁을 먹고 8시가 지나면 제사에 참석할 친지들이 찾아온다. 10여 년 전만 해도 마을에 사는 팔촌들까지 제사에 참석하였으나 모두 외지로 나가버려 요즘에는 주변에 있는 사촌들까지만 참석한다. 밤 11시가 되면 병풍을 치고 지방을 쓴다. 그럼 다음 진설을 시작한다.

“병풍을 쳐놓고 지방을 창호지에 쓰지.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쓰지. 여기도 지방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사진 놓는 사람도 있고, 사진 안 놓고 그냥 쓰는 사람도 있고.”¹³¹⁾

진설을 할 때는 조율이시, 흥동백서 등과 같이 가정의례준칙에 나와 있는 진설을 최대한 따른다.

“젤 앞에는 과일을 놓지. 과일을 놓는 것도 뭐, 흥동백서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사과, 사과올리고.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전부 과일 말이야 흥동백서라 해가지고 요새는 전부 동쪽으로 놓더라고, 예전에 우리는 대충 바가지고 했는데,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데. 그래 놓는다고 과일은 감, 수박, 사과, 배 그런 거. 조율이시 해가지고 밤, 대추 이렇게 올리고. 유과도 이 앞에다 놓지. 젤 앞에 다가 안 놓지. 고 다음에 유과. 분포가 재록 같은 거 과자라 했나, 유과, 유과 같은 거 포 다음에 놓고.”¹³²⁾

과일과 유과를 먼저 올리고 나면 나물은 하나의 그릇에 담아서 밥과 국이 올라가는 자리 앞에 진설한다.

“나물은 젤 안에 들어가고. 젤 안쪽에. 밥 놓는데. 나물을 하면은 시금치도 하고, 숙

129) 성윤석, 2007, 「제기의 종류와 변화양상」, 『셋이면서 하나인 원구마을』, 민속원, 287쪽.

130) 이용호(남, 73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131) 이용호(남, 73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132) 이용호(남, 73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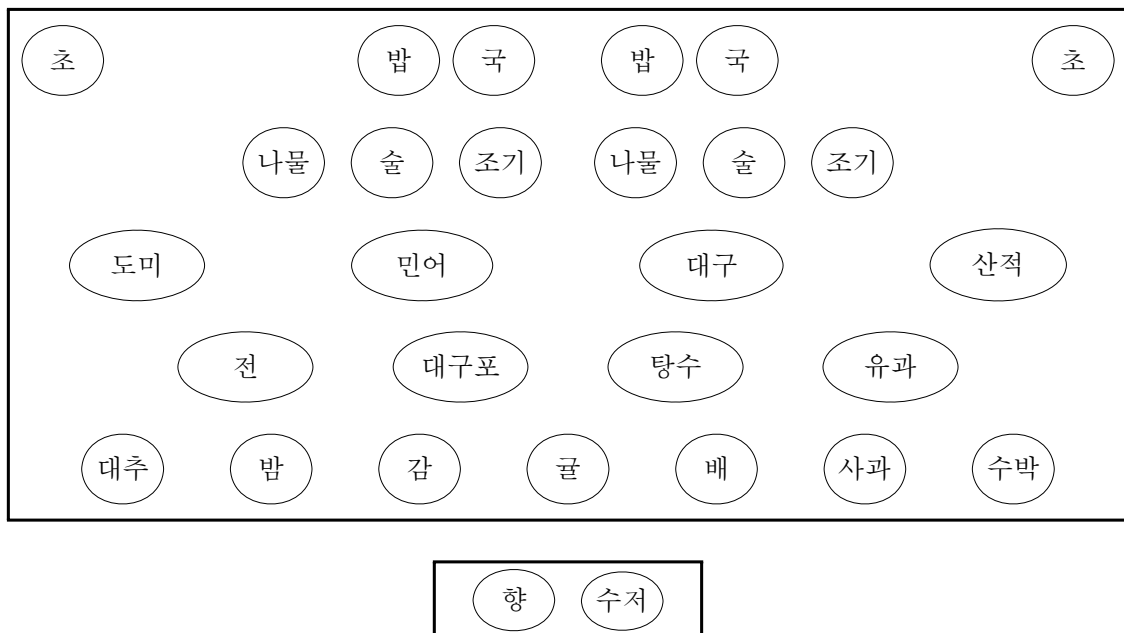
주도 하고 고사리도 하고 미역도 하자나. 이걸 다 한데 같이 다 담지. 밥 옆에는 국 놓고 요 앞에 나물 놓고, 여기 술잔 있고.”¹³³⁾

어촌마을답게 어패류가 제사상에 많이 올린다. 조기는 필수적으로 올리며 도미, 민어, 대구 같은 어류를 접시에 따로 담아 올린다.

“그 다음에는 고기. 여는 생선은 많이 놓지. 도미, 민어, 대구. 이것을 접시에 따로따로 담지. 요래 해놓고 나면은 제사를 이렇게 채리면, 여기 공간을 있다 아니가, 여기다가 고기를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놓고 하지.”¹³⁴⁾

생선까지 진설을 하고 나면 탕을 올린다. 탕은 물고기 앞에 진설하는데 세 개 내지 다섯 개를 올렸다. 탕 안에는 소고기를 넣는 사람도 있지만 이용호씨 댁에서는 주로 조개와 굴과 같이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어패류를 넣는다. 탕까지 진설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밥과 국을 올리고 진설을 마친다.

“그래 놓고, 고기 다음에 탕을 놓고, 고기 다음에 고기 앞 쪽으로 탕수라 하는 걸 놓는 기라. 여기 탕이거든. 탕을 여기 놓고, 그것도 삼탕 내지 오탕이라. 세 개 내지 다섯 개 차리고. 탕에 소고기 넣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조개, 굴같이 이런 데는 조개 같은 걸 많이 넣지. 무하고 바지락 같은 것도 넣고. 여기는 소고기는 많이 안 넣어. 그 다음에 생선 놓고, 그 다음에 나물 놓고, 그 다음에 밥이라. 집마다 제사 지내는 게 다 다르지. 집안마다 다 다르잖아. 집안마다 제사 지내는 게 다 다르다니까.”¹³⁵⁾



<그림 4> 이용호씨 댁의 기제사 진설도

133) 이용호(남, 73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134) 이용호(남, 73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135) 이용호(남, 73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또한 부친의 제사일 경우에는 모친의 밥을 함께 떠 놓는데, 모친의 제사일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혼자 밥을 먹으면 외롭기 때문에 부부는 항상 함께 떠 놓는다고 한다.

“아부지 제사를 모실 때, 아부지 제사 때는 한 그릇만 놓으면 되는데, 할머니가 아버지 할머니란 말이야, 그럼 한 그릇 더 떠놓지. 할아버지만 떠 놓는 게 아니고, 할머니 밥도 떠 놓지. 아부지 제사 때 한 그릇 더 올려놓는 거지. 함께 먹으라고. 딴 데는 어찌는지 몰라도.”¹³⁶⁾

진설이 끝나면 제사를 지낸다. 예전에는 축문을 읽었지만 지금은 읽지 않고 제주가 나가서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운다. 향은 인근 상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향나무를 직접 깎아서 사용하였다.

“향은 전에 나무 향을 칼로 쪼개가 넣는데, 지금은 사는 거 돈으로 사는 거 그런 걸 피우지, 옛날에는 향나무로 사가와가지고 그걸 칼로 쪼개가꼬 불에다가 이래 향 넣는 통에다가 넣었는데, 지금은 시설이 바뀌어가지고 사가지고 그래 하는 기지.”¹³⁷⁾

집사가 내려준 술잔을 제주가 받아 술로 한번 행구고, 다시 술잔을 술로 채워 집사에게 건네준다. 집사는 잔을 받아서 상 위에 올리고 나면 참석자 전원이 합동으로 재배를 한다. 제주가 다시 잔을 받아 향 위에서 몇 번 돌린 후에 집사에게 건네주어 상위로 올리고 혼자서 재배한다. 이어서 나이가 많은 순으로 잔을 올린다. 예전에는 잔을 세 번 올렸으나 사촌형님의 권유로 이제는 잔을 다섯 번 올린다고 한다.

“보통 절을 3번 올리잖아. 제사를 모시면은 오배 하는 사람, 육배 하는 사람, 삼배 하는 사람 집안마다 다 달라. 옛날에 우리도 삼배 했는데, 삼배는 세 번이라. 저번에 부산서 사촌 형님이 오셔서 삼배가 아니라 오배라고 하셔서, 요새는 오배로 한단 말이야. 제사가 순리에 따라 하는데. 우리들 조카들이 많이 있거든. 조카들이 제사 지낼 때,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해서 제사가 다섯 신을 모시면 잔이 다섯 개라. 열 개면 열 개고. 그래가꼬 제사를 모시는데, 술하고 이래 올리는데,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할 때, 조카들이 잔을 다 갈아. 남은 사람은 곁에 서가 있고. 그래가 술 다 해놓고 절을 하고. 오배하는 사람, 육배하는 사람, 삼배하는 사람 집집마다 풍습이 다르단 말야. 제사 모시는 게. 우리도 세 번을 지내다가 부산에 사시는 사촌 형님이 오셔가지고 오배를 지낸다 해서 오배를 한단 말이야. 절을 다섯 번 한다고.”¹³⁸⁾

잔을 따르고 나면 밥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약간 기울여 쫓는다. 이것을 삼식이라 한다. 이 때 젓가락은 고기 위에 올려놓았다. 다시 잔을 올리고 절을 한 번 하는데 엎드려 있는 시간이 길다. 이는 유식이라는 절차로써 오래도록 엎드려 있으면서 많이 드시라고 마음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주인이 찬물을 국그릇에 담아오면 밥을 한 숟가락씩 3번

136) 이용호(남, 73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137) 이용호(남, 73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138) 이용호(남, 73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떠서 물에 말아 올린다. 이는 밥을 드시고 나서 먹는 숭늉과 비슷하다.

그리고 술이 차있는 술잔에 조금 넘칠 정도로 술을 한 번 더 따른다. 이를 첨작이라고 한다. 첨작을 한 다음 반절을 하는데 이것을 국궁이라 한다. 국궁을 할 때는 밥뚜껑을 반 정도 닫았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전원이 두 번 절을 한 후 제사를 마무리 한다. 제사가 끝나면 바로 상을 물리지 않고 시집을 간 딸들이 절을 한다. 이것은 시집을 가면서 남의 집의 사람이 되어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 딸들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여자들은 방에 앉아있고, 아버지 제사를 모실 때에는, 아버지 제사 때, 여동생들이 이래 온단 말이야. 오면 우리가 다 지내고 나면은 여동생들도 자리를 하나 차려놓고, 절을 할 사람은 하고, 잔만 붓고 안하는 사람은 안하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동생들이 이제 아버지 제사니까 잔 한잔 부어놓고, 절 한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하는 사람은 술 한 잔 부어 놓고 그러지.”¹³⁹⁾

모든 절차가 끝나면 지방을 태우는데 지방을 태우는 방식도 가정마다 다르다. 이용호씨 댁에서는 지방을 제사를 지낸 자리에서 태운다. 정정임씨 댁의 경우에는 바가지에 갖가지 제물과 지방 태운 것을 담아서 대문밖에 잠시 놔뒀다가 버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겉이밥’이라 하였다.

“지방을 태우는데 이걸 그냥 안태워. 바가지에다가 밥하고 나물하고 차려 놓은 거 있자나. 그걸 쪼매큼씩 담고 지방 태운 걸 한테 담아. 담아가지고 대문밖에 놔뒀다가 버리거든. 겉이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을 치우지.”¹⁴⁰⁾

지방을 태우고 나면 음복을 한다. 제주가 먼저 음복을 하고 제사 때 사용한 술을 나이순대로 마신 뒤 다 같이 제사음식을 먹는다. 음복을 하지 않으면 자손들이 좋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음복을 한다. 그리고 숭늉으로 사용한 물을 마시면 제사음식을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음복은 당수하고 상전, 할아버지 제사 모셨지. 예를 들면, 술잔. 사람이 서이면 서이, 너이면 너이, 다 목을라하면, 다섯 잔이고 여섯 잔이고 다 올리고, 상에 올리고, 서이 뿐이면 석 잔만 올리고, 제사를 모시면서 그걸 안마시면 손주 등을 못 보는 기라. 입가심을 안하면, 손주 등을 못 보는 거라. 그래가 음복을 하지. 조카들은 그때는 한 번씩 전부 다 와서 할아버지 제사를 모셨으니까, 다들 한잔씩 해라. 하면서 가져오는 게 당수하고 상전하고 그래가지고 한잔씩 먹고, 좀 있다가 전부 차려가지고 함께 다 먹지. 그 물 있자나. 밥 말았던 물. 그걸 마시면 제사음식을 먹어도 탈이 안나.”¹⁴¹⁾

139) 이용호(남, 73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140) 정정임(여, 74세, 백옥개댁)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141) 이용호(남, 73세)의 제보(2009년 2월 20일, 제보자의 집).

VI. 세시풍속

조사지역인 장항마을은 이미 많은 세시풍속이 소멸되었고,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은 설과 추석이 대표적이다. 도시화와 현대화의 영향으로 일부의 세시의례만이 부분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본 조사로 파악한 장항마을의 1년 단위의 세시풍속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월	일	명칭	의례 및 행사	시절식	전승 여부
1	1	설	세배, 차례, 복조리, 신수보기, 설빔, 윷놀이	떡국	△
	1	성주상	성주상 차리기		○
		정초십이지일	장 담그기, 바느질 하지 않기, 칼질 하지 않기		×
	15	정월 대보름	성주상, 부럼, 귀밝이술, 더위팔기, 찰밥먹기, 지신밟기, 달맞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찰밥, 부럼, 묵나물	△
2	1	영등할매 오신날	영등제사 지내기		×
3	3	삼월 삼짇날	화전놀이, 떡 해먹기	화전	×
	·	회치	마을 단합, 관광		△
4	8	석가탄신일	불공드리기, 연등달기		○
5	8	어버이날	식사대접, 마을단합		○
6	·	복날	복다림하기	삼계탕, 국수	○
7	7	칠석	절에 가기		○
	15	백중	백중제사		×
8	15	추석	추석차례, 성묘하기	송편	○
9	9·	중구	중구차례		×
10	·	시사	시사 지내기		
	·	대구천미	대구고사 지내기		×
11	·	동지	팔죽 썰서 잡귀 물리기, 새알심 먹기, 팔죽 뿌리기	팔죽	○
12	30	섣달그믐	설빔 장만하기, 묵은세배, 밤새우기		×
윤달			집수리, 화장실 고치기, 수의 장만		△

※ 세시의례의 전승여부에서 ○ : 현재에도 전승, △ : 부분적으로 전승, × : 단절.

<표 8> 장항마을 세시풍속력

1. 정월의 세시풍속

1) 설

1년 중 첫 명절이 설이다. 설날 아침이 되면 한해가 새롭게 시작됨에 맞춰 집안에서는 웃어른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린다. 자손들이 세배를 하게 되면 어른들은 덕담을 해 주었다. 덕담은 한해 무사와 건강을 바라는 말들이었다. 요즘에는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주기도 한다.

“덕담은 뭐 아들한테는 ‘공부 잘하고 건강하라.’고 그라고, 자식들한테는 ‘한해 바라는 일들 다 이루어지라.’고 하지. 다른 말 뭐 있나.”¹⁴²⁾

“그거는 이제 좋은 말. 올 한해 운수 좋으라고. 그래 해주는 기지. 뭐 건강하고 운수 좋으라. 그러지. 옛날에는 세배 받으면 그래 말 해주고 했다.”¹⁴³⁾

세배를 하고 난 뒤에 차례를 지냈다. 설 차례는 조상들에게 드리는 새해인사이다. 장항마을에서는 차례를 선달그믐에 지냈다. 마지막 가는 해를 의미하기 위해 선달그믐에 차례를 지냈으나 자식들이 외지로 나간 뒤 설 연휴에 맞추다 보니 15년 정도 전부터 한두 집씩 정초로 바뀌던 것이 해가 지날수록 정초로 옮기는 가정들이 늘어나 지금은 모두 정초에 지낸다.

2) 성주상 모시기

차례를 지내고 나면 성주상을 차린다. 성주는 집의 주인이라고 여기는데, 신체 없이 건궁으로 모신다. 성주상은 차례상을 물린 다음 지내는데, 밥과 탕, 나물만 새롭게 올리고 나머지 제수는 차례상에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성주상을 올리면서 성주신에게 한 해 동안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빈다.

“성주상은 이제 차례 지내고 나면 하는 기라. 성주를 집집마다 모시거든. 집 주인이라고. 이제 새해가 되니까 성주신한테 인사를 하는 거지. 상을 차려가지고, 차례지내고 상 있자나 그걸 그대로 마루에 물려가지고 밥하고 탕하고 나물하고만 새로 하고, 나머지는 차례상에 쓰던 거 해서 성주상을 올리지. 내 혼자 절하고 가족들 건강하라고 빌고 잘 보살펴 달라고 그래 빌고 하지.”¹⁴⁴⁾

3) 윷놀이

설에 하는 민속놀이 중 대표적인 것이 윷놀이이다. 장항마을에서도 설에 윷놀이를 하였는데 이것을 척사(擲柶)대회라고 하였다. 마을 앞길에서 하던 척사대회는 다른 마을의 사람들도 와서 참여할 정도로 큰 행사였다.

142)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4일, 제보자의 집).

143) 이용호(남, 73세)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제보자의 집).

144) 정경임(여, 74세, 백옥개택)의 제보(2009년 2월 5일, 제보자의 집).

“설날에는 옷놀이 했지. 옷놀이는 척사대회라고 하는 거거든. 척사대회 한다고 하면 다른 . 마을 사람들도 다와. 다 와가지고 마을끼리 편을 먹고 하는 거라. 사람들 많이 왔지. 사람들 모이면 요 앞에 길 안 있나. 그 길에서 했어. 옛날에는 그 길로 차가 안다녔거든. 거 다가 옷판 차리고 했지.”¹⁴⁵⁾

척사대회에 사용되는 옷은 일반 옷과는 다른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크기였다. 이 옷은 마을의 청년들이 개목나무나 참나무를 잘라서 만들었는데 크기만 작을 뿐 모양은 보통의 옷과 같았다. 옷을 던지는 방식은 네 개의 옷가락을 작은 그릇에 넣고 흔들어서 바닥에 던졌다. 말을 놓고 승패를 결정짓는 방법은 보통의 옷놀이와 같았다.

“우리는 옷가치를 만들어서 했는데 옷이 요래 작아. 요래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됐거든. 그래 작을 걸 종지에 넣어갖고 요래요래 흔들어서 던져. 던지면 도, 개, 걸, 옷, 모 이래 나오자나. 나온 데로 말 써가지고 했지.”¹⁴⁶⁾

4) 복조리 걸기

정초에는 집안의 한해 복을 기원하기 위해 복조리를 걸어두는 가정이 많았다. 복조리는 장사꾼이 직접 돌아다니며 파는 것을 구입하여 방안에 걸어두었다. 또한 복조리는 밥을 하기 위해 쌀에서 돌을 고르는 데 사용되었다. 그래서 정초에는 일 년 동안 쓸 만큼의 복조리를 사 두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쌀에서 돌을 고를 일이 없기 때문에 실용적 용도가 아닌 벽에 걸어두는 장식용이 되어 버렸다.



<사진 56> 정정임씨 댁 복조리



<사진 57> 김웅철씨 댁 복조리

145) 정정임(여, 71세, 본동댁)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장항슈퍼).

146) 정정임(여, 71세, 본동댁)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장항슈퍼).

“저거 복조리? 복조리 사서 걸어놔지. 여는 복조리 안 만들고 사서 하거든. 그래 저래 이쁘게 안 만들어 났나. 저래 만든 걸 복조리장수가 팔러 온다. 매년 오는 건 아니고. 요새는 잘 안 오데. 오면 사서 걸어 놓고 안 오면 작년에 쓰던 거 놔두고, 복 많이 들어오라고.”¹⁴⁷⁾

5) 정초십이지일

정초에는 열이틀 날까지 십이간지에 따라 꼭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구분되었다. 정초 첫 번째 말날에는 장을 담그면 좋다고 하는데, 털이 많은 짐승의 날이 장을 담기에 좋은 날이기 때문이다. 말날에 장을 담그는 풍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처음 말날에 장을 담가. 그때 장을 담그면 좋다고 하데. 그래가 말날에 장을 담그지. 뭐 털이 많은 짐승일 때 장을 담그면 장맛이 좋다고 그러더라. 요즘도 그래 한다. 말날에.”¹⁴⁸⁾

6) 정월대보름

보름날 아침이면 부럼을 깨물었다. 부럼을 깨물면 그해 부스럼이 일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럼으로는 호두나 밤을 깨물거나 강정이나 사탕과 같이 딱딱한 것을 깨물면서 “부럼 깨물자”라고 하였다.

부럼을 깨물고 나면 성주상을 올렸다. 성주상을 차리고 성주신에게 인사를 드렸다. 성주상을 올린 뒤, 성주상에 올렸던 술을 마시는데 이것을 ‘귀밝이술’이라 하였다. 술을 마시고 안주로 무를 먹었는데 ‘동삼 먹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삼이 귀하기 때문에 대신 무를 먹으면서 삼을 먹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유감주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성주상에 술 올리자나? 거 술을 마시는데 그걸 귀밝이술이라 그래. 술 마시면 안주 먹자나. 안주는 무를 먹었어. 무 있잖아. 생무. 그걸 먹으면서 ‘동삼 먹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먹었어. 삼은 귀해 없으이 무를 먹으면서 동삼 먹는다고 그랬지.”¹⁴⁹⁾

그리고 밥은 오곡밥을 해먹었다. 오곡에는 쌀, 보리, 수수, 팥, 조가 들어갔는데 형편에 따라 곡식 중 한 두 가지가 빠지기도 하였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오곡밥 대신 찹쌀로 찰밥을 해먹었다.

7) 달맞이

147) 정정임(여, 74세, 백옥개택)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제보자의 집).

148) 정우선(여, 77세, 거제택)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장항슈퍼).

149) 정우선(여, 77세, 거제택)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장항슈퍼).

정월보름날 저녁에는 달맞이하러 독피산에 올랐다. 산에 몇몇 사람들이 올라 달이 뜨기만을 기다리는데 달이 떠오르면 “달뜨다”라고 외치고 소원을 빌며 달을 향해 절을 하였다. 달뜨다는 소리를 들을 마을사람들은 짚과 소나무로 만든 달집에 불을 붙이고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보름날 되면 달 보러 가지. 저 앞에 독피산에 달이 떠오르거든. 그럼 산에 있는 사람들이 달뜨다 소리를 쳐. 그럼 그 달 보고 소원 빌고 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¹⁵⁰⁾

이때 쥐불놀이도 함께 했는데 빈 깡통에 줄을 연결하고 그 속에 숯을 넣어 둥글게 돌리다 불이 꺼질 때쯤 깡통을 멀리 던졌다. 그러다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로 인해 큰 산불이 날 위험이 있어 국가에서 이를 금하였고 마을사람들은 산불의 위험이 적은 방파제에서 하다가 10년 여 전에 사라졌다.

“옛날에 불어 노니까 바람이 불어가고 산불이 나고 그랬거든. 우리는 안 그랬고 판데. 그래가 나라에서 이걸 못하게 한거라. 달집 태우는 걸. 그래가 논에서 하다가 못하게 하니까 불 안 나는데 저 방파제 끝에 가서 하고 그러다 안하데.”¹⁵¹⁾

2. 이월의 세시풍속

■ 영등할매 오신 날

음력 2월 1일은 영등할매가 내려오는 날이다. 현재 장항마을에서는 영등제사를 지내는 집은 없다. 지내지 않게 된 것도 꽤 오래전 이야기이며 영등제사를 지내던 때에도 일부의 가정에서만 지냈으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그날 중요하게 하지 우린 안 그래. 여는 잘하지도 않아. 한 집도 열매 없을 걸. 잘 안했어.”¹⁵²⁾

영등할매가 내려올 때 딸을 데리고 오면 치마가 날리라고 바람이 분다고 하였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옷이 축축이 젖으라고 비가 온다고도 하였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며느리를 데려 오면 좋다고 하나 어촌지역은 비나 바람이 불면 조업이 힘들기 때문에 비나 바람을 바라지는 않았다고 한다.

“말은 있지. 영등할매가 딸 데리고 오면 치마 날리라고 바람이 불고, 며느리 데리고 오면 옷이 축축이 젖으라고 비 오고. 그런 말은 있지. 여기는 바닷가라서 비오고 바람

150) 정우선(여, 77세, 거제댁)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장항슈퍼).

151) 정우선(여, 77세, 거제댁)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장항슈퍼).

152) 정우선(여, 77세, 거제댁)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장항슈퍼).

불고 그러면 안 좋거든. 그래가 그런 거 믿고 그러지도 않고. 우리는 안 하지.”¹⁵³⁾

3. 삼월의 세시풍속

1) 삼진날

음력 3월 3일은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오는 날이다. 이 날은 여성들이 특별히 놀 수 있는 날이다. 장항마을은 여성이 놀 수 있는 날을 50세를 기준으로 삼진날과 초파일로 나누었다. 삼진날에는 50세 이상의 여자들만 따로 모여 마을 앞의 독피산에 올라 술과 떡, 전과 같은 음식을 장만하여 먹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놀았으며, 50세 이하의 여자들은 4월 초파일에 이와 같이 놀았다고 한다.

“우리는 여자들이 놀아도 따로 놀았어. 50 넘는 사람들은 삼월 삼진날 놀고, 그 밑에 사람들은 초파일날 놀고, 같이 안하고 나눠서 따로 놀았어. 그래 삼진날 되면 쌀하고 먹을 거 하고 모다가지고 밥도 하고 떡도 하고 전 같은 거 반찬도 해가지고 독피산에 올라가서 놀았지. 술도 가지고 가고, 그래 음식 먹고 술도 조금씩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래 놀았어.”¹⁵⁴⁾

2) 회치

회치는 마을잔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봄에 하게 되는데 첫 출어가 있기 전에 잔치를 연다. 회치를 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마을회관으로 모여든다. 여성들이 음식을 장만하여 상을 차리면 동네의 어르신들은 음식을 먹으며 흥겹게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면서 하루를 즐겼다. 때로는 돈을 모아 단체로 관광을 가기도 하였다. 회치는 10여 년 전에 마지막으로 하였지만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한다.

“회치라고 잔치하는 게 있거든. 마을 잔치. 이제 봄 되면 고기 잡으러 나가니까 그 전에 동네사람들 모아가지고 음식 해먹고 놀고 하는 거지. 여자들이 음식 해 갖고 오면 이제 동네 어른들은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놀지.”¹⁵⁵⁾

“우리가 회치 안한지가 보자. 10년쯤 되지. 그래도 동네사람들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할 수 있지. 돈 모다서 노는 건데.”¹⁵⁶⁾

153) 정우선(여, 77세, 거제댁)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장항슈퍼).

154) 김순남(여, 67세, 두문댁)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제보자의 집).

155) 김순남(여, 67세, 두문댁)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제보자의 집).

156) 박행자(여, 66세, 천성댁)의 제보(2009년 2월 2일, 장항노인회관).

4. 사월의 세시풍속

■ 초파일

초파일에는 절에 가서 기도하고 불공을 드린다. 장항마을 사람들은 인근의 영주사나 천성에 있는 오리정사를 주로 찾는다. 아침 일찍 와서 봉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등을 달기도 하였다. 또 점심때가 되면 절에서 식사도 한다.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과 복을 빌고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였다. 초파일도 삼짗날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특별히 놀 수 있는 날이다. 이때는 삼짗날에 놀지 못한 50세 이하의 여성들이 아침에 일찍 절에 다녀온 뒤에 독퇴산에서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도 추면서 놀았다고 한다.

“초파일에는 절에 가자나. 절에가 불공 들이고, 등 달고, 밥 얻어먹고 그러지. 우리는 주로 저 천성에 있는 영주사나 오리정사 여로 많이 가지. 거 가서 이제 불공 들이지. 옛날에 또 초파일에 아까 말 안했나. 삼짗날 노는 거. 그거 하거든. 그때 못논 사람들. 그러니까 50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절에 일찍 갔다 오니까 갔다 와서 모여가 음식하고 먹을 거 가지고 독퇴산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지.”¹⁵⁷⁾

5. 오월의 세시풍속

■ 어버이날

어버이날에는 동네 어르신들을 노인정에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에 기금은 노인정의 기금 일부와 외지에 나가있는 자녀들의 기부금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하였다.

6. 유월의 세시풍속

■ 복날

여름은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소모가 많은 계절이다. 그래서 복날에 개장국이나 삼계탕, 국수나 수박을 먹고 체력을 보충하고 원기를 회복한다. 요즘에는 복날이 되면 자녀들이 찾아와 용원이나 부산으로 데려가 함께 삼계탕을 사먹는 가정들이 많다고 한다.

“복날에 다 시시마쿰(각각) 먹지. 백숙도 먹고, 수박도 먹고. 요새는 자숙들이 와서

157) 김순남(여, 67세, 두문택)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제보자의 집).

저저 용원이나 부산 이룬데 시내 나가서 먹고 그래. 삼계탕 같은 거 자숙들이 사주면 먹고 그러지.”¹⁵⁸⁾

7. 칠월의 세시풍속

1) 칠석

음력 7월 7일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다. 칠석날 역시 초파일과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한다. 천성에 위치한 영주사나 오리정사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절에서 주는 점심을 먹고 오기도 한다.

“거 왜 안 있나. 견우하고 직녀하고 만난다고. 뭐 그런 이야기만 있지.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가고. 자기 다니는 절에. 영주사나 오리정사 이런 데로 가지. 가면 땡 불공들이고 그러는 거지. 절밥 먹고 오고. 다른 거 없다.”¹⁵⁹⁾

2) 백중

음력 7월 15일은 백중일이라고 한다. 이 날 불신자들은 조상님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기 위해 절을 찾아 불공을 드렸다. 그리고 칠석에 드리기 시작한 불공을 백중에 끝내는데 이를 해왕식이라 한다.

“보름날 백중날이거든. 이때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가. 절에 가서 이제 조상들 좋은 데 가라고 좋은데 천도하라고 절하고 빌고 불공들이고 하지. 그래가 칠석 때 시작한 걸 백중 때 끝내거든. 해왕식이라고. 그래 해가 불공을 끝내지.”¹⁶⁰⁾

8. 팔월의 세시풍속

■ 추석(秋夕)

추석은 한가위, 중추절이라고도 불린다. 추석에는 햇곡식과 햇과일이 무르익는 시기로 햇곡식과 햇과일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다녀왔다. 추석이 다가 오기 전에 미리 집안에서 벌초를 계획하였다. 이렇게 벌초를 하는 것은 봄과 여름 동안에 자란 풀을 말끔히 정리하고, 함께 다듬을 곳이 있으면 추워지기 전에 미리 해놓기 위해서였다.

158)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4일, 장항슈퍼).

159) 김순남(여, 67세, 두문택)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제보자의 집).

160) 김순남(여, 67세, 두문택)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제보자의 집).

또한 추석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송편을 빚었다.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정성스럽게 빚었다. 송편 속에는 주로 콩, 깨, 팥을 넣었다.

“추석 때 다 똑같이 하지. 차례지내고 성묘하고. 그러지. 송편 먹고. 옛날에는 송편을 다 일일이 빚었거든. 송편을 이쁘게 잘 빚으면 예쁜 아 낳는다고 정성스럽게도 만들었다. 그 안에 콩, 깨, 팥 이런 거 넣어가 만들어서 먹고 했는데, 요즘은 다 떡집에서 사 먹지.”¹⁶¹⁾

9. 구월의 세시풍속

1) 중구제

추석에 햇곡식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날에 추석 대신 제를 지낼 정도로 큰 명절이었다. 하지만 추석차례를 지내는 요즘에는 객사한 사람과 사망일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제사를 이날에 지낸다.

“옛날에는 중구날 추석제사 안지냈다. 그때 지냈지. 추석에 햇곡식 안나면 중구날 지내고 그랬다. 요즘에는 공휴일이 있어가 다 추석 때 지내는데 옛날에는 중구날 제사지내고 그랬다. 요즘에는 이제 죽은 날 모르는 사람. 밖에 나가 객사한 사람들 안 있다. 죽은 날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사 지내고 그러지.”¹⁶²⁾

2) 초등학교 운동회

장항초등학교에서 가을운동회는 마을 전체의 축제적 성격을 띤다.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항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다. 편은 마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크게 1반과 2반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비교적 인구수가 적은 3반은 두 편으로 나누어 1반과 2반에 속하였다. 주로 줄다리기, 계주, 달리기 등을 하였고 상품으로 생필품을 주었다.

“저 학교에 운동회 하면 동네 사람들 다 갔어. 가서 줄다리기도 하고. 거 있지 거 이어서 뛰는 거. 그것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거하면 상품을 주거든. 1등은 큰 거 다라이. 저거 있자나 저 마당에 있는 거. 저게 1등이고 2등은 대야주고. 3등은 바가치 같은 거 주고 그랬어.”¹⁶³⁾

161) 정경임(여, 71세, 본동댁)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장항슈퍼).

162) 이용호(남, 73세)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장항마을 앞).

163) 이용호(남, 73세)의 제보(2009년 2월 5일, 제보자의 집).

10. 상달의 세시풍속

■ 시제(時祭)

10월에 날을 받아서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 선조에게 시사를 지냈다. 시사를 지내러 갈 때에는 떡, 과일, 어물 등을 차려서 올렸다. 하지만 오늘날 장항마을에서는 집에서 조상의 혼을 불러놓고 시사를 지내는 경우도 많다. 시사를 지내는 날짜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10월 내에 지낸다고 한다.

“시사는 이제 기제사를 모시지 않는 조상들. 이제 5대조 이상 되는 조상들 시사를 지냈지. 시사는 날짜는 정해진 게 아니고. 10월 안으로 지내면 되거든. 옛날에는 산소에 다 찾아가서 떡하고 과일하고 고기하고 차려가지고 했지. 근데 요즘에는 집에 하는 집도 많다. 집에서 조상들 혼을 불러가지고 상 차려놓고 지내고 그러지.”¹⁶⁴⁾

11. 동짓달의 세시풍속

1) 동지

어장을 하는 사람은 동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동지가 되면 대구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특히 대구어장을 하는 사람들은 동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동지가 되면 팔죽을 쑤어 뱃고사를 지내고 집안 곳곳에 뿌리며 잡귀잡신을 물렸다. 동짓날 가신을 모실 때에는 성주에게 먼저 물을 한 그릇씩 떠다 놓고 팔죽을 집안에 뿌렸다. 그리고 식구들끼리 팔죽을 나눠 먹었다. 동지가 지나면 곧 새해가 오기 때문에 팔이 액을 막는다고 하여 팔죽을 쑤었다고 한다. 그리고 동짓날 정시에 맞추어 팔죽이 완성되면 정월에 안택하는 것보다 낫다고 여겼다. 자기의 나이 수만큼의 밀가루로 반죽하여 둥글게 빚은 새알심을 먹으면 좋다고 한다.

“어장하는 사람들은 동지를 중하게 생각하지. 바닷가에는 동지 때 하는 게 더 많아. 동지 때 되면 이제 대구가 잡히거든. 대구가 귀한 생선이라고 대구 많이 잡히라고 동짓날 팔죽 쑤면 그걸 성주상에도 올리고 집에도 뿌리고 하지. 팔죽을 동짓날 딱 되는 시간에 만들면 정월에 안택하는 거보다 좋다 했어.”¹⁶⁵⁾

2) 대구천미

대구천미는 대구를 잡아서 처음 먹는 것을 말한다. 대구조업을 나가서 첫 대구를 잡으면

164) 이용호(남, 73세)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장항마을 앞).

165)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장항슈퍼).

대구탕을 끓여 성주상에 올리고 배에도 올렸다. 이 시기는 대체로 동지 무렵이다. 대구천미를 하는 까닭은 대구가 겨울 한철에만 나는 귀한 생선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를 지내서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대구탕을 끓여 성주상에 올리는 경우에는 여성이 먹었고, 배에 올릴 때에는 바다에 뿌렸다.

“대구가 상당히 귀한 고기거든. 대구는 겨울 한철에만 나는 철고기라. 또 그게 굵고 귀하거든. 여 우리는 많이 안하지만 저 천성이나 대항에 가면 대구어장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도 몇 명 하기는 했거든. 그렇게 대구어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구를 처음 잡으면 그거를 탕을 끓여서 성주상에도 올리고 배에도 올리고 하거든. 그래 올리는 게 이제 고기 많이 잡히라고. 또 사고 나지 말라고 그래 하는 거라. 이제 다하고 나면 집에서 여자들이 성주상에 올리 거는 이제 먹고, 배에다 올린 거는 바다에다가 뿌리지.”¹⁶⁶⁾

12. 선달의 세시풍속

선달그믐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하여 방안에 불을 켜두고 밤을 새웠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접시에 담아두고 솜으로 심지를 만들어 식구 수대로 심지를 놓고 불을 밝혀 이야기를 하거나 윷놀이를 하면서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그러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기가 들어오고 난 후 선달그믐에 밤을 새는 풍속은 사라졌다.

“옛날에 그랬지. 요새는 누가 그러나. 옛날에는 밤새고 했지. 어른들이 그믐날 자면 눈썹 샌다고 못 자게하고 그랬지. 그럼 밤새면서 이야기하고 윷놀이도 하고 그래가 잠 안자고. 그런데 전기 들어오고 나서는 전기세 아깝다고 안 했어. 밤새도록 불 켜놓으면 전기세 나간다고 안했지.”¹⁶⁷⁾

13. 윤달의 세시풍속

윤달은 공달이라고 하여 평소에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 소멸되는 달이다. 주로 산소를 정비 하거나 산소의 이장, 수의 만들기 등 죽음과 관련한 일들을 하고 집을 짓는다든지 지붕을 다시 올리거나 이사를 하는 등의 주거와 관련된 일들을 하였다.

“윤달은 이제 공달이라고 하는 달이거든. 남는 달이라고. 그래서 평소에 못하게 한 거. 그런 거 해도 괜찮거든. 보통 산소는 아무 때나 못 만지는데 윤달에 하고. 또 수의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집을 고쳐도 되고. 새로 지어도 되고. 이사해도 되고. 이래 아무거나 해도 탈이 없다고 하데.”¹⁶⁸⁾

166) 이용호(남, 73세)의 제보(2009년 6월 12일, 장항마을 앞).

167) 정경임(여, 71세, 본동댁)의 제보(2009년 2월 4일, 장항슈퍼).

168) 정경임(여, 71세, 본동댁)의 제보(2009년 2월 4일, 장항슈퍼).

Ⅶ. 민속신앙

1. 마을 신앙

1) 당산제

장항마을의 주민들은 동제를 ‘당산제’라고 한다. 당산제의 날은 천성에 있는 여무당에게 의뢰하거나 가덕도 내에 있는 영주사의 스님에게 받았다. 마을에 계신 김상남씨에게 날을 받기도 하였다. 대부분 정월 초하루와 보름에 당산제를 지냈다.

(1) 금기사항

마을에서 당산제의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은 변하지 않는다. 마을에 초상이 났다고 해도 날을 미루지 않았다. 제관의 집에서 상이 나지 않는 이상 당산제를 지내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제관의 금기를 살펴보면, 제관은 상이 난 곳에 가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을 보지 않아야 한다. 제관과 마찬가지로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일정한 금기를 지켜야 하는데, 주민들과 싸우지 않고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고 정성을 들여 제물을 준비해야 했다.

“초상이 나면 그래 해가지고 초상이 난 적도 없구 하기 전에 초상이 나면 그대로 치고 당산제는 안지내고 제 지내는 사람은 집에서 제집에서 아니면 깨끗한 정성껏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에 안가고 하니깐.”¹⁶⁹⁾

당산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임신을 한 사람과 출산을 한 사람이다. 당산제 기간 동안은 부정을 막아야 하기에 임신한 여성과 출산한 여성의 출입을 금하였다.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들은 본인의 집에서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초상을 치른 사람은 제의에 참석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2) 제관선출

당산제를 주관하는 제관은 마을의 남성 중 한 사람을 선출하였다. 제관은 마을회의를 통해 뽑았는데, 깨끗한 사람을 택해서 제관으로 뽑았다. 그러나 제관을 선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민들 가운데 조건이 맞는 사람을 택하여도 제관이 선출된 후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제관 맡기를 꺼려하였다. 또한 당산제를 치르고 난 다음, 나쁜 일이 생기면 제관의 탓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하지 않으려 했다. 회의를 통해 제관이 선출되면 마을의 웃어른이 제관이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웃어른이 제관이 되었음을 알려주면 제관의 자리를 꺼리더라도 제관을 맡아야 했다.

169)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4일, 제보자의 집).

제관이 선정되면 제관의 가족 모두가 제물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제관만 따로 하는 경우가 있다. 가족의 모두가 당산제를 맡은 김순남씨의 경우, 제관과 동일하게 당산제를 지내기 전까지 정성을 다해야 했다.

혹은 당산제의 날이 정해지면 제관과 함께 제물을 준비할 사람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을 3명을 뽑게 되고, 이로서 제관 한명, 제물을 준비할 사람 3명이 구성되면 당산제를 지낼 준비를 하였다.

회의를 통해 제관 등이 결정되면 마을사람들은 당산나무가 있는 ‘삼박봉’으로 오른다. 마을에서부터 제의장소까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였다. 제의를 지내는 장소는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나서서 청소를 하였다.

“우리 동네가 대동회를 8월17일 날 하고 나면 동민이 일절 다나가지고 길을 파인 데는 돌 갖다놓고 풀 베고 동민이 다 했어 여 한사람에 한명씩 해가지고 방송을 한다 아이가. 나오라고. 그때 가가지고 청소를 해놓으면 당산할매 있는데 깨끗이 해놓지.”¹⁷⁰⁾

(3) 신격과 신체

당산제의 신체는 당산나무 두 그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당산할매라 부른다. 삼박봉은 가덕도 내에서 험준한 산이라고 알려져 있다. 사람들이 삼박봉을 지날 때 돌이 많아 돌을 주워서 쌓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돌무더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곳에 있는 소나무 두 그루와 돌무덤이 장항마을의 당산제를 지내는 장소가 된 것이다. 당산나무의 공간은 아이들의 공간과 부녀자들의 쉼터 역할도 하였다.

현재 당산나무는 재선충에 걸려 죽어있다. 병충해로 인해 당산나무가 죽었지만 마을사람들은 당산나무 인근에 길을 낸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산나무가 죽은 이후 당산제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당산나무로서의 역할은 없다.



<사진 58> 쓰러진 당산나무



<사진 59> 당산나무 아래 돌무더기

(4) 제물(祭物)준비

제물은 회의를 통해 선출된 3명이 마련하였다. 제비는 제관의 집에 있는 궤짝에 보관하였

170) 정경임(여, 71,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4일, 제보자의 집).

다.

“경북에 삼마배한다하지. 우리 동네에 13척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때 잘하는 사람들은 나가리 푸대에 가마에 돈을 가지고 왔어. 마당에 구불쳐 놓으면 그게 우리는 구정물인가 했는데 그게 다 돈이었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기부를 하고 우리 마을 어떻게 했냐면은 집집마다 8월 열일흔날이 되면 그래 하니깐 동네에서 집집마다 3천원씩 해가지고 그때 살 한말이 3천원밖에 안 하니까 크지. 한 집에서 3천원씩 내가지고.”¹⁷¹⁾

제물은 설 이전에 구입하여 준비해 두었다. 김순남씨의 경우, 설음식과 제물을 함께 구입하였다고 한다. 구입하는 장소는 가덕도 밖의 용원시장이었다. 용원시장은 5일장이기 때문에 설이 다가오면 대목장이 섰다. 대목장에서 제물을 구입하는 것이 편리하였기 때문에 용원시장을 택하였다.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갈 때, 제의를 치르는 제관과 동일하게 부정한 것을 보지 않아야 했다. 길에 죽은 동물이나 상여를 보면 장에 가지 않고 다음 날 갔다. 장을 보러 갈 때 차림새는 평소 외출할 때처럼 편한 차림이었다. 제물을 구입할 때는 눈대중으로 양을 결정하고 제물의 가격은 흥정하지 않았다.

(5) 제사의 진행

당산제를 지내는 날이 되면 제관은 새벽 3시에 초를 켜놓고 우물의 물을 집으로 퍼왔다. 퍼온 물로 제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목욕재개를 하였다.

제관은 집에서 아침을 먹고 오전 10시가 되면 당산나무가 있는 삼박봉에 올랐다. 당산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하면 금줄을 치는데 금줄은 원새끼로 꼬아 만든 것이었다. 금줄은 마을과 가정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는데,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꼬아 제관에게 건네주었다. 금줄 역시 제의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의 일주일 전부터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

당산나무에 도착하면 제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너비만큼 금줄을 두 겹으로 쳤다. 금줄을 친 후, 마을 여성들이 제물을 운반하였다. 당시에는 도로가 없어 당산나무로 오르는 샛길로 마을 여성들이 제물을 운반하였다. 제의를 지내는 기간에도 배를 타고 나간 남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운반도 마을여성들의 몫이었다. 여성들은 마을이 편안하고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물을 운반하였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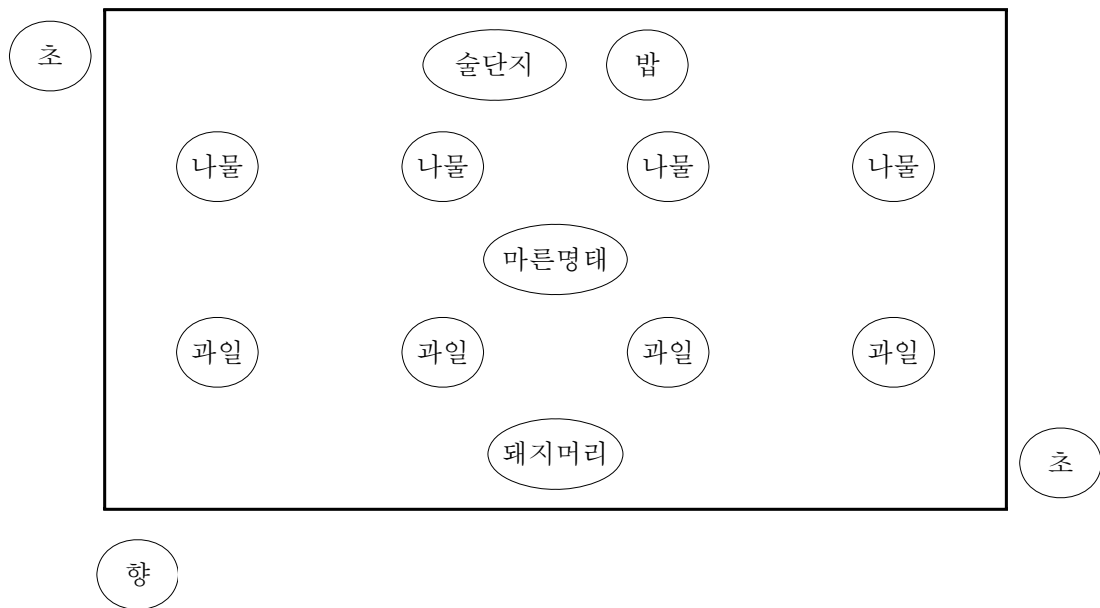
“여자들은 그거 하고 살고 남자들이 언제 오냐면은 음력 5월말이나 6월 초에. 남자들은 배타가지고 가니까 여자들이 이고 올라가지. 나무도 여자들이 이가지고 떼고, 남자는 3~4명만 농사짓는 사람밖에 없었어. 육지서 들어 와가지고 배 탈줄 모르고.”¹⁷²⁾

제물이 전부 옮겨지면 진설을 한다. 제물은 과일, 육류, 어류, 나물 등을 준비하였다. 과일

171) 정경임(여, 71,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4일, 제보자의 집).

172) 정경임(여, 71,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4일, 제보자의 집).

은 사과, 배, 감귤 등 삼색 과일을 올리고, 어류는 마른 명태, 육류는 돼지머리, 나물은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등 3~5가지 종류의 나물을 올렸다. 술은 탁주(막걸리)를 올렸다. 탁주는 마을 내에서 직접 담가 먹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특히 깨끗한 사람의 집에서 만들어 놓은 탁주를 선호하였다. 마지막으로 상 주위에 촛불과 향을 놓으면 진설이 끝난다.



<그림 5> 당산제 진설도

제관에 의해 진설이 끝이 나면 초헌관이 분향하고 집사에게 술잔을 받고 무릎을 꿇고 앉으면 집사가 잔을 채웠다. 초헌관이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 다음 물러나면, 집사 중에 한 명이 나가 아헌을 하였다. 아헌관은 술잔을 비우고 초헌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종헌 역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종헌을 마치면 당산할매가 유식을 할 수 있도록 1~2분가량 묵념을 하였다. 유식이 끝나면 침잔을 하고 반배를 하며, 국과 바꾼 물에 숟가락으로 밥을 떠 넣는 제반을 하였다. 제반이 끝나면 제관은 재배하고 음복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관은 소지를 태웠다. 정경임씨의 경우 소지에 소원을 적어서 태웠다고 하였다. 소지는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었다. 소지에는 가정과 자식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사업 잘되고 말없이 잘 살아라.’ 라는 소원을 적었다. 그러나 정우선씨처럼 흰 백지 상태에서 태우는 경우도 있었다.

축문과 소지를 태운 후, 제관은 마지막으로 소금을 뿌려 부정을 막았다. 당산제가 끝나면 주변에 있던 마을사람들은 음복을 하였다. 음복은 사람들이 골고루 먹어야 좋다고 하여 마을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음복을 할 때는 제물음식을 미리 모아서 당산나무 주변에 두었다. 이 음식들은 산에 사는 동물들의 먹이도 되지만 마을의 아이들이 나무를 하러 와서 먹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마을사람과 제관은 집으로 돌아갔다.

(6) 사라진 배경

장항마을의 당산제가 사라지게 된 시기는 1980년대 중반이다. 당산제의 경험이 풍부한 윗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제의를 전승할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당산제의 주축이었던 김상남 할머니와 정옥령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당산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청년층이 마을을 떠나면서 점차 전승력을 잃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이 당산제를 미신이라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당산제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

2) 용왕제

장항마을의 용왕제는 3년을 주기로 날을 잡아 모셨다. 1960년대 이전에는 용왕제를 지내는 주기가 3년보다 짧았다. 1960년대 이전에는 조업을 나가는 어선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년 용왕제를 모셨다.

“당산제를 옛날에는 자주 지냈는데 내가 알고부터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더라고. 용왕제를 크게 하는 것도 3년 만에 한 번씩 했다고. 우리 어릴 때는 막 자주하대. 그러 더마는 차츰 결혼하고 3년 만에 한 번씩 크게 했어.”¹⁷³⁾

용왕제는 무당에게 좋은 날을 받아서 지냈다. 용왕제를 지내는 일정한 주기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주민이면 누구나 용왕제를 건의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마을의 어른들이 용왕제를 지낼 것인지 결정하였다. 동네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마을의 어른들이 날을 받아왔다. 주로 천성에 있는 여무당과 영주사의 스님들에게 좋은 날을 받아왔다. 마을 주민들 중에서 이 용왕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대부분이 배가 있거나 선주, 선장, 선원 등으로 바다일을 했기 때문에 용왕제를 반대하지 않았다. 제의를 반대하면 자신이나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용왕제는 무당과 스님이 함께 주관하였다. 주로 무당 1명과 대잡는 사람 1명, 스님 2~3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용왕제를 지내는 기간이 이틀로 늘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4명의 무당을 부르기도 하였다. 평상시의 용왕제는 규모를 작게 하였지만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용왕제를 할 경우에는 규모를 크게 하였다.

(1) 제비(祭費)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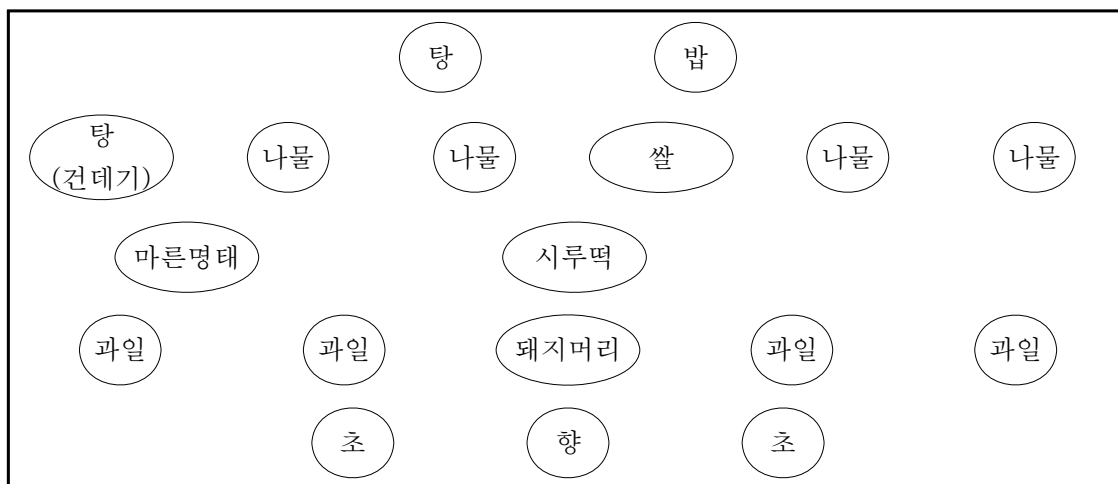
용왕제를 크게 지내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 비용은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거두어 마련하였다. 또한 선주들은 조업을 나갔다 오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용왕제의 제비를 일정부분 기부하기도 하였다.

(2) 제물마련

용왕제를 지낼 때 과일, 쌀, 밥, 탕, 나물, 고기, 술, 시루떡, 마른명태, 돼지머리 등을 올

173)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4일, 제보자의 집).

렸다. 상은 설미산을 향하게 상머리를 두었다. 쌀과 밥을 분리하여 진설하였는데, 쌀은 상의 중앙에 큰 그릇을 두고 진설하였다. 쌀은 마을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담았다. 쌀을 그릇에 담아두는 것은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한다.



<그림 6> 용왕제 진설도

(3) 제사의 진행

용왕제를 지내기 전에 먼저 무당이나 스님이 당산할매에게 용왕제의 시작을 고하였다. 당산할매에게 고하고 난 뒤, 동네 한복판에 천막을 치고 용왕제를 시작하였다. 무당은 춤을 추고 스님들은 염불을 하였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용왕제에서 무당들이 교대로 굿을 하였다. 이 때, 김상남 할머니가 천성의 무당들과 함께 굿의 보조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무당이 굿을 시작하면 마을사람들은 돼지머리에 돈을 꽂고 소원을 빌었다. 한편 초에 불을 붙여 쌀을 담아둔 그릇에 초를 꽂은 후, 개개인의 소원을 빌기도 하였다.

“모르지 쌀은 터다 놓대. 밥은 밥대로 하고 쌀은 큰 그릇에 하고 자기들이 성의껏 상에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개인이 자기한테 좋을라고. 촛불은 마니 켜여. 맞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내가 초를 가지고 가서 소원 빌대. 초가 많에여. 쌀하니 생각나는 게. 쌀이 이만히 있으면 거기에 초를 꽂아여 쌀에 다가 동네사람이 지금은 소원 비는 사람이 초를 켜가지고 소원을 빌어요 큰 데가 쌀을 놓고.”¹⁷⁴⁾

용왕제가 끝나면 마을사람들은 쌀과 실로 묶은 명태를 막걸리를 섞어 바다에 나가 ‘용왕밥’이라고 하며 던졌다. 그리고 풍물을 치는 사람들과 용왕제에 참석한 무당패들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추었다. 경비가 남았을 경우에는 다음 용왕제 때 사용하기도 하였다.

(4) 사라진 배경

용왕제는 1980년대에 사라졌다. 마을에서 양식사업을 하게 되면서 먼 바다로 조업을 나

174) 정경임(여, 71세, 본동택)의 제보(2009년 2월 4일, 제보자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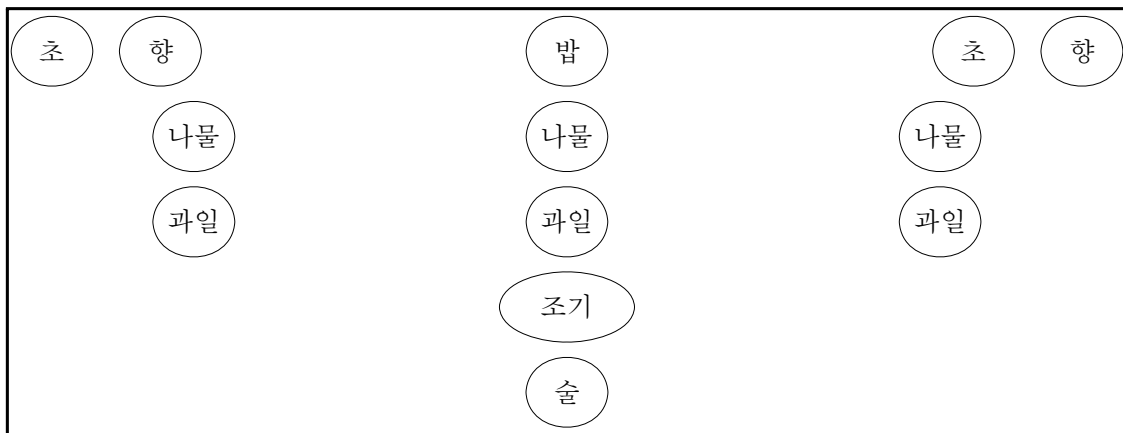
가지 않게 되자 바다에 대한 위험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정임씨에 따르면 주된 전승주체였던 정옥령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전승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 가정신앙

1) 성주

장항마을은 성주를 모시는 집이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반면, 삼신을 모시는 집은 거의 없다. 현재도 명절이나 동지가 되면 성주를 모신다. 장항마을은 다른 가신보다 성주에 대한 믿음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성주는 건궁의 형태로 모셔지며 모시는 시기는 설과 추석, 동지 때이다. 성주에게 제를 지내는 장소는 집의 마루와 부엌, 방 등이다. 밥, 고기(조기), 과일(배, 사과, 밀감), 나물(고사리, 무시나물), 술(정종) 등을 제물로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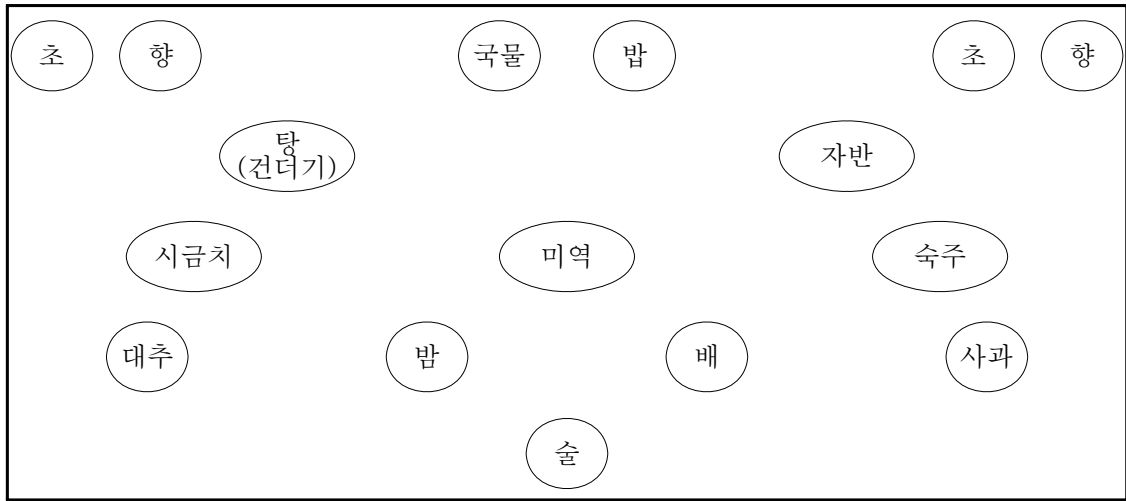


<그림 7> 김정렬씨 댁 성주상 진설도

김정렬씨의 경우는 성주를 마루에서 모셨다. 밥과 술, 고기, 과일 등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할머니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할머니는 성주를 모신다.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성주를 계속 모실 것이라고 하였다.

“성주는 여기 놓고.” (“마루예요?”) “응.” (“밥만 떠 놓고.”) “밥만 8월에 성주 떠 놓고 설에 떠놓고 고기 놓고 과실 한 접시 떠놓고.” (“술요?”) “술하고 고기하고 밥하고.” (“고기는 무슨 고기?”) “조기.” (“과일은요?”) “배, 사과, 밀감.” (“술은 머 올렸어요?”) “정종.”¹⁷⁵⁾

175) 김정렬(여, 86세, 먹을댁)의 제보(2009년 2월3일, 제보자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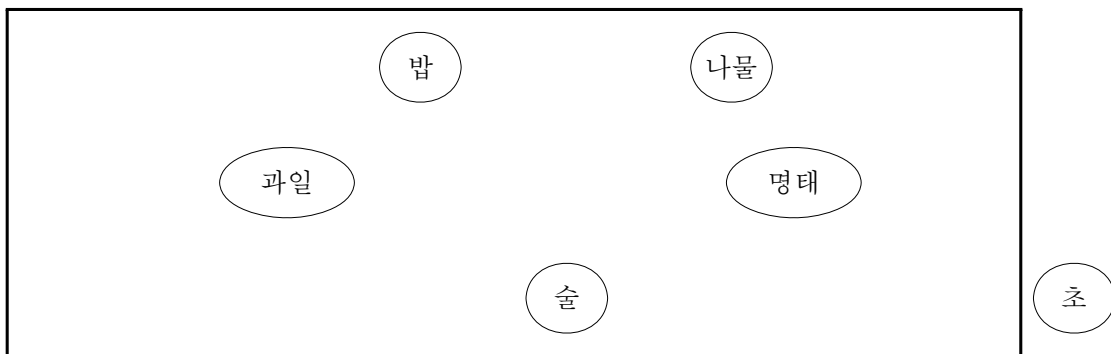


<그림 8> 정정임씨 댁 성주상 진설도

정정임씨의 경우 1960년 전까지 성주를 부엌에서 모셨다. 당시 성주를 모시는 상은 그 머리가 술 쪽으로 향하게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마루에서 모신다. 성주상에 올리는 제물은 조기, 돔, 민어 등이다. 차례를 지낸 상으로 제물을 올리기에 다른 가정의 성주상보다 푸짐하게 올린다고 한다.

2) 배성주

배성주는 마른명태, 밤, 대추가 신체이다. 성주 신체는 선장실의 운전대 밑에 놓았다. 배성주는 배가 고장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과 고기가 많이 잡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셨다. 선장은 조업을 나가기 전에 “어쨌든 고장 나지 말고 고기 마니 잡게 해 달라.”고 빌고 조업을 나갔다고 한다.



<그림 9> 배성주 진설도

3) 신주단지

신주단지는 첫 곡식을 담아 두는 가신이다. 첫 수확한 음식을 먼저 신주에 받쳐 다음 해

에도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주단지를 모시는 것이다. 정정임씨 댁의 신주단지는 장롱 위에 모셔놓고, 먼지가 묻지 말라는 의미로 한지로 모자를 만들어서 봉인해 두었다.



<사진 60> 정정임씨 댁 신주단지



<사진 61> 신주단지에 담긴 쌀



<사진 62> 신주단지 모자

김순남씨의 경우 시어머니가 신주단지를 모셨는데, 고구마, 감자 등의 발작물도 신주단지에 먼저 올렸다고 한다. 1931년에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하여 신주단지에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현재는 합천에서 장항으로 이사를 올 당시 시댁인 합천 해인사에 모셔놓았다고 한다.

VIII. 생애담

먹을택 김정렬씨¹⁷⁶⁾는 1922년 가덕도의 먹을마을에서 태어났다. 19세에 장항마을로 시집와 현재까지 살고 있다. 먹을택의 생애담으로 장항마을의 변화상과 마을주민들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먹을택의 일생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먹을에서 태어나 시집오기 전까지의 성장기, 고된 시집살이를 하면서 눈물 흘린 시집살이시기, 마지막으로 시부모님이 죽고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지했던 시기이다.

먹을택은 본관이 김해김씨였던 아버지와 정씨였던 어머니 밑에서 2남 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그 시절 대부분의 딸들이 그랬듯이 태어난 직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먹을택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는 2년 늦은 1924년이다.

“내가 두문에 저 짝 넘어가면 쪼깐동네있지. 거 살다 이리 안 왔다. 옛날에 농사짓고 우리 집이 쪼끔 살아서 고기는 안 잡고, 난 호황스레 커서 나무도 안했는데 이집 와서 참 나무했다. 저 산턱에 올라가서 나무했잖나. 아버지 농사짓고 할부지 농사짓고, 오빠는 저기 돈벌러가고. 학교는 가보질 못했다. 학교 갈라카다가 우리 할부이 한테 두드려 맞고. 가방 있지 보따리 질 머지고 갔는데 공책하고 짊어지고 가 할배한테 걸 리가 오빠하고 나하고 두드려 맞고. 두문서 산 넘어 가덕에 학교를 갈라 그랬는데. 가보도 못했다. 할배가 공부시키면 뭐하느냐고. 학교 갈라카니 집에 못 들어오게 해서 옆집에 도망가따 밥 한 끼 얻어먹고 나왔다. 할배 무서위가 학교 간다는 소리도 못하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발 메고, 바닷가 나가 파래 뜯어 반찬하고 그래 살았지 뭐. 그렇게 살다가 시집을 16살부터 가라 그랬는데 안 간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열아홉에 갔지. 시집가면 우짜노 싶어 막 울고 했어. 왜정시대 처녀 잡으로 오거든 군대 가라꼬. 그래서 치웠다. 안 갈라고 울고불고하니까 19살에 갔다. 처녀 공출 잡혀간 사람도 있어, 저 가덕엔, 나는 잡으로 오면 숨어있었어. 방안에 들어안져 문 잠그고, 순사 온다하면 엄마가 쪼차와서 숨으라 그래. 처녀 교요한다고 막 끌고 갔어. 순사들이 지나가면 막 깜짝깜짝 놀라. 말도문한다 아니까. 숨어가꼬 사람 없다 하면 그냥가고 그러지.”

어린 시절 먹을택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았다. 따라서 어업보다 농업에 종사하였다. 먹을택의 친정식구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큰오빠, 2살 터울의 작은오빠와 먹을택까지 일곱 식구였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고, 나이 많은 큰오빠는 돈을 벌기 위해 부산으로 떠났다.

여덟 살이 되던 해 학교를 가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완강한 반대로 학교의 문턱조차 밟을 수 없었다. 반대하던 할아버지의 매를 피해 옆집에 숨었다가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후 다시 학교에 갈 생각은 할 수 없었고, 어머니의 일손을 도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먹을택이 열여섯 되던 해, 처녀공출을 피하기 위해 혼사를 서둘렀지만 먹을택은 집을 떠나기가 무서워 시집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마을엔 종종 처녀공출을 위해서 순사(일본 경

176) 김정렬(여, 86세, 먹을택)의 제보(2009년 2월 16일, 제보자의 집).

찰)가 돌아다니기도 해서, 마을 밖에서 순사가 온다는 소리가 들리면 방안에 꼼짝 하지 않고 숨어있기도 하였다.

“시집살이 말도 못 한다. 4시쯤 일어나서. 우물에서 물이다 내리고. 많이 이다 날랐다. 하루에 10동씩은 했다. 그물 갖고 씻고 먹고. 날 새문 밥해먹고. 들에 가고 산에 가고. 이 동네는 손 얻어서 안하니 참 같은 거는 준비안하고 그런 거 안한다. 배고프면 가까우니 내리와 한 술 뜨고 저녁 해 먹고. 밤에는 바느질하고 해야지. 시집와서 나무하러 다닌 거는 아침 먹고 올라가면 많이 해다 제거든. 하루10~15단 해다 누면. 이웃집 할배들이 놀래지. 새벽이 얼마나 많이 갖고 온다고. 큰 나무는 힘없으니 못 하고 낮으로 비 지는거만 하는 거지. 하루15단 하면 손이 움직여지지도 않아. 저녁때 까지해 점심도 못 먹고 하는 거지. 저녁때 돼서 10단 가져다 내리 오면 저녁 해 먹고, 새벽에 인나 5단 남은 거 갖고오고 아침밥 해먹고 나간다 아니가. 밤에 해눈걸로 여름에 까지 쓰고 여름에는 보리 찢어야지. 그때 찢이 어땀노. 새벽부터 인나서 노상 밤까지 찢는다 아니가. 남편은 시아버지하고 배타고 돈벌러가고. 나가면 한 달씩 두 달씩 있다 들어오고. 산마 잡을 때는 정월달에 나가서 4월에 들어온다. 강원도 동해바다까지 나가서 잡아왔지. 빛 내가고. 어장 나가기 전에 준비 할때는 준비도 내가 다했지. 쌀 한가마니를 3일 만에 다 먹고 없다. 선원이 27명이야. 우리 배 한척 남의 배 2척 빌리가 3척해가 한척에 9명씩이야. 일하는 사람 밥할 때는 그때는 밤새서 물이다 날라야지. 20동이 30동이씩 해야 한다고. 난리도 아니다. 그래 이쪽 술에는 밥 때고 이쪽에는 국 때고. 마루에다 큰상 갖다놓고 자기들이 내가 혼자 하니까 퍼다 놓으면 자기들이 가따가져먹고 그런다. 시아버지가 쌀 사다주고. 나를 보고 물을 저울에 달아서 밥한다고 그러드라. 잘한다고. 밥 잘한다고. 그렇다고 남편이랑 시아버지 배타고 나가면 한가하지도 안해. 나무안하나. 나무하다가 물 때되면 또 미역 캐로 나갔다가 바지락 잡고 조개잡고. 말도 못 한다. 지금 그카라카면 죽으라 한다.”

먹을택은 19세에 장항마을로 시집을 왔다. 중매쟁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시집이 부자고 고기어장을 한다. 호강하고 살 수 있을 거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시집식구는 신랑,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두 명, 먹을택까지 여덟 식구였다. 부잣집이라고 듣고 시집을 왔으나, 호강하던 친정시절과는 달리 고된 시집살이를 겪었다고 한다. 남편이 운영하던 어장은 먼 바다로 배를 타고나가 몇 달 간 집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컸다.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27명이나 될 정도였다. 하지만 27명을 수발해야 하는 것은 먹을택의 몫이었다. 새벽이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아침준비를 해야 했다. 아침준비는 동네에 있는 우물에 나가 물을 길러 오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가족들과 선원들의 밥을 해야 했기에 힘들었지만, 선원들의 “밥 맛있다.”는 칭찬에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때는 젊고 뭘 몰랐으니 했지 지금은 상상도 하기 싫다”는 말로 그 시절을 기억했다.

“자식은 아들 둘, 딸 넷 낳았다, 첫째는 아들 둘째부터 딸,딸,딸,딸. 그리고 막내아들, 막내아들은 41살에 났다. 지금생각해선 안 놓다. 딸들 낳고 아들 낳을라고 낳았지. 첫아들은 언제 낳았느냐면. 시집오고 2년 만에 나왔다. 그때 애가 얼마나 이쁜지. 시어머니가 야야 애맬고 바닷가에 못나가겠다. 애가 이쁘다고 사람들이 만지고 못치고 해 싸

서 못나가겠다. 그러다가 가봤다. 큰아들은 지금가트면 안 죽었을 텐데. 폐렴이었잖나 폐렴 그래 4살에 가봤다. 그걸 모르고 덮어놓고 영사만 갈아 먹이다 갔잖나. 영사라고 있다. 갈아 먹이는 거 옛날엔 그게 큰 약이다. 첫아들이 가봤으니. 딸 많이 난다고. 머라 그래. 넷째 딸 낳았을 때 젖도 주지 말고 이불로 딱 덮어누라 그래. 그러면 죽는다고. 그때 많이 울었다. 아들노면 돈벌어오는데 딸은 남 쥐뿔면 그만이라고. 남 쥐뿔면 시마 이지워. 딸만 낳으니까 이래하면 아들난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딸만 낳는다고 이불 덮어서 콕 냅두라 그래. 산후조리는 같은 거 하지도 못 했어 시어머니가 구박이 얼마나 심한데. 물 해오면 왜 늦게 왔노. 빨리 와야지. 누카랑 이야기 했노. 그러면 어머니 샘에 가서 야기할 여가가 어디있겠습니까. 이러면 또 주동이 놀린다고 하지. 그러면 시아버지 인간히 해라. 저래 잘하는데 왜 잔소리 하나카면 또 시아버지가 저렇게 머느리를 오냐오냐하니 머느리 길 안 든다고 성질내고 그랬다. 그래서 산후 조리도 일주일 지나고 나면 방아도 쪼고. 밥도 하고. 조리를 잘못해서 병신이 안 됐다. 딸 낳 때는 3일도 잘 못 누워 있었다. 몸서리난다. 막내아들은 내가 41살엔가 나왔어. 태몽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나오데. 딸들은 중학교까지 못 마쳤다. 고등학교 보낼라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도 막내아들은 대학까지 했어. 4년 다니는 거. 그것도 힘들었어. 남편이 중학마치고 돌아가셨거든. 내가 다 시켰다. 재봉틀이 있어서 모시적삼도 하고 했다. 동네사람들것도 해주면 10원 받고, 5원 받고. 바느질 해주면 좋다꼬. 새 옷 같이 입겠다 하고 해줬다. 바느질 아들 중학 다닐 때 한 5년 정도 했다. 바느질 잘 한다고 야무지게 잘한다고 소문 좀 났다.”

“시아버지랑 친한 사람이 일본을 땡겼는데 시아버지가 하나 가져다 달래서 갖고 와서 했다. 참 좋은 거다. 재봉틀 고치는 사람이 이걸 좋은 거라고 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으라 했다. 옛날에는 부산서 틀 고쳐주는 사람도 마을에 들어왔다.”

“아들공부는 처음엔 딸들도 시집 간 지 얼마 안 돼서 도와주지 못했다. 밭에서 양파 해가 대학까지는 마쳤다. 땅이 500평 있었거든. 궁궁히 궁궁히 대학공부 시켰다. 공부를 곧 잘했 거등. 요서 초등학교를 마치가 중학을 부산으로 보내라 하는데. 내가 보낼 수가 없더라. 너무 어려서. 그래도 안보내면 성공 못한다 그래서. 부산에 삼촌집에서 중학을 다녔는데 졸업하면서 즈그 아빠 가니까 삼촌이 텔꼬가라하래. 고등학교는 누나네 부산 영도네 집에서 했다. 그러다가 또 자형이 아픈 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은 막내누나집에서 마쳤다. 동생하나 공부시키느라고 지그도 욕봤지. 결혼했기 때문에 지그도 텔꼬 있었지. 아들 용돈은 어찌 주는가 하면 다마내기 나오는 걸로 쪼금씩 주고. 누나들이 많이 시켰지. 막내자형은 김해에서 담요공장을 하다가 지난 6월 달에 돌아갔다. 그래서 그거 넘겨주고 지그누나는 인제 혼자 있다.”

먹을택은 6남매를 낳았다. 첫 아들을 낳은 후 4명의 딸을 낳고, 41세에 막내아들을 낳았다. 시집 온 후 2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으나 폐렴으로 죽게 되었다. 그 후에 태어나는 자식들이 계속 딸이었다. 아들이 없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 시어머니는 넷째 딸이 태어났을 때 모진 구박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41세에 막내아들을 낳았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기에 막내아들은 대학까지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우리 시아마이. 놀차카는 데 아나. 거기 출신이다 카더라. 이유도 없이 싫어 하드라. 몰라 이유도 없어. 양말도 찢어 놓으면 잘 못 찢었다 카고. 시아버지 옷도 잘 다려놓으면 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시아버지가 그럼 니 해봐라, 잘했구만 왜 그러냐 카고. 힘

들어서 저쪽 달뜨는 데가 우리 동네 거든. 거기 한번 가따 오면 우리 엄마보고 올겐데 하고 많이 올었다. 시집와서는 시어마이 구박이랑 또 머가 힘들었냐 하면 우리 시아버지가 명주옷을 입었거든. 그거 반질반질 다듬이질 하는데 얼마나 힘드노. 좀 잘 못두드리면 시아버지 와서 야야 이거 잘못두드렸다, 그러면 얼마나 눈치보이노. 밤에 인두 잘 해놔다가. 명주 다듬이 해 가꼬 뿌리리기 힘들었다. 시아버지 돌아가고 나니까 일도 없는거 같더라. 명주 다듬이 안 두드리니까. 명주 빨래는 또 좀 어렵나. 씻겨 갖고 다 따가지고. 빨고 뿌르려야대거든. 문종이가 싸가지고 뿌르려야 반질반질 해지거든. 샘에서 하지머. 그 물에서 빨래하고 물먹고 씻고 했지.”

“집에 제사는 요새는 시사다 올려서 없는데. 옛날엔 많았는데. 젊을때에는 6번은 지냈는갔다. 시어머니 잔소리 얼마나 하는지. 시숙모가 시어머니한테 형님은 며느리가 그러케 잘하는데 왜그케 못살게 구냐하면 잘하긴 멀잘해 니한테는 잘해도 나한테는 못한다. 그런다. 떡도 내가 다했지 힘들어 말도 못한다. 그거.”

시어머니도 가덕도 내의 ‘눌차’에서 시집 왔기에 문화차이는 없었으나, 시어머니의 구박 때문에 달뜨는 쪽을 보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다고 한다. 시집살이 중에 가장 고된 작업은 시아버지의 빨래였다. 시아버지는 명주옷을 많이 입었는데, 명주옷 손질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다듬이질 할 때 힘이 들어서 잘 두드리지 못하면 시아버지가 찾아와서 “이거 잘못 두드렸다”고 야단을 치셨다. 야단을 들으면 힘이 들더라도 다시 다듬이질을 반복해야 했다.

“시아버지는 언제쯤 가셨느냐 하면, 마산에 병원서 치료하다 돌아가셨다. 위가 안 좋아서.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오래했다. 마산해동병원에서 왔다 갔다 했어. 죽 끝여가 가따 들이고 한약 끊어다 드리고. 아프면 조개 가튼것도 못 여라 카테. 많이도 안자시고 쪼끔씩 드셔. 가실 때 말도 안하고 돌아가드라. 그러케 돌아가시고 나니 어장 물려받아 해떡다가 사고나가꼬 다 떨어 먹고 이 모양 아니냐. 배 사고는 내가 37살쯤에 났지. 남편은 배를 타진 않았지. 선주니까 배는 안타고 항구에 기다리고 있었지. 물건 받아서 경매해야 하니까. 선장은 누군지 모르겠다. 선장은 이동네 사람이다. 사고 나고 난 후에 선장엄마가 와서 행패를 안 부렸다. 우리아들 살려내라며 달려들어가 고생을 많이 했다. 집에 찾아와 아들 죽었으니 밥해놓으라 그런다. 그러면 그때 빗지고 쌀이있나 그냥 죽이나 끓여주면 내가 병자라 하면서 획 밥상을 얹어. 그러면 쌀 빌려다 밥해주면 반찬이 이게 머냐고, 고기 끓여다 반찬하라고 난리난리를 친다. 빗내서 보상 다 해주고. 무당을 12인가 불러서 저 방파제서 굿도 다 해줬어. 빗을 내서 보상 다 해주고. 1000만원 넘었지. 그때 돈으로. 피조개해서 빗을 궁궁히 넘구고. 막내딸을 고등학교 시킬라고 그래 애를 써봐도 안대줬드라. 피조개는 강사장이라고. 그 사람이 부자거든. 종패를 사서 했는데 우리보고 같이 하자그래서 같이 했다. 궁궁이 궁궁이 학교만 보냈다. 아고 내 고생은 말도 못한다. 빗은 피조개 해가꼬 3년 동안에 궁궁이 궁궁이 갓고. 딸애들 공부는 미역하고 조개하고 나무해다가 공부시켰다. 배옥포 까지 걸어댕기면서 미역하고. 어쩔뻔 배도 얻어타고 하지. 미역은 배타고 나가가 용원장에 팔았지. 배삭10원인가 주고가. 보리쌀사고 쌀사고 해서 먹었다. 집에 있던 땅은 조금 있었는데 아들이 전자제품 파는 거 하다가 부도나서 다 팔아서 빗 갓고 없다. 남편은 58에 아파서 돌아갔어.집에서 아파서. 그때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갔어. 몇 년 누어있지도 않았어. 그러다 갔어. 55에 영감돌아니까 동네사람들이 담배피우라고 그렇게 해싸서 담배 이리 피운다.

그래도 남편은 잘 해조파. 우리영감. 속썩이고 그런거 없다. 가덕섬에 청감이라고 소문났다. 마음이 정직하고 양심있다고. 가섯을때 아까운 사람 갔다고 다 입다섯다. 담배도 안피고 술도 안먹고 참 좋았다. 시집살이 한거랑 배 때문에 빚진거 빼고는 힘든거 별로 없었다. 할배가니까 힘들더라. 기가차드라. 나는 주소도 모르고 면도 모르고 그랬거든. 나는 집에서 밥만해먹다가 남자들 일 보니까. 면에 갈일있으면 울고갔다. 그러면 사무소에서 할머니 울지마이소. 내가 아저씨를 봐서 잘 해드릴테니까. 걱정마이소하고 잘 해조파.”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남편은 시아버지가 하던 어장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조업을 나갔던 배가 침몰하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 남편은 선주였기 때문에 배를 직접타고 나가지 않고 포구에 있었지만, 배를 타고 나간 선원들이 모두 죽는 큰 사고였다. 그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가세가 기울었다. 당시 사고로 죽은 선원들 중에는 마을 사람들도 있었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집의 어머니는 먹을택의 집에 찾아와 “우리 아들 살려 내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힘들었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버팀목은 장항마을의 황금바다였다. 장항마을 앞바다에서 나오는 피조개와 미역들을 채취하고 남편과 고기도 잡으면서 보상을 위해 졌던 빚을 갚으며 생활하였다. 당시 딸들은 이미 시집을 다 갔고 막내아들은 공부를 위해 부산에 나가 있었다. 먹을택이 55세 되던 해에 남편이 세상을 등졌다. 할머니의 남편은 가덕도에서 ‘청감’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남편이 죽고 나니 쓸쓸하여 그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때까지 먹을택은 주소도 모르고 면사무소도 가보지 않았는데, 혼자서 모든 일들을 처음 하려고 하니, 힘들고 무서워서 눈물이 나기도 했다.

“자식들 자주 오냐고? 옛날엔 자주 못 왔는데 배타고 번거로워서, 그랬는데 요새는 면에 등록하고 자주 온다. 지름값이 얼마나 든들 말든 상관 없단다. 처음에는 11만원 주고 요새는 5만원 주고 등록한다. 아들은 11만원주고 하고 사위들은 5만원 주고. 우리 아들 보험 다닌다. 망해먹고 놀지는 못하고 보험회사 다닌다. 돈 안된다 보험회사. 졸업하고는 회사 댕졌다. 회사 다니다 부도가 나서 그만했다. 그리고 친구놈이랑 전자제품 팔다가 망해먹고 회사를 다시 댕졌는데 또 회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보험회사 다닌다. 아들이랑은 오래 살지도 못했어. 계속 떨어져가 있었다. 부산에 있었다. 귀한아들 안보낸다고 했는데 남편이 섬에 붙잡고 있으면 사람이 되나 보내서 공부시켜야지. 그래서 오래 몬델꼬 있었다. 딸은 이동네로 시집 온 게 아니라 저쪽 진해 살았는데 이리 이사 와서 산다. 몇 년 댔다. 요 밑에 쪼간한 오두막에 살았는데 태풍에 떠내려가서 위로 올라갔다. 그 집도 전셋집이다. 셋째사위는 논다. 공사장 일 좀 하다가 오늘은 일없어 왔다. 옛날에는 배 탔다. 이 동네서 배 탔다. 한동네 사돈한 게 아니라. 총각 때 배타로 마을에 왔다가. 결혼해서 진해나가고. 다시 이 동네 들왔다. 셋째사위가 잘한다.”

“이 동네는 이제 친한 사람도 없다. 저 담배 파는 사람이 주도해가고 몇 번 놀러갔다. 지금은 다 돌아가고 없다. 친한 사람이 하나있었는데 이제는 없다. 죽는 사람은 다 죽고. 요새 동네사람은 젊어서 나랑 안 친하다. 놀러갔던데 중에 기억나는 데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 한 번간 거 기억이 나고. 그담에는 모르겠다. 내가 한 오십 됐을 때 비행기 타고 제주도 한번 가봤다. 청주 대청댐도 한번 갔고. 이제는 이자먹어서 모른다. 제주도는 누구랑 갔냐면, 동네사람들 몇 명 모아서 마음 맞는 사람들 끼리. 마음 안 맞으면 잔

소리 하거등. 그래서 맘 맞는 사람끼리 했다. 힘들어도 남가는 거는 한 번씩 따라 갈라고 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지금까지 할머니는 마을에 혼자 거주하고 있다. 섬과 육지를 잇는 임시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왕래를 자주 하지 못했던 자식들이 도로가 생기고 난 후에 자주 찾아온다고 한다.

신항만 건설 이후 마을을 떠나거나 나이가 많아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마을에 할머니 또래의 친구가 없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과거에는 마음이 맞는 동네사람들과 계를 하여 자주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먹을택은 그 중 제주도와 대청댐 관광이 즐거웠다고 한다. 혼자가 되어 힘들어도 마을의 행사에 참여하고 관광도 한 번씩 따라 다니며 더욱 즐겁게 생활하려 애썼다고 한다.

현재 먹을택은 신항만 건설로 인해 다른 곳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자신 외에는 다른 식구가 없기 때문에 집을 새로 짓거나 하지 않고, 가덕도 내의 천성이나 본동에 집을 얻어 이사를 갈 계획이라고 한다.

제3장 율리마을

I . 마을개관



1. 마을의 입지

율리(栗里)마을은 가덕도 최북단인 선창마을에서 서쪽 갈마봉 해안선 일주도로를 따라 약 2km정도 가다보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어촌마을이다.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면 성북동에 포함되어 있다. 예전부터 이 마을에는 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밤꿈’ 또는 ‘밤골’ 마을이라 불렸다.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밤나무 ‘율(栗)’자와 마을 ‘리(里)’자를 써 현재의 마을 이름이 율리(栗里)가 되었다.¹⁷⁷⁾

2. 마을의 경관

1) 자연경관

177) 한글학회, 2000, 『한글지명총람(8,9,10 경남편)』, 49쪽.

마을의 동북쪽에 위치한 산은 말안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갈마봉’이라 하며, 남동쪽에 있는 산은 아홉 굽이가 졌다하여 ‘구곡산(九谷山)’이라 한다. 구곡산에 있는 고개는 ‘방안곡’이라고 한다. 울리의 서남쪽에 위치한 산은 ‘삼박등’이다. 또한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진흙뻘은 ‘일방염’이라고 칭한다.¹⁷⁸⁾

2) 경제경관

(1) 농업 경관

선창마을에서 울리마을로 넘어오는 고개를 밤꿈(栗里)고개, 고갯길 깊숙이 들어가 있는 골짜기를 ‘불미골’이라 부른다. 불미골 동쪽에 있는 ‘밤꿈곡 저수지’는 구곡산(九谷山)에서 발원하여 울리마을로 흘러드는 작은 개울이 모인 계곡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인근의 천수답에 관개용수로 사용되었다.

(2) 어업 경관

마을 앞 해안에는 지금은 사라진 울리선착장의 터가 있고, 장항마을과 울리마을의 어장터였던 설섬(입도), 허래미(토도), 구래미 등이 있다. 그러나 황금어장이라 불리던 울리 앞바다의 어장은 1997년부터 시작된 신항만 건설로 인하여 사라지게 되었다.

3) 사회·문화적 경관

(1) 마을회관

지금의 마을회관은 1970년대 마을주민들의 기금으로 만들어졌다. 마을회관은 마을의 가운데 위치해 있는데,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할 때 모이는 장소이다. 마을회관의 운영금은 마을 기금을 모아 사용하다가 1990년대부터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사진 63> 마을회관



<사진 64> 마을회관 내부

178) 김덕웅(남, 70세)의 제보(2009년 5월 7일, 제보자의 집), 울리에서 40년 거주.

(2) 경률재(京栗齋)

마을입구에는 경률재(京栗齋)라는 김해김씨 문중의 재실이 있다. 1980년대 중반에 건립되었으나 철거대상지역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아 2008년도에 좌측 위편으로 새 건물을 지어 재실을 옮겨왔다. 현재 구 재실에는 병풍과 제기 등을 보관하고 있다.



<사진 65> 구 경률재의 모습



<사진 66> 신 경률재의 모습

(3) 당산나무

마을의 뒷산 계곡 쪽으로 30m정도를 올라가면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당산나무가 있다. 당산나무는 수령이 200년 안팎으로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치성을 드린 돌무더기가 함께 있다. 이 나무를 당산나무라고 마을사람들이 부르고는 있지만, 마을 공동제사인 당산제는 지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기 때문에 특정한 제의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3. 마을의 생활환경

1) 전기와 상수도

율리마을에 전기가 처음 들어온 것은 30여 년 전이다. 송전탑을 설치하여 바다 건너편에서 전력을 공급받았다. 이후 마을이 부산시 강서구로 편입되면서 부산에서 해저케이블을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받았다. 해저케이블이 설치된 후 송전탑일 때보다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율리마을에는 30여 년 전에 간이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었다. 지하수를 물탱크에 가두어 두고 가정마다 수도를 연결해 생활용수를 공급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2000년대 초반 녹산공단의 상수도가 해저로 공급되기 이전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2) 텔레비전과 전화

마을에 텔레비전이 처음 들어온 것은 1970년대였다. 송전탑을 이용해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부유한 가정을 중심으로 텔레비전을 구입했다. 전화 역시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었다. 전화는 행정용으로 통장 집에만 보급되었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일반 주민들도 사용하였다.

3) 교통과 시장

2007년도까지 울리마을의 교통편은 용원선착장과 울리선착장을 이어주는 정기도선이 유일하였다. 하루 5회 운행되던 도선이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파도가 높거나 기상이 악화되면 교통편이 끊길 수밖에 없었다. 본래 울리선착장은 수심이 얕아 간조 때에는 큰 배가 들어올 수 없었는데, 신항만 건설로 인해 수심이 더 얕아져 더 이상 유람선이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¹⁷⁹⁾ 하루 5회 운행되던 유람선은 선창으로 선착장을 옮겨 하루 10회¹⁸⁰⁾로 증설하여 운행 중이다.

4. 마을의 역사

울리의 입향조는 김해김씨로 추정된다. 김성진씨의 16대 조부 때부터 울리에서 거주했었다는 제보로 미루어 보아 400여 년 전에 마을이 개척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울리마을은 1960년대 초만 해도 김해김씨(金海金氏) 22여 호가 거주하여 동성마을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이후 다양한 성씨들이 이주해 오면서 각성마을이 되었다. 온화한 마을사람들의 성품으로 1986년에 경상남도과 마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되었다.



<사진 67> 범죄없는 마을 명패

179) 2007년 7월부터 장항선, 울리선이 사라지고 놀차, 선창으로 선착장이 옮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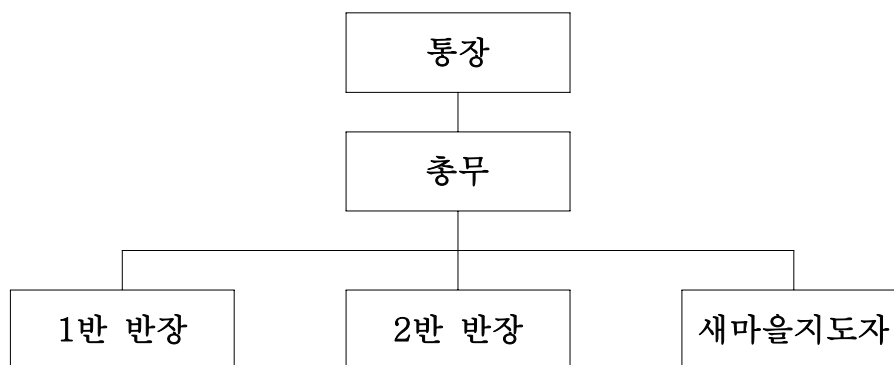
180) 하절기에는 11회 운행한다.

II . 사회조직

율리마을의 사회조직들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는 새마을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1970년대이다. 국가 정책과 맞물려 생겨난 부녀회와 청년회는 새마을운동을 주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마을의 대소사를 주관하였다. 하지만 마을 구성원들이 노령화 되면서 부녀회와 청년회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대신 노인회가 생겨나면서 마을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었다. 지금 마을에 남아 있는 조직은 동회와 노인회뿐이다. 동회는 행정상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노인회뿐이다. 마을의 사회조직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마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5가구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사회조직을 구성하고 이끌어 나갈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1. 동회¹⁸¹⁾

동회는 마을의 전체회의기구로서 50여 년 전에 조직되었다. 동회의 임원진은 통장을 중심으로 총무, 반장과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된다. 임원은 원칙상 1년에 한번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을 잘 하는 경우에는 연임이 가능하다.



<그림 10> 율리마을 동회 조직도

마을사람이면 누구나 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과거 마을이 공동으로 피조개 양식을 할 때에는 양식으로 생긴 수익의 일부를 동회의 기금으로 사용하여 운영하였다.

동회는 1년에 한번 회의를 하였는데, 그 시기는 12월 말경이었다. 회의를 통해 총무가 한 해 동안 마을기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결산을 한다. 이후 다음해에 진행될 마을의 활동 사항을 논의한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마을회의를 통해 동회가 제 구실은 하였지만 지금은 마을의 구성원들이 거의 없어 동회의 실질적은 역할은 없으며 마을이 사라지면 동회 역시

181) 하춘자(여, 74세)의 제보(2009년 6월 22일, 마을회관).

함께 사라질 것이다.

2. 노인회

노인회는 2002년에 조직되었다. 다른 마을에 비해 노인회가 늦게 만들어진 이유는 노인회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마을 구성원들의 연령층이 고령화 되고 마을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노인회를 늦게나마 조직하게 이르렀다. 노인회의 임원진은 노인회장과 부회장, 총무, 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장과 총무만이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다. 임원진은 2년마다 한 번씩 새롭게 뽑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 율리노인회의 회장은 처음 조직할 때부터 지금까지 박진안씨가 연임을 하고 있다.

마을이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하기 전에는 27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이주를 시작하면서 노인회 회원과 임원진이 축소되었다. 현재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이주를 하였지만 아직 노인회에 남아 있는 인원을 포함하여 1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노인회는 만 60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60세~64세는 준회원이고 65세 이상부터 정회원으로 인정을 받는다.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는 없지만 나이로서 구분을 한다.

회칙을 살펴보면 5조 부조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당상을 당하면 처음에는 쌀을 주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15만원 정도의 부조금을 주었다. 하지만 마을의 대다수가 이주를 하게 되자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아있는 노인회 기금을 가지고 회원들 모두에게 15만 원 정도를 부조금 명목으로 돌려주었다.

노인회는 가입비 2만원과 회비 1만원으로 운영되었지만, 국가지원금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지자 2005년부터 회비를 받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매달 175,000원¹⁸²⁾이 나오고 겨울이 되면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 동안 난방비로 매달 2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농협에서도 유류비를 매달 40,000원정도 지원해준다. 그리고 마을사람들끼리 공병을 수거 해 농협에 팔아 생긴 수익을 노인회 기금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일거리 사업을 노인회 이름으로 신청하여 일을 하면 한 달에 18만 원 정도의 보수가 나오는데, 이 돈 역시 마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노인회 기금이 넉넉해지면 시간을 맞추어 용원에 나가 목욕도 하고 점심식사도 한다. 이밖에도 매년 봄, 가을로 단체 관광을 가는데, 올해 봄에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돌면서 2박 3일 일정의 관광을 다녀왔다.

노인회는 율리마을의 가장 번성한 사회조직이었지만 현재는 활동이 미미하다. 회원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율리마을에 거주하는 인원은 6명뿐이다. 구성원이 부족하다 보니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마을의 가옥들이 철거되면서 분위기 또한 뒤숭숭하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노인회는 명맥만 유지할 뿐 실질적인 활동은 어려운 실정이다.¹⁸³⁾

182) 지원금의 액수는 매년 다르다. 175,000원은 2009년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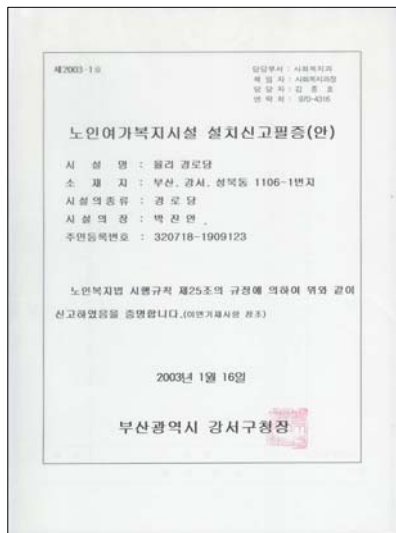
183) 박진안(남, 79세)의 제보(2009년 6월 23일, 제보자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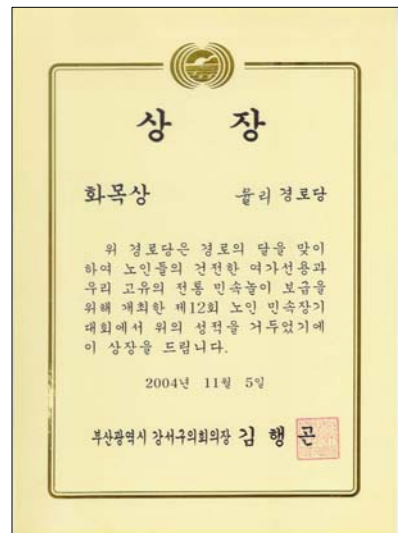
<사진 68> 노인정 전경



<사진 69> 노인정 명패



<사진 70> 율리 노인정 증명서



<사진 71> 율리 노인회 표창장

3. 부녀회

부녀회는 1970년대에 ‘축진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졌는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생겨났다. 초창기 부녀회는 구성원이 20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도 컸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부녀회의 초기 회장은 현재 율리마을에 거주하는 이일선씨이다. 이일선씨는 당시 슬하에 자녀가 없고 남편이 뱃일을 하였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부녀회를 이끌게 되었다. 이일선씨는 부녀회를 수십 년 동안 이끌어 오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부녀회장을 그만 두려고 하였으나, 마을 내에 마땅히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녀회가 사라지기 전까지 이일선씨가 부녀회의 모든 일을 맡아 하였다.

기혼인 마을 내의 여성은 부녀회 가입이 가능했고 가입금은 없었다. 부녀회 기금은 마을의 기금을 받아서 사용하였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부녀회에 기부금을 주는 경우가 많아 부녀회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부녀회는 새마을운동의 대표 사업이었던 도로 및 골목길 확장과 지붕개량 등에 앞장서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이 끝나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준비하거나 마을의 환경미화 정도만 담당하였을 뿐 큰 활동은 없어지게 되었다. 피조개사업을 하면서 부녀회만의 시간을 가지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활동해 오던 부녀회는 10여 년 전부터는 동회와 마찬가지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마을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이주를 하였고 남아 있는 구성원들도 연령대가 높아서 일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¹⁸⁴⁾



<사진 72> 부녀회 단체관광 1



<사진 73> 부녀회 단체관광 2

184) 이일선(여, 75세)의 제보(2009년 6월 22일, 제보자의 집).

Ⅲ. 의식주 생활

1. 의생활

울리는 반농반어로 생계를 유지하는 섬마을이기 때문에 쌀이나 보리 등의 주식을 생산하는 것 이외의 농사를 많이 짓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옷감을 생산하기 위한 작물은 재배하기 어려웠다. 다만 약간의 목화를 심어 무명옷감을 조금 만들 뿐이었다. 옷감의 자급자족이 어려웠기 때문에 용원장에 나가 옷감을 구입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고, 1970년대에는 기성복을 구입하여 입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1) 길쌈과 옷 관리

(1) 길쌈

옷을 만드는 일은 여성의 몫이었다. 특히 며느리들은 가족의 옷을 짓고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혼인 전에 친정어머니로부터 바느질, 길쌈, 옷 손질 등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울리마을 여성들 역시 시집오기 전에 옷감을 장만하고, 옷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다. 60여 년 전까지 이 마을에서 주로 사용한 옷감은 무명, 광목, 옥양목 등이었다. 장에서 옷감을 사다가 집에서 재봉틀로 옷을 지어 입었다.



<사진 74> 안유선씨 댁 재봉틀

① 무명

무명은 목화를 원료로 한 옷감이다. 울리마을에서는 1950년대까지 목화를 재배했다. 목화를 옷감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집에서는 솜을 가지고 직접 옷감을 뽑을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방앗간에서 옷감을 만들었다. 목화는 봉오리가 열리면 하얀 솜이 나온다. 솜을 수확하여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며칠간 말린 후에 방앗간에서 옷감을 뽑아낸

다. 방앗간에서는 말린 솜을 얇게 눌러 기계에 넣어서 가공을 한다. 방앗간에서 가지고 온 솜은 이불과 겨울옷에 집어넣어 보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이불과 겨울옷을 만드는 과정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내의와 같은 보온을 할 수 있는 옷이 없었던 시절에 솜은 겨울철의 유용한 보온재로 이용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목화의 솜은 유용한 보온재로 사용된다. 솜은 보온성이 좋아 겨울철 따뜻함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재료였다. 봄, 가을, 겨울에는 여름과 달리 옷을 가볍게 입으면 추위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두텁게 입었다. 이럴 때 솜을 옷에 넣어 보온을 유지하는데 썼다. 또한 이불에도 솜을 넣어 온기를 유지했다.

② 광목

광목은 공장에서 짠 질이 떨어지는 옷감이다. 율리마을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용원장에서 광목을 구입해 옷을 지어 입었다. 광목은 옷감의 질긴 성질 때문에 부잣집에서는 초상 때 상여 줄로 쓰기도 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다양한 옷감의 종류가 생기고, 기성복을 구입해 입으면서부터 사용이 차츰 줄어들었다.

“요새 뭐 누가 광목을 입나. 따른 좋은 옷이 천지 많은데 뭐. 30년도 넘었어. 옷 사 입기 시작한 다음부터 광목 안 써. 광목으로 만든 옷을 누가 사 입나. 예전에야 질겨서 입었지. 요샌 안 입어.”¹⁸⁵⁾

③ 옥양목

옥양목은 광목보다 곱게 짠 천으로 얇고 희다. 다른 천에 비해서 고급 옷감이므로 혼수품의 재료로 주로 쓰였다. 광목과 함께 옥양목이 나오면서부터 무명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옥양목은 고급이야. 나도 결혼할 때 그거(옥양목) 치마 한 벌 받았어. 얼마나 좋다고 그제.”¹⁸⁶⁾

(2) 옷 관리

바느질은 길쌈과 더불어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던 일이었다. 입을 것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헤진 옷도 버리지 않고 팬찮은 조각들을 모아 기워서 입었다. 솜옷은 빨래할 때 실을 일일이 따서 천과 분리한 후에 빨아야 했다. 따라서 솜을 넣고 만든 두꺼운 바지저고리의 관리는 힘이 들고 바느질에 손이 많이 갔다.

빨래를 할 때에는 비누 대신에 콩줄기를 삶아서 내린 물을 사용했다. 콩줄기 삶은 물은 때가 잘 가기 때문에 자주 사용했다. 이 후 1970년대에 ‘까만비누’가 생산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장에서 비누를 사다가 빨래를 했다. 빨래를 한 다음에는 빨랫줄에 널어 말렸다.

빨래를 한 뒤 옷이 눅눅해지면 풀을 먹여서 말리기도 했다. 풀은 쌀과 밀가루를 끓여서 만들었다. 풀을 먹이는 것은 주름을 펴고, 잔털을 없애고, 매끄럽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풀

185) 안유선(여, 76세)의 제보(2009년 5월 7일, 제보자의 집).

186) 안유선(여, 76세)의 제보(2009년 5월 7일, 제보자의 집).

을 먹일 때는 물에 풀을 섞어 옷을 담궜다. 혹은 옷에 직접 풀을 먹인 다음 물을 뿌리기도 하였다.

풀을 먹인 후에는 다림질을 하였다. 다림질은 주름을 펴고 윤기를 내기 위한 것이다. 다림질을 잘못하면 옷이 눈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야 했다. 다림질을 하는 도구에는 다리미와 인두 두 가지가 있다. 다리미는 둥근 쇠그릇 위에 솥을 올려놓고 다리는 것이다. 인두는 화로에 달궈서 동정이나 깃을 다릴 때 사용했다. 율리마을 사람들은 주로 인두를 가지고 옷이 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주름을 폈다. 남성들의 외출복은 깔끔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했으며, 그 가운데서 한복의 경우는 줄을 잘못 잡으면 보기가 좋지 않아 더욱 신경을 써야했다.

1970년대에는 옷이 현재만큼 많지 않았고, 그나마 있는 옷도 금방 낡아서 보관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가정마다 작은 박스나 함에 옷을 보관했다. 함은 대부분 시집을 올 때 예물로 가져온 것이거나 집에서 직접 나무로 짠 것으로 앞으로 당겨서 여는 것도 있고, 위로 들어서 여는 것도 있다. 자주 입는 옷은 벽에 못을 박아서 걸거나 헛대에 걸어두었다. 최근에는 불박이형 옷걸이가 있어 벽에 못을 박지 않는다.

1980년대까지는 옷을 보관할 때 담뱃잎을 천에 싸서 보관하였다. 옷을 보관할 때 벌레가 생기기 쉬운데 벌레가 생기면 옷감이 상한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뱃잎을 넣어 보관하였던 것이다. 현재는 담뱃잎 대신 나프탈렌과 쯤약을 사용하고 있다.

2) 일상복

요즘의 일상복은 만들어 입지 않고 주로 시장에서 구입하는데, 시장이 다른 곳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주로 몸빼바지를 입는데, 다른 옷에 비해 활동성이 좋아 일하기가 편하다. 또한 비교적 보온성도 좋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입을 수 있다.

일상복 중에는 선물로 받은 옷들도 있다. 이러한 옷들은 대부분 외출복으로 사용하고, 시장에서 산 짠 옷들을 일상복으로 입었다. 선물로 들어 온 옷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판매하는 옷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품질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로 외출복으로 사용하였다.



<사진 75> 일상복을 입은 안유선 할머니

3) 작업복

(1) 남성의 작업복

남성의 작업복은 해사복(海事服)과 농사복(農事服)을 크게 구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벌의 옷을 구비해 놓고 입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다일을 할 때나 밭일을 할 때 같은 옷을 입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방수(防水)가 잘 되는 옷을 작업복으로 삼았다. 바다일은 물을 접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방수가 얼마나 잘되는가가 작업복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것이다. 1950년대 이전까지 비가 많이 오는 날씨는 우장을 입고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우장은 짚을 엮어서 만든 옷으로 작업복과 우의의 역할을 동시에 하였다.

1970년대까지 겨울철에 바다일을 할 때는 솜을 넣은 바지를 만들어 입었다. 여름에는 겨울과 달리 삼베바지를 입었다. 삼베는 더운 여름에만 입는 옷이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바지만 입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의 작업복은 방수옷과 갑바를 입는다.

1970년 이후에는 나일론 재질의 작업복을 입었다. 나일론 작업복은 질겨서 일을 하는 데 수월하기 때문에 작업복으로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갑바를 많이 입었다. 갑바는 다른 작업복보다 빨래를 하는 것도 쉬워 현재에도 많이 입는다.

신발은 양말을 신고 그 위에 장화를 신었다. 장화는 1940년 때부터 들어와 작업을 하는데 유용하게 쓰였다. 1970년대 양말이 나오기 전에는 버선을 신거나 맨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작업 할 때에 목이 긴 양말을 신는다.

(2) 여성의 작업복

여성의 경우 외출복으로 입었던 옷들을 작업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출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럽혀지고 외출복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이것을 작업복으로 입었다. 또한 애초에 작업복을 목적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다.

현재 여성 작업복의 상의는 밝은 색의 티셔츠나 블라우스를 입는다. 남자의 경우 남색이나 검정색 회색 계통의 상의를 많이 입지만 여성은 보통 파랑색이나 분홍색 계통의 옷을 많이 입는다. 날씨가 추울 경우 남자는 점퍼를 입지만 여자는 두꺼운 조끼를 덧입는다.

4) 의례복

(1) 출생복

울리마울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입는 옷을 배넛저고리라고 부른다. 배넛저고리는 보통 백일 전까지 입히는데 바지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배넛저고리는 보통 시어머니가 만드는데 아기의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옷감을 이용해서 만든다. 하지만 옷감이 풍족하지 못했던 1970년대 이전까지는 어른들이 입다가 헤진 옷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였다. 요즘에는 배넛저고리를 만들어 입히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고 보통 시장에 아동용품점에서 구입해서 입힌다.

(2) 혼례복

혼인을 하기로 하여 허혼서를 주고받으면, 신랑 측에서는 예단으로 신부의 옷과 속옷, 이불 등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옷감을 보낸다. 신부의 집이 가난할 경우에는 더 많은 양의 옷감을 보내기도 하였다. 안유선할머니의 경우 1940년대에 울리로 시집 올 때 한복을 입고 마을까지 왔다. 혼례복은 마을에서 빌려 입거나 부산에 있는 대여점에서 빌려 입었다고 한다. 한번만 입으면 되는 옷이기 때문에 사서입거나 만들어 입는 것보다 빌려 입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2. 식생활

1) 주식

주식으로는 밥과 죽, 고구마 등을 먹었다. 밥에는 주로 조나 보리 등의 잡곡을 섞었는데, 종종 고구마를 섞기도 하였다. 계절에 따라서는 여름이나 가을철에 수확한 농작물의 잎에 밥을 싸서 먹기도 했다. 보리나 조를 넣어 밥을 해 먹는 집은 형편이 괜찮은 편이었고,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죽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하루에 세끼를 모두 챙겨 먹는 것이 힘들었지만 농사일과 바다일을 시작하는 아침의 경우에는 밥을 꼭 챙겨 먹었다. 점심으로는 간편하게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감자나 고구마 등을 먹었다. 여름이나 겨울철이 되면 감자, 고구마를 수확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점심 한 끼를 때우는 데 손색이 없었다. 저녁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죽을 쑤어 먹었다. 산과 밭에서 나오는 나물과 인근바다에서 나오는 재료는 뭐든지 식재료로 사용했다. 밀가루죽, 쭈죽, 보리죽도 많이 쑤어 먹었다.

“옛날에 쌀밥이 어땀어. 옛날에 보리밥 먹고 없으면 보리죽도 해먹고 수제비도 먹고 나물 뜯어다가 죽도 끓여 먹고 했지. 쌀밥 같은 건 잘 구경도 못했지.”¹⁸⁷⁾

통일벼 보급 후 쌀밥을 넉넉히 먹을 수 있었으나 실제로 쌀밥만 먹는 집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통일벼 보급 이후 잡곡밥에 쌀의 양이 많아지게 되었고, 아침 한 끼만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점심, 저녁에도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1970년 이전에는 밥에 나물을 많이 넣었다면 이후에는 보리, 조와 같은 잡곡을 넣어서 먹었다.

2) 부식

187) 안유선(여, 76세)의 제보(2009년 5월 7일, 제보자의 집).

(1) 장

율리에서 대표적인 부식은 장이었다. 그 중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을 주로 먹는다. 겨울철에는 음식의 재료가 풍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을에 수확한 배추를 말려 시래기를 만들어 두었다가 된장국으로 만들어 먹었다. 1970년대는 매 끼니에 밥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감자와 고구마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러나 밥으로 식사를 할 경우에는 반찬거리 하나 정도가 더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된장으로 만든 국이나 시래깃국이었다. 현재에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부식은 된장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

된장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는다. 예전에는 많은 식구들이 일 년 내내 먹을 정도로 많은 양을 만들었지만 현재는 자식들이 주로 외지에 나가 있어 노부부끼리 살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서 만드는 양도 줄었다. 된장을 만들려면 먼저 메주를 만들어야 한다. 콩을 깨끗하게 씻어서 적당량의 소금과 물을 넣고 솥에 삶는다. 삶은 콩은 식힌 다음 다시 찐다. 찐 콩을 발로 밟아서 으깨어 손으로 덩어리를 만들어 망태기에 넣는다.

안유선씨는 정월 10일, 20일 경에 메주를 담아서 한 해 동안 먹을 된장을 만든다. 메주를 만들기 위해 전날에 씻어 둔 콩을 새벽에 일어나서 삶고, 찌고, 으깨는 작업을 한다. 으깬 메주콩은 네모나게 모양을 만들고 짚으로 고정을 시킨 후 마당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둔다. 해가 좋지 않을 때면 구들막에 두고 이불을 덮어서 메주를 만든다. 잘 말린 메주는 소금물에 띄워 묵혀 두었다가 물은 따라내어 간장을 만들고 남은 것이 된장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된장은 겨울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부식거리가 된다.

(2) 젓갈

마을 인근에서 잘 잡히는 어종 가운데서 젓갈을 담가 먹는 것은 멸치와 전어, 굴이다. 이것으로 담은 젓갈을 멸치젓, 굴젓, 전어젓이라 부르는데, 만드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 멸치젓: 멸치젓을 만드는 것은 큰 멸치로 하고 싱싱할 때 만들어야 맛이 좋다.
- 굴젓: 소금을 넣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꺼내 먹을 때 양념을 한다. 15일 정도 숙성한 후에 먹는다.
- 전어젓: 소금을 넣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꺼내 먹을 때 양념을 한다.

(3) 김치

율리마을에서 흔히 먹는 김치의 종류는 배추김치, 무김치, 깍두기 등이다. 김장은 주로 12월경에 담그는데, 김치의 재료로 배추, 무 등을 쓴다. 김장을 담글 때는 먼저 배추를 소금에 절여 숨을 죽이고 양념을 준비한다. 양념은 고춧가루, 곡식가루, 멸치액젓을 사용한다. 김치를 담글 때 양념을 넉넉하게 하기 때문에 남은 양념은 고춧잎과 고추절임을 만드는 데 쓴다. 김치를 담근 뒤에는 독에 넣어 김치를 보관하는데 다른 그릇에 담는 것 보다 김치 맛이 한결 좋아지기 때문이다.



<사진 76> 안유선씨 댁 장독

3) 별식

(1) 손님이 왔을 때 먹는 음식

우리마을은 육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는 경우에도 특별한 상을 올릴 수가 없었다. 갑자기 손님이 올 경우에는 미리 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차림에 있어서도 기존의 음식에서 가짓수가 조금 많아 질 뿐 특별한 음식을 하지 않는다. 특별한 대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계절에 따라 나오는 생선을 가지고 회를 대접하거나 매운탕, 전, 조림 등의 음식을 올리는 것이다. 또는 손님들이 방문할 때 육고기를 조금씩 사오면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손님상에 올릴 수 있었다.

“손님 오면 뭐. 해줄게 뭐 있어. 다 형편이 뻘한데. 뭐 좋은 생선이나 하나 더 올리고 하는거지. 그리고 옛날엔 손님들이 알아서 고기도 끓여오고 그랬어. 그럼 그거 볶아서 상에 올리고 그랬지 뭐.”¹⁸⁸⁾

(2) 탁주

탁주는 의례용, 새참용으로 사용되었다. 밀을 수확하는 철에 집에서 직접 만들어 독에 보관해 두고 먹는다. 먼저 탁주는 의례나 잔치용으로 사용하였다. 손으로 직접 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의 정성이 들어있다고 여겨져 1980년대 이전까지는 직접 가정에서 담가 기제사와 차례상에 올렸다. 특히 제의에 사용할 때에는 윗부분의 깨끗한 부분만을 걸러서 청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탁주는 일을 할 때 참으로 많이 먹었다. 탁주를 먹을 때는 특별한 안주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새참용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그 당시 탁주의 안주로는 된장과 나물이 전부였고, 일을 하면서 생기는 수확물을 가지고 안주를 삼았다.

188) 안유선(여, 76세)의 제보(2009년 5월 7일, 제보자의 집).

4) 의례 음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리마을에는 특별한 생일음식은 없었다. 생일에는 일반적으로 미역국을 끓여 먹는 것이 전부였다. 반찬이라고 하여도 보통 나오는 상차림과 별반 차이가 없고 떡 하나 정도를 더 준비할 뿐이었다. 아이의 생일상에 올리는 수수떡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아이의 생일에 수수떡을 하는 이유는 수수가 액을 물리친다고 믿기 때문에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올린다. 1990년부터는 번거롭게 떡을 하거나 따로 상을 차리지 않고 가족들과 외식을 하는 형태가 많다. 따로 상을 차린다고 해도 미역국만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뭐 없어 미역국하고 나물 갖갖이 하고 그기고 애 생일상은 떡이 틀리지. 애 생일상은 수수떡하고 어른은 그냥 팔 시루떡하고. 수수떡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수수가 액을 물리친다고 애 생일에는 수수떡을 하지.”¹⁸⁹⁾

3. 주생활

50여 년 전까지 마을 가옥의 대부분이 전형적인 3칸 초가집이었다. 마을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와집을 짓고 사는 주민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초가집으로 구성되어있던 마을의 주거 형태는 1959년 “태풍-사라호”가 마을에 큰 피해를 끼치면서 변화되었다. 비와 바람 그리고 거센 파도가 마을의 집을 부서버렸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집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기 시작했다.

■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옥변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또는 가족의 구성원이 줄어들면서 집과 방의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방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확대되기도 한다. 안유선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자.

(1) 시집

안유선씨는 1945년 경 율리마을로 시집 왔다. 시집 왔을 때의 가족 구성원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2명, 안유선씨와 남편을 합해 5명이었다. 집은 정지, 큰방, 작은방, 마루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큰방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생활 하였고, 작은방에서는 안유선씨 내외가 생활 하였다. 안유선씨가 시집오고 10여년이 지난 후부터 이 같은 주거양상에 변화를 겪게 된다. 시누이들이 시집을 가게 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시어머니와 5명의 자식들이 큰방을 사용하게 되었고, 작은방은 여전히 안유선씨 내외가 사용하였다.

189) 안유선(여, 76세)의 제보(2009년 5월 7일, 제보자의 집).

(2) 새마을운동

초가집에서 생활을 하던 안유선씨 내외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지붕을 개량하였다. 이 때 초가집이었던 기존의 집을 개조하였는데 개조 전, 후의 공간이용양상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1> 1970년 안유선 씨 가옥 평면도

흙으로 완성된 집 바로 옆에는 나무로 된 집이 있는데 이곳은 베란다 형식으로 되어 있어 여름에는 마루처럼 사용하였다고 한다. 방안에는 문이 따로 있어서 두 공간을 구분지어 놓았다. 문은 방에서 미닫이문을 열고, 바로 여닫이문을 열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보기에 좋고 겨울에 바람이 덜 들어와 춥지 않다.

공간 시기	큰방	작은방
개조 전	시어머니, 시누이2명	안유선씨 내외
개조 후	시어머니, 자식들	안유선씨 내외

<표 9> 개조 전, 후 공간이용 방식 비교

(3) 이주 (2008년)

현재의 집은 마을이 철거됨에 따라 율리마을에 있던 집을 보상 받아 2008년에 다시 지은 집이다. 이 집은 명절이나 주말에 자식들이 오지 않으면 안유선씨 혼자 생활하고 있다. 이 집은 20평의 벽돌 건물로써 큰방, 작은방, 주방 겸 거실, 앞 뒤 베란다가 있는 현대식 건물이다.

IV. 생업

율리마을 사람들은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 마을은 다른 섬 지역 어촌마을에 비해 물이 풍부한 편이지만 섬마을의 특성상 논밭 재배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힘과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고기잡이와 그물손질 같은 일은 남자들이 전담하였고, 발농사와 바지락채취 활동은 여성들의 일이었다.

1970년대 이전 시기에는 포항, 동해 근역 등 동해안으로 원양을 나가 조업을 하였다. 연근해어업을 할 때는 여성들도 함께 조업을 하지만, 원양조업은 남자들만 할 수 있었다. 이때 여성들은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거나, 연안에서의 채취업으로 생활을 꾸려 나갔다. 1970년대 이후에는 어업기술의 발달과 연안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피조개양식과 연근해에서 서식하는 어패류를 잡아들여 마을이 부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피조개와 새조개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효자 상품이었고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하지만 1994년 신항만 건설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생업은 많이 축소되었다. 장항이나 선창에 비해 수심이 얕아 미역채취가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에 현재 어로행위는 인근 갯벌의 조개채취나 통발을 이용한 어로행위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1. 농업

율리마을에는 천수답을 이용한 소량의 논 경작이 가능했다. 산을 개간하여 보리, 밀, 콩, 고추 등 각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밭작물을 재배했고, 양파는 전량 판매용으로 재배했다. 1970년대에 남해안에 불어온 양파 붐을 타고 마을에서도 양파를 많이 재배하였고 얼마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95년 가덕도와 부산 간의 도선이 사라지며 양파의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들게 되어 더 이상 재배하지 않고 있다. 그 후 바다에서의 생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밭작물 및 논농사는 점차 그 범위가 줄어들게 되었다.

1) 양파

양파는 주로 율리마을과 장항마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했던 농작물이다. 율리에서는 김성진씨가 1970년 가덕도에 일본산 양파 종자를 처음 도입한 박한택씨로부터 이듬해인 1971년에 종자를 분양 받아 처음 양파재배를 시작하였다. 이후 1970년대 초반부터 양파가 여타의 밭작물과 비교할 수 없는 고소득을 보이자 율리와 장항일대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이 양파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덕도의 기후는 양파재배에 적격이었다. 양파는 마을에 많은 소득을 가져다주었지만 1990년대 초 마을의 인구감소로 따른 재배농가의 감소와

부산을 잇는 여객선이 사라지면서 양파 재배도 자취를 감추었다.

양파는 10월경 파종하고 겨울이 지난 후 4~5월경에 수확하여 판매한다. 양파재배의 시작은 파종부터 시작된다. 파종은 모종을 키워 이루어진다. 모종을 밭에 옮겨 심을 때 키가 작은 모종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심지 않는다. 작은 모종을 심으면 소출이 적기 때문이다. 웃거름은 총 3번 뿌리는데 파종이 끝난 일주일 후에 한번 뿌려주고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월동을 위해 한 번 더 뿌린다. 그 후에는 2월과 3월에 웃거름을 뿌려준다.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3월 초에는 벌레가 많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경부터 살충제를 뿌려주는데, 3월과 4월에도 한 번씩 더 뿌려주고 5월이 되면 수확을 시작한다. 수확한 양파는 1980년대까지 여객선을 이용하여 부산으로 나가 농산물집하장에 판매를 하였다.

2) 콩

콩의 파종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리나 밀을 심지 않은 밭에다가 파종을 할 수도 있고, 아직 추수가 되지 않은 밭의 골과 골 사이에 또 다른 흙을 파서 파종을 할 수도 있다. 첫 번째 경우는 대개 5월 중순경에 씨를 뿌리는데 곡물이 귀하였던 율리마을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조금이라도 많은 곡물을 얻기 위해 밭을 놀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연히 두 번째의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럴 때는 파종 시기가 6월 10일에서 6월 20일경이다. 만약 보리와 밀의 수확을 끝낸 다음에 파종을 하면 콩이 여름기전에 서리가 내리기 일반적으로 추수 전에 파종하였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싹이 올라와 자라게 되는데 보리와 밀이 만든 그늘 속에서 자라다보니 줄기가 가늘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순을 쳐서 튼튼한 옆가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땅의 지력이 좋을 경우에는 보리가 추수되고 난 뒤에도 한 번 더 순을 쳐줄 수 있다. 이 작업을 완료하고 나서 여름철 한가한 시간이 지나면 추수의 시기가 다가오는데 대략 보리의 파종시기인 10월 중순경이다. 콩의 추수는 포기를 뿌리째 뽑는 것으로 시작된다. 뽑은 콩을 묶어 세워 두었다가 5일정도 말린 다음 도리깨로 두들겨서 껍질을 까고 키질을 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3) 고추

율리마을 사람들은 고추를 판매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아니다. 농토가 넓지 못하기 때문에 자투리땅에 먹을 만큼의 고추를 심는다. 고추의 파종은 2월 10일경에 하며 노지 재배를 하고 있다. 고추의 종자로는 조생종으로 왕대박이 있고 중생종으로는 천하통일, 부춘, 조명이 있다. 파종을 할 때에는 밭고랑을 비닐로 덮은 후 파종자리에 구멍을 뚫어 심는다. 고추는 과채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고온성 채소종류에 속하는 작물로서 온도관리가 작황을 좌우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파종 후 3월 초에 이식, 즉 가식을 한다. 파종을 하고 난 다음 약 30일 정도에 36칸짜리 플라스틱 포트에 이식을 한다. 이식을 할 때는 진딧물약과 살충제를 한번 뿌려준다. 율

리마을은 연평균 기온이 높기 때문에 해충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포트에서 어느 정도 자란 묘는 5월 5일~10일에 노지에 파종을 한다. 이렇게 심은 뒤에 30cm정도 자라면 나무 막대기를 자라난 고추 사이에다가 박고 고추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줄을 친다. 이 줄은 총 3번에 걸쳐서 치는데 이는 고추가 성장하면서 가지가 부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농약과 비료는 비가 오고 난 뒤 7~10일에 한 번씩 꼭 살포 해줘야 한다. 종류로는 살충제, 진딧물약, 덩불약, 탄저병약 등이 있다. 고추는 병해충에 약하기 때문에 다른 작물보다 신경을 더 써야 한다. 고추는 일반적으로 수확할 때까지 꽃이 피고 다시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반복한다. 7, 8, 9, 10월까지 계속 청고추와 홍고추를 수확한다. 고추를 수확할 때도 일손이 많이 든다.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 구부정한 자세에서 고추밭을 돌아다니면서 고추를 수확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고추 수확 후 고춧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조를 해야 하는데 고추건조기를 보유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해 건조한다.

4) 들깨

들깨는 봄에 심는 것과 가을에 심는 것이 있는데, 봄에 심는 것은 열매를 먹는 것이고 가을에 심는 것은 잎을 먹기 위한 것이다. 가을에 심으면 곧 서리가 내려서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들깨는 자투리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밭두둑에 심고, 본 밭에 심을 때에는 콩과 함께 심거나 둘레에 심는다. 본 밭은 이랑을 평평하게 해서 포기 사이를 한 자 정도(약 30센티, 호미 자루 길이)씩 떨어뜨려 심는다. 파종 시기는 4월 중순이나 하순이 좋은데, 모종은 따로 포트에다 하지 않고 보통 땅에다 흘뿌리듯 심는다. 골고루 뿌려지도록 고운 흙과 함께 섞어서 뿌려주면 좋다.

본 밭에 옮겨 심을 때는 6월 중순이나 하순 쯤, 한 두 포기씩 뭉쳐서 심는다. 뭉쳐 심을 때에는 호미로 깨 길이만큼 땅을 길게 파서 위의 잘 자란 잎이 3~5개 나오도록 하고 짧은 것과 긴 것을 함께 심을 때에는 긴 것에 맞춰서 심는다. 길게 흙을 팔 때는 뿌리가 들어갈 부분은 좀 깊게 하는 게 좋다.

모종을 옮겨 심을 때는 흙을 판 후 물을 뿌려가며 심는 것이 좋은데, 비가 적당히 오는 날에는 그냥 심어도 된다. 옮겨 심을 즈음이면 보통 비가 내릴 때이니 물주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들깨는 흙 표면 바로 위의 줄기에서도 뿌리(막뿌리)가 나기 때문에 되도록 북돋아주기를 한다. 북주기를 하면, 더 튼실하게 자라 장마나 태풍 때 쓰러짐을 방지할 수 있고 열매도 더 맺힌다. 들깨가 워낙 힘이 좋고 향이 있어 잡초는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제초는 파종한 후 장마 전에 한번 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북주기를 할 때 같이 해 주면 일을 덜 수 있다. 북주기와 풀매기를 한 후 웃거름으로 깻묵을 발효시킨 액비를 주거나 여의치 않으면 오줌을 주어도 된다. 들깨는 성장이 매우 좋아 겉가지가 금방 나오는데, 밑의 가지를 따면 잎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 그냥 내버려두어도 별 지장은 없지만, 쌈용이나 반찬으로 잎을 따 먹을 때 밑의 것을 따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꾀할 수 있다.

보통 10월이 되면 익기 시작하는데, 흰 들깨나 조생종은 9월 중순이 지나면 수확 할 수 있다. 밑의 잎과 열매의 맨 밑 꼬투리가 노랗게 익으면 베는 게 좋다. 밭에서 다 익어버리

면 알들이 절로 떨어지거나 낮으로 벨 때 그 충격으로 많은 알들이 땅으로 다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벨 때는 약간 비가 온 다음 바로 하거나 이슬이 맺혀 있는 이른 아침이나 오후 쭤미 좋다. 그래야 알들이 떨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낮으로 벨 때는 한 포기를 한꺼번에 베지 말고 줄기 하나씩 비스듬히 밑에서 위로 베어 충격을 줄이도록 한다. 벨 것은 비닐이나 장판 위에 깔아 놓고 말리고, 꼬투리 전체가 누렇게 되었을 때 긴 막대기나 도리깨로 두드려 씨앗을 받는데, 두세 번에 걸쳐 해야 한다. 비닐 바닥에 깔린 알들은 껍질과 섞여 있기 때문에 체로 거른 다음 키질로 까발려 깨끗하게 알을 고른다.

5) 유자

가덕도는 유자를 재배하기 위한 요건 중 해풍, 일조량, 토성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는 기후적 특색으로 인해 1995년 유자재배농법이 도입된 이후, 매년 풍부한 수확량을 거두고 있다.

이 시기에 울리에서도 유자재배농법을 도입하여 3가구에서 유자를 재배하고 있다. 울리마을에서는 김영수씨와 김덕용씨가 가장 먼저 유자를 도입했다. 5년생 유자나무 300그루를 각각 1,500여 평의 산지에 심어 재배한 지 2년 후부터 유자를 수확할 수 있다. 2004년도까지는 가덕도 유자 작목반¹⁹⁰⁾에 가입하여 생산된 유자를 유자청으로 가공, 판매하여 소득원으로 삼았으나, 현재는 판매를 위한 재배가 아닌 가정 내 소비를 위해 소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이처럼 가덕도 유자가 종을 결실을 거둔 것은 봄부터 전지, 밀거름주기, 낙과정리 등의 온갖 정성을 쏟고, 용원수협¹⁹¹⁾의 재배기술을 농민들에게 이전한 결과이다.



<사진 77> 김영수씨 덕 유자밭

190) 가덕도 유자작목반은 천가면 선창마을 일대의 20,000평에 18농가가 참여한 유자 작목반(반장 김홍태)을 통해 2008년도 150여 톤을 생산, 가공하여 경남과 부산 등지를 비롯한 전국에 주문판매를 통하여 농가당 대략 1천5백만원 이상의 소득을 내고 있다.

2. 어업

1950년대 이전에는 큰 배를 이용하여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그 후 피조개양식으로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터를 장착한 목선이나 일제모터가 달린 서넛끼를 이용하여 부부공동으로 연근해에서 어업활동을 많이 하였다. 또 낙동강과 바닷물이 만나는 바다를 이용하여 질 좋은 미역과 바지락 등을 채취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기도 하였다.

율리마을은 인근의 장항마을과는 달리 미역이 채취가 되지 않는다. 율리마을 앞 바다는 수심이 얕고 물살이 약하기 때문에 짬에 미역이 붙지 않는다. 현재는 신항만 건설 때문에 도선마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수심이 낮아져 미역을 채취하는 일은 아예 없다. 이 같은 환경 때문에 마을 대다수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큰 배를 이용하여 원양어업에 종사하였다.

원양어업을 통해 얻어진 소득으로 부를 축적한 율리마을 사람들은 1970년 중반 이후부터는 연근해어업으로 어장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하춘자씨의 경우 10여 년간 원양어업을 통해 모은 재산으로 1974년 개인어장을 마련했다. 원양어업을 나갈 경우 기관장 및 선원들에게 주어지는 임금과 유지비를 감안했을 때, 조금은 고생이 되더라도 연근해어업으로 조업을 할 경우 3, 4년 정도만 고생을 하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5톤급선박을 처분하고 작은 어선을 마련하여 연근해 어업을 시작했다. 이것은 이후 마을 사람들도 원양어업에서 연근해어업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 연근해 어업을 할 경우 노를 저어 선박을 이동하는 일부터 물보는¹⁹¹⁾일과 그물의 손질까지 모두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가족(혹은 부부끼리)단위의 조업으로 이끌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물을 걷을 때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웃집과 노동력을 번갈아 가며 쓰기도 했고, 물때가 맞지 않을 때는 용원이나 부산에서 인력을 조달하여 쓰기도 했다. 그물을 걷으면 인근 해역에서 잡히는 다양한 어종이 포획되므로 상품가치가 있는 감성돔, 전어, 농어 등은 별도로 담아 수매하고 나머지 어종은 집에서 먹거나 용원장에 내다 팔았다.

■ 어로도구

율리마을 사람들은 1960년대 이전까지는 모든 어로도구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다. 어부들은 무명실과 명주실로 그물을 만드는 등 자신들의 어업활동에 필요한 도구들은 대부분 직접 만들었다. 그물은 고기를 잡는 집이면 으레 짤 수 있어야만 했다. 그물을 짤 때는 대나무로 만든 그물 짓는 바늘을 사용하였다. 그물바늘의 크기에 따라서 그물코의 크기가 정해진다. 큰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에는 큰 바늘을 작은 고기를 잡을 때엔 작은 바늘을 써서 그물을 짰다. 성인 남자가 일주일 정도 그물을 만들면 30발 정도의 그물을 만들 수 있었다. 그물의 아래쪽에는 돌 같은 것을 달아 그물이 아래로 펼쳐지도록 하고, 위쪽에는 나무껍질을 달아 물에 뜰 수 있도록 하였다. 명주실로 만든 그물은 약해서 터지기 쉬우므로 감물을 들어서 튼튼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물색깔이 밝으면 고기가 물러들지 않기 때문에 참나무껍질을 삶은 물에 실을 적서 옅은 밤색으로 물을 들였다.

191) 어업과 관련된 일을 율리사람들은 ‘물 본다’라고 한다.

V. 일생의례

사람은 살아가면서 일정한 의례를 거치게 된다. 이 의례를 일생의례라고 하는데, 일생의례는 크게 출생의례, 관례, 혼례, 상·장례, 제례로 나누어진다. 율리마을의 일생의례 중 관례는 먹고살기 힘들어 격식을 차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이가 자라서 혼인을 치르면 그때부터 어른으로 대우해 주었다. 혼인은 대부분 중매를 통해 이루어졌다.

1. 출생의례

출생의례는 출산, 출산 후 삼일, 초이레(초칠일), 세이레(삼칠일), 백일, 돌, 생일 등과 같이 아기가 무사히 성장한 것에 대해 축하하고, 동시에 무병장수를 기원해주는 풍습이다.

1) 출산

임신을 하면 출산준비를 한다. 출산준비는 아기가 태어나면 입힐 배냇저고리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율리마을에서는 주로 시어머니가 해산한 산모의 기력을 보충해줄 미역과 배냇저고리를 미리 준비한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임신을 한 며느리가 직접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2) 산후금기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출산을 알리기 위해 금줄을 친다. 금줄은 한쪽 대문 기둥에서 다른 쪽 기둥까지 어른 키 정도의 높이로 치게 되는데 가운데는 약간 처지도록 한다. 남자일 경우 숯, 고추, 술, 미역 등을 새끼에 끼워 걸고, 여자일 경우에는 고추를 빼고 걸었다.

“딸 낳을 때는 숯하고 술, 청술을 쏘고, 여기는 미역을 달테. 미역 달고 그래가 하고, 아들 낳았을 때는 고추 쏘고. 빨간 고추. 여기 금줄만 치는 게 아니고, 장대에도 이렇게 붙여 놔. 장대 한 개만. 못 들어오라고. 그러면 상갓집이나 잔칫집 갔다온 사람들이 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한다고. 그런데 몰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지. 그럼 애기가 어찌 알고 그리 우는지. 그러면 들어온 사람한테 물을 뿌리면서 벌을 세우고 얼른 나가라 그러고 빌지. “동물 같은 사람이 들어왔으니 제왕님 노여워 마시고 잘 살피주세요”하고.”¹⁹²⁾

192) 이일선(여, 75세, 부산댁)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제보자의 집).

금줄은 출산을 알림과 동시에 낯은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기능을 하였다. 율리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낯은 사람이란 상갓집이나 잔칫집 등 사람이 많은 곳에 출입한 이를 뜻한다. 낯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 갓 태어난 아기에게 부정한 영향을 미치거나, 복을 감하여 산모와 태아에게 해가 미친다고 한다. 금줄을 쳐놓은 동안에는 집안 식구들도 낯은 곳의 출입을 삼가야 했다.

3) 이레

출산 후 7일이 되는 날을 마을사람들은 ‘첫이레’라고 부른다. 이날 아침에는 방의 윗목에 삼신상을 차리고 밥을 올린다. 이 삼신상의 밥은 일정한 의례가 끝난 후 산모가 먹었다. 이때 금줄을 걷는 경우도 있는데 금줄을 걷으면 일가친척들이나 동네사람들이 아기를 볼 수 있었다.

4) 백일 · 돌

율리마을에서는 아기의 백일과 돌은 반드시 챙겼다. 백일과 돌을 챙겨먹지 못하면 아이가 잘 넘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일잔치 때는 마을사람들을 초대해 수꾸떡, 경단, 백설기 등 떡과 사과, 배 등의 과일을 준비하고 미역국을 대접하였다. 이때 마을 사람들 뿐 아니라 가까운 친지들도 찾아오는데, 선물을 가지고 오기도 한다. 그리고 돌이 되면 아기가 일 년을 무사히 보낸 것을 축하하기 위해 돌잔치를 하였다. 돌잔치에도 백설기, 경단, 사과, 배, 밤, 대추, 국수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였다. ‘콩망세이’는 돌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떡인데, 속이 넓어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돌잔치도 백일잔치와 마찬가지로 가족들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친지들을 초청한다. 손님들이 돌잔치에 올 때는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마을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로 음식을 가져오고 친지들의 경우 돈을 조금씩 준비한다.

“백일은 석달 열흘이 백일이거든. 떡하고 국 끓여가 가까운 사람들이랑 먹는다 아이가. 백일이랑 돌때 떡을 해먹어야 아들이 잘 안 넘어진다 그래서 다 해먹었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런 거는 다 했다.”¹⁹³⁾

돌잔치에서는 돌잡이를 한다. 잔치를 할 때 돌상을 차려놓고 그 위에 실과 연필, 책, 돈 등을 올려놓는다. 실은 수명을 상징하고 연필과 책은 공부를 상징하며, 돈은 부를 상징한다. 그래서 아기가 실을 잡으면 오래 살 것이라 여기며 연필이나 책을 잡으면 공부를 잘 할 것이라고, 돈을 잡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것이라고 여기며 좋아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과 백일이 되면 성대하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미역국을 끓여 밥 떡과 함께 대접해 주거나 가족들끼리 모여앉아 미역국을 먹

193) 이일선(여, 75세, 부산댁)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제보자의 집).

는 것으로 백일잔치와 돌잔치를 조촐하게 치르기도 하였다.

2. 혼례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이 20세를 전후해서 혼례를 하였다. 여성의 경우 일제의 처녀공출로 인해 조혼을 하는 풍습에 따라 17~19세 정도에 혼례를 치른 경우가 많았고, 남성의 경우 입대 전에 혼례를 치루는 경우가 많았다. 혼례는 대부분이 전통혼례방식으로 하였고 만남은 중매로 이루어졌다.

1) 의혼

중매를 통한 혼인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거의 정해져 있는데, 울리의 통혼권은 가덕도 섬안의 마을들과 가까운 부산, 진해 등이다. 중매를 서는 중매인은 ‘중신애비’, ‘중신할매’, ‘중매할마이’, ‘매파’라고 불린다. 중매는 전문적으로 중매해주는 중매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마을에서 명성이 있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 해주는 경우, 일가친척이 해주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중매는 집안의 사정을 고려하여 서로 격이 맞는 집을 택하여 서는 것이 보통이며, 중매를 서주는 대가로 신발이나 옷, 쌀이나 보리 두말 정도, 버선을 할 수 있는 베, 돈을 주기도 했다.

“나는 결혼을 조금 늦게 했는데 왜 늦게 했냐하면 어머니가 일찍 가서 결혼을 늦게 했다. 23살에 결혼을 했는데 내가 부산에 있을 때였거든 그때 우리 아버지 친구가 소개를 했거든. 그때 내가 나이도 많을 때였으니까. 가덕도에 선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시집가라 그래서 일로 왔지. 첩에는 시집 안 간다고 미용실에도 가서 숨고 친척집에도 가서 숨고 그랬어.”¹⁹⁴⁾

2) 납채

혼인이 결정되기 전에 중매인을 통해서 먼저 신랑 쪽에서 강서를 보낸다. 강서에는 “혼인하기를 원하니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강서를 받은 집에서는 혼인을 원하면 허혼서를 써서 보낸다. 허혼서에는 “20년 동안 곱게 기른 딸을 시집보낼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허서 또한 중매인을 통해서 남편의 집에 보내게 된다. 그 후에 본격적인 혼례준비에 들어간다.

먼저 남편의 집에서는 사주단자를 신부의 집으로 보낸다. 사주단자는 남자의 생년월일을 적어 보내는 것인데, 이때 사돈지, 택일 날짜, 청색·홍색 비단도 함께 보냈다. 일반적으로 사주단자가 신부 측에 도착하면 신랑의 생년월일과 신부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여자 측에서 신

194) 이일선(여, 75세, 부산댁)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제보자의 집).

랑·신부가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궁합을 본다. 사돈지에는 신부와 혼인을 올리게 되었는데, 곱게 키운 딸과의 혼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시집에서 사돈지를 사주단자에 넣어서 보내면 신부는 시집으로 들어갈 때 부모로부터 사돈지를 받아서 직접 가지고 갔다.

혼인 날짜를 택하여 알리는 것은 연길단자를 통해 따로 하기도 하지만 강순기씨는 사주단자에 함께 넣어서 보냈다. 혼례 날짜는 손 없는 날을 찾아서 택하였다. 날짜를 받은 후에는 부정탄다하여 부정한 일은 하지 않았고, 날을 잡고는 초상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사주단자에는 생년월일 뿐 아니라 청색·홍색의 비단도 들어갔다. 예로부터 청색·홍색 비단으로 한복을 해 입고 가면 시집에서 화목하게 잘 산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3) 납폐(納幣)

(1) 함들이기

혼례를 올리기 전 신랑 집에서 보내는 함이 신부의 집으로 배달된다. 함은 신랑의 친구가 신부의 집까지 매고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함을 매는 사람을 함지기라고 하는데, 함지기는 일반적으로 흠이 없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 하게 되는데, 신랑의 친구나 아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 기혼의 남성, 특히 첫 번째 자식으로 아들을 낳은 남성이 함을 맨다.

함에는 혼례복과 금반지를 비롯한 다양한 패물이 들어있다. 또 청실, 홍실, 서숙이 들어있는데 청실, 홍실은 부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고, 서숙은 많은 아들을 낳기 바라는 마음에서 넣는다. 이 실(청실·홍실)은 남자가 죽으면 함께 묻는다고 한다. 청실홍실은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데, 죽어서도 사랑이 변함없기를 바라면서 청실홍실을 함께 묻어주는 것이다.

“함 들고 오면 함 내리고 돈을 주지. 함을 벗어가지고 미리 집에서 보냈잖아. 신부가 옷 해 입고 가는 거지. 함에는 청실, 홍실 뭐 많이 들어있어. 실타래도 들어있고 반지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랬어.¹⁹⁵⁾

(2) 초행

함을 보낸 후 신랑은 혼례를 올리기 위해 신부의 집으로 온다. 이를 ‘초행’이라 하는데, 초행을 갈 때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간다. 그리고 바로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마련해둔 집에 가서 준비해온 혼례복으로 갈아입었다. 여기서 사모관대를 한 후에 대례청으로 들어선다.

(3) 꼬꼬재

율리마을에서는 혼례를 치르는 것을 ‘꼬꼬재’라고 부르며, 꼬꼬재를 치르기 전에 연지곤지를 찍는 것을 ‘단장’이라고 한다. 연지곤지는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쪽의 부모

195) 이일선(여, 75세, 부산택)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제보자의 집).

남께서 모두 살아계신 경우에만 찍을 수 있다. 단장은 주로 만아들 낳은 여자와 마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 해줬다. 연지곤지는 양쪽 볼과 이마까지 빨간 종이를 동그랗게 잘라서 붙인다.

혼례 장소에는 먼저 명석을 깔고 위에 돛자리를 덮어 초례를 치를 준비한다. 혼례 준비를 할 때 명석 밑에는 몰래 수수알갱이를 넣어둔다. 그리고 신랑이 명석 위에 올라설 때 잘 살피고 올라서는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올라서는지를 보는데, 이는 신랑이 피가 있는가를 살피기 위함이다. 또 혼례라는 엄숙한 의례를 하는 날 넘어지는 신랑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기 위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수수에 이어서 혼례상에 올라가 있는 두부 뒤집기로 신랑의 지혜를 다시 시험한다. 신랑이 접시 위에 있는 두부를 뭉개지 않고 잘 뒤집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두부를 아무런 흠 없이 뒤집으면 피가 있다고 하고 뒤집지 못하고 뭉개면 신랑은 피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병풍을 친 후 혼례상을 차리는데, 혼례상에는 일반적으로 각각 빨간 보자기와 파란 보자기에 싸인 닭 한 쌍과 초록색 보자기로 싸 나무로 만든 오리 한 쌍, 대나무, 소나무, 밤, 대추, 과상, 떡, 배, 사과, 삼색실, 두부가 올라간다. 홀기 읽는 사람은 마을에서 글을 잘 읽고 초승¹⁹⁶⁾이 좋으며 평판 또한 좋은 사람이 맡는다. 주례를 보는 사람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주로 몇 명 정도 주례를 보러 불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계속 혼례의 주례를 부탁하기 때문에 주례를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홀기 읽는 사람이 의식을 순서대로 진행한다.

혼례를 올릴 때 “행출현북향계”라고 말하면 신랑이 나와서 먼저 북쪽으로 절을 한다. 북쪽으로 절을 하는 이유는 중국의 예에 따라 혼례를 올릴 때 북쪽에 계시는 임금님을 향해 인사를 먼저 드린다는 의미라고 한다. 신부는 서쪽에 서고 신랑은 동쪽에 서는데 “서동일배”라고 말을 하면, 신랑은 서쪽에 서 있는 신부를 향해서 한번 절을 한다. 그다음 “서동다음 재배례, 형 교배례”라고 말을 하면 신부는 양 옆에서 잡아주는 시자의 도움을 받아 신랑을 향해 절을 두 번한다. 신랑이 절을 한번 하는데 비해 신부가 두 번 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배례를 한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아 합근례를 한다. 합근례란 신랑신부가 술을 마시는 의식을 말한다. “처자침주”라고 말을 하면 신부는 신랑에게 잔을 권한다. 그 잔을 받은 신랑은 술잔에 입을 대고 마시는 시늉을 한 후 잔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신부에게 잔을 권한다. 그러나 신랑은 신부에게 직접 잔을 건네지 않는다. 또 잔을 권할 때 신랑은 혼례상 위로 잔을 주지만 신부는 혼례상 아래로 오는 잔을 시자의 도움을 받아 마신다. 잔은 세 번 주고 받는데 잔을 줄 때 시자는 잔을 빙 돌려서 신부에게 준다. 처음에 잔을 부어주면 신랑은 입만 대고 그대로 다시 시자에게 준다. 그럼 시자는 그 잔을 다른 곳에 붓고 다시 잔을 받아서 신부에게 준다.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는데 마지막 잔의 경우 신부는 처음과 같이 입만 대지만 신랑의 경우는 모두 마셔야 한다.

196) 목소리를 말하는 것이다.



<사진 78> 이일선씨 혼례사진

혼례가 끝난 후 신랑은 혼례상의 오리를 신부에게 던진다. 신부는 그것을 자신이 입고 있는 치마를 이용해서 받는다. 그 후 대추와 밤도 신부에게 던지는데, 이 모든 의례는 아들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라고 한다. 닭은 보자기를 풀어 그대도 날려준다.

“오리를 가져와서 남편이, 신랑이 신부에게 던져. 오리를. 아들 낳는다고 여에 하든 전설이 있었어. 오리를 신랑이 그 저게 그 혼례식에 거 오리도 놓고 그래가지고 그 오리를 신랑이 가져와서 치마에 던지지. 오리가 어디로 가면 아들 놓고 뭐 옛날 다 잊어버렸어, 뭐 의미가 있어, 오리를 던지고. 여자 앞에 던지면 나는 받지 치마에 그게 그래서 오리를 하고. 절 받고 인사드릴 때 잘 살라고 아들 딸 많이 낳으라고 대추 던져주고 밤 던져주고 이랬지, 치마저고리 훌쳐서 벌여가지고 받았지.”¹⁹⁷⁾

4) 사관드리기

신부는 신행을 온 이튿날부터 시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이때 친정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차려 들어간다. 문안인사를 드릴 때에 신부의 태도는 시댁식구들로 하여금 신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는데 중요한 점은 방안에 있는 가구를 먼저 보지 말고 천장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눈을 위로 향하여 보면 시댁에서 위로 보고 대우를 받으며 산다고 믿기 때문이다.

5) 재행(再行 또는 근친=觀親)

혼인 후 신부가 신랑과 함께 친정에 가는 것을 ‘재행’ 또는 ‘근친’, ‘근행’이라고 하였다.

197) 이일선(여, 75세, 부산댁)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제보자의 집).

재행은 가정 형편에 따라 가는 시기가 다르나, 율리마을에서는 신행을 간 달을 넘기지 않고 그 달에 재행을 가야 한다. 재행을 갈 때에는 시택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보냈다.

“내가 결혼을 25일 날 했거든. 근데 3일 있다 왔으니까 28일 날 온거잖아. 그런데 또 재행가야 된다는데. 근데 달을 넘기면 안 된다 그러자네. 그래서 하룻밤자고 빨리 가야 되는데. 부부 둘이 갈려니까 내가 걸음도 느리고 배타고 부산을 나가야 되는데 몸도 약하고 하니까 남편 혼자 갔다 왔다. 남편 혼자 사람하나 대리고 음식 싸들고 갔다 왔지. 달을 넘기면 안 된다는데 어찌 같은 가자 그러노. 빨리 갈다 온다 해서 알겠습니까 했지.”¹⁹⁸⁾

3. 상례

상례는 일생의례 중에서 비교적 변화가 더딘 의례이다. 일생의례 가운데 상례가 가장 절차를 중시 여기기 때문이다. 율리마을의 상례 절차에 대해서 박진안씨의 제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임종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을 임종이라고 한다. 임종 직전에는 평소 계시던 방에서 돌아가시게 한다. 사랑방은 객실이라 사랑방에서 돌아가실 경우 객사라고 해서 사랑방에 계실 때에도 임종 시기가 다가오면 웃방(윗방)으로 모신다.

2) 부고와 초혼

사람이 죽으면 먼저 객지에 떨어져있는 자식이나 친지에게 고인의 죽음을 알렸다. 부고장을 보내거나 직접 사람을 보내 알렸다. 부고장에는 만상주부터 상주들의 이름을 쓰고 죽은 이의 이름과 임종 일시도 함께 적었다.

초혼은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행위를 말한다. 고인의 옷옷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서 옷옷을 지붕 위로 던지고 고인의 이름을 부른 후, “복! 복! 복!”하며 세 번 불렀다. 혹시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올까 하는 기대와 함께 이제 한 사람이 인간 세상을 접고 저승으로 가니 복을 달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오늘날 인간 세상을 접고 저승으로 갑니다. 복을 줘 주세요. 그래가지고 복! 복! 복! 하잖아. 또 혼백 부른다고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그걸 초혼이라 그런다고, 초혼.”¹⁹⁹⁾

198) 이일선(여, 75세, 부산댁)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제보자의 집).

199) 박진안(남, 79세)의 제보(2009년 6월 21일, 제보자의 집).

초혼을 할 때 고복을 외우는 사람이 중간에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제대로 초혼을 하지 못하면 초혼을 했던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초혼을 하게 하지 않는다. 초혼을 해 줄 사람은 깨끗해야 할 뿐 아니라 암기를 잘하며,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맡긴다.

3) 염습

사람이 죽으면 몸에 있는 구멍이 열려서 고인물이 흘러내리므로 청결히 닦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시신을 닦아주고 수의를 갈아입히는 것을 염한다고 이야기한다. 옷을 입히고 나면 쌀을 불려서 시신의 입에 넣어 주었다.

“양쪽 귀를 막고 입에다 손가락으로 밥을 쌀을 불가가지고 입어다가 넣어. 이걸 가져가시고 잘 가세요. 이런 의미고 쌀을 불가가지고 들어 넣을 때 쌀이 천석입니다. 억 만 석입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서가지고 저승나라에 가서 잘 살으라고”(200)

습은 시신을 싸서 입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사망한 다음날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멀리 있는 자식이나 친척에게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이틀이나 사흘 뒤에 하기도 하였다.

4) 소렴·대렴

소렴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일이다. 대렴은 소렴을 끝낸 시신을 칠성판에 옮기고 입관하는 절차이다. 보통 소렴과 대렴은 함께 한다. 이때 깎은 손톱과 빗은 머리카락을 주머니에 넣고, 망자의 옷이나 이불로 관 속에서 시신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다. 이렇게 입관의 절차가 끝나면 영구를 대청에 옮겨 놓고 병풍을 쳐서 빈소를 차린다.

대청에 빈소를 차릴 때, 사랑방에는 사진을 걸고 큰 상을 차리는데 큼지막한 대구포와 과일, 유과 등을 올린다. 남자들은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짚 베개를 깔고 짚신을 신고, 막대기를 짚는다. 막대기는 모친상일 경우 버들막대기를 부친상일 경우에는 대나무를 쓴다. 이 또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자는 개가하여 다른 집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버들막대기를 쓰고, 남자는 새사람을 맞더라도 자신의 집을 지키기 때문에 대나무를 쓴다고 한다.

5) 성복

입관 후 영좌를 설치하면, 상주는 옷을 갈아입고 성복제를 지낸다. 상주는 삼베로 된 상복을 입고 제상을 차려 분향하고 헌주한 다음 재배한다. 남녀 복인은 마주서서 절을 하고 곡을 한다. 상주와 만며느리만 삼베로 된 상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은 흰옷이나 검은 양복을 입고 삼베를 머리와 팔 또는 다리에 걸친다.

200) 박진안(남, 79세)의 제보(2009년 6월 21일, 제보자의 집).

6) 출상

대개 임종한 지 3일이 지나면 시신을 장지로 옮기는데 상여가 나가기 전에 약간의 음식과 술을 준비해서 발인제를 올린다.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가 나간다. 상여가 나가면 상가에 서는 고인이 입던 옷과 신발 등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태운다.

7) 산신제와 하관

장일 아침이면 일꾼들은 장지에 미리 도착하여 매장 준비를 하였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직접 땅을 파서 뿔자리를 만들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굴삭기가 산을 올라가서 묘 주변의 땅을 정리한다. 뿔자리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빈소를 차렸다. 땅을 파기 전에는 음식과 술을 차려놓고 산신에게 고하는 산신제를 올리는데 특별한 음식은 따로 없으며 떡과 과일, 술을 준비한다. 그 후 상주와 손님들이 서로 절을 하고, 손님들은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고인을 보내는 마지막 과정을 지켜본다.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관을 하고 봉분을 만든다.

8) 상막

박진안씨의 경우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1986년도에 마당에다 함판으로 상막을 차리고 고인에게 매일 밥을 올려 드렸다. 상막 안에는 술잔과 과일, 지팡이와 고인의 사진과 지방을 써놓았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밥을 떠 드리며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절을 하면서 빌기도 하였다.

“1986년도 인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시묘살이 같은 거는 못하잖아. 1년, 3년씩 산에 들어가서 어찌 있어. 처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다 함판으로 당을 하나 지어서 매일 밥 올리고 초하루 보름에는 절도하고. 초하루 보름에는 일하다가도 조금 일찍 들어와서 절하고 그랬어. 상막 안에는 술하고 과일, 지팡이, 짚고 다니시던 대지팡이, 지방 써놓고 사진 내비두고 했지. 다른 사람들은 안하고 나만 했지. 내가 마지막이고. 아버님 돌아가실 땐 했는데 그 다음에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못하겠더라고.”²⁰¹⁾

4. 제례

박진안씨는 일 년에 두 번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제사를 모신다. 기제사를 지낼 때 가장

201) 박진안(남, 79세)의 제보(2009년 6월 21일, 제보자의 집).

먼저 하는 것이 음식 장만이다. 제사에 올라갈 음식은 집에서 직접 준비한다. 예전에는 모든 음식을 집에서 준비했지만 지금은 떡과 과당은 집에서 만들지 않고 사서 올리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모두 사서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박진안씨는 제사를 지낼 때 떡과 약과를 제외한 모든 음식은 모두 집에서 장만한다. 제수준비는 박진안씨와 그의 처가 부산에 있는 남포동시장에 나가서 구입해 온다. 가까운 용원시장이 아닌 남포동시장까지 가는 이유는 제물로 사용하는 물건은 좋은 것을 써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시장인 남포동에서 장을 보는 것이다.

“제수준비는 여기 용원에서 안 본다. 왜 가까운데서 안하고 부산까지 가서 하냐고? 그거야 용원보다야 큰 남포동시장이 좋은 고기가 많잖아. 좋은 고기 구해야지. 제사상에 올라갈건데. 그래도 나름 크고 좋은 비싼 고기 산다아니가”²⁰²⁾

부부가 구입해온 제물은 부산에서 살고 있는 며느리들이 손질한다. 과거에는 박진안씨의 부인이 다 준비를 하였지만 며느리가 시집을 온지 1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인 1990년대 후반부터는 며느리들이 음식 장만을 하고 있다.

“음식이야 뭐. 며느리들이 다하지. 이제 나야 늙어서 문해. 장만 봐다 놓으면 지들이 낮에 일찍 들어와서 준비 하는거지. 큰며느리 작은며느리 다 부산에 사니까. 가깝잖아. 낮에 같이 들어와서 음식 준비 하는거지. 며느리들이 제사음식한지 오래됐지. 시집와서 부터 거들기는 했는데. 네가 손 놓고 둘이서만 하기 시작한지 한 10년쯤 됐을걸.”²⁰³⁾



<그림 12> 박진안씨 떡의 기제사 진설도

제사상에 대추나 밤, 감을 올릴 때 홀수, 과일, 배 등을 올릴 때도 홀수로 올린다. 편을

202) 박진안(남, 79세)의 제보(2009년 6월 21일, 제보자의 집).

203) 박진안(남, 79세)의 제보(2009년 6월 21일, 제보자의 집).

올릴 때도 포, 계란을 올릴 때도 홀수로 올린다. 계란은 보통 반으로 잘라서 홀수개로 올린다. 제물을 홀수로 올리는 이유는 짝수는 산 사람의 숫자고 홀수는 죽은 사람의 숫자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 제사상의 국이나 밥, 수저를 놓을 때에는 좌설을 원칙으로 한다. 산 사람은 오른쪽을 기준으로 놓는 것이 원칙인데 생인자는 우설, 사인자는 좌설이라 하여 죽은 사람은 왼쪽을 기준으로 상을 차린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망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다. 그 다음, 초헌관은 술잔을 들어 향 위에서 세 번 돌리고 두 번 절한다. 그리고 제상에 올린 밥은 초헌관이 세 손가락 펴서 국에 넣는다. 그리고 수저를 밥에 꽂아놓는다. 제사상은 잠시 그대로 차려두었다가 후에 제사상에 물을 한 그릇 떠 올린다. 이는 망인에게 식사 후에 물을 한잔 건네는 것이다. 제사상을 모두 물리고 떠 놓았던 물에 밥과 제사상에 올렸던 여러 가지 음식들을 모두 조금씩 넣어 깨끗한 곳에 버린다. 이는 망인을 따라 왔던 잡귀신을 위한 음식이며 이것을 사자상이라 한다.



<사진 79> 마당에 사자상을 놓은 모습

모든 절차가 끝나면 지방을 태우는데 지방은 제사를 지냈던 방 안에서 동쪽을 보고 바로 태워 버린다. 동쪽을 보고 태워야 운이 좋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때 지방이 열기에 의해 떠오르는데 지방을 태운 재가 천정에 닿으면 귀신이 잘 먹고 간다고 생각을 한다.

“지방은 어디 밖에 나가 태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태우지. 동쪽이 있거든. 동쪽을 보고 태워야 운이 좋다 그래. 지방을 태우면 손 디면 안 되니까 이쪽저쪽 손으로 옮기면 종이가 떠오르잖아. 그 종이가 천장까지 닿으면 아 오늘 제사는 아버님이 잘 먹고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²⁰⁴⁾

지방까지 태우고 나면 음복을 한다. 음복을 하지 않으면 자손들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 제사를 지낸 후에는 꼭 음복을 한다. 간혹 제사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제사상에서 밥을 말았던 물을 마시면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204) 박진안(남, 79세)의 제보(2009년 6월 21일, 제보자의 집).

VI. 세시풍속

율리마을의 세시풍속은 설, 추석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진 실정이다. 마을공동체 의식이 강조되었던 전통적인 농경사회와는 달리 개인, 혹은 소수의 단위로 어로행위를 하는 어촌 마을에서는 농경사회 같은 공동체중심의 행위가 비교적 적었다. 율리마을의 거주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60년대조차 30여 호 안팎이던 가구 수와 어로행위가 개별단위로 이루어져 공동체의식이 더욱 적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세시풍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월	일	명칭	의례 및 행사	시절식	전승 여부
1	1	설	세배, 차례, 복조리, 신수보기, 설빔, 윷놀이	떡국	○
	15	정월 대보름	성주상차림, 부럼 깨물기, 귀밝이술 마시기, 더위팔기, 찰밥먹기, 지신밟기, 달맞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줄당기기	찰밥, 부럼, 묵나물	△
2	1	영등	영등제사 지내기		×
3	3	삼월 삼짇날	화전놀이	화전	×
	·	한식	성묘하기, 산소관리기		×
4	8	석가탄신일	불공드리기, 연등달기		○
5	5	단오	그네뛰기	쑥떡	×
	8	어버이날	식사대접		○
6	·	복날	복달임(시절식)	닭백숙, 통닭	○
7	7	칠석	절에 가기	밀가루떡	○
8	15	추석	추석차례, 성묘하기	송편	○
9	9	중구	중구차례		×
10	·	시사	시사 지내기		○
11	·	동지	팔죽 쑤서 잡귀 물리기, 새알심 먹기, 팔죽 뿌리기	팔죽	○
12	31	섣달그믐	설빔 장만하기, 묵은세배, 밤새우기, 차례		△
윤달			집수리, 화장실 고치기, 수의 장만		○

※ 세시의례의 전승여부에서 ○ : 현재에도 전승, △ : 부분적으로 전승, × : 단절.

<표 10> 율리마을 세시력

1. 정월의 세시풍속

1) 설

율리마을의 경우, 설차례는 정월초하루가 아닌 설날 그믐날 지내는 가정이 많았다고 한다. 박치근씨의 제보에 따르면 가덕도가 예전에 유배지였기 때문에 마을의 유지들이 정월 초하루에 차례를 지내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인근의 용원지역도 이러한 풍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을 사라지고 1990년대 이후에는 점차 정월 초하루에 차례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율리마을에서는 차례상에 떡국을 올리지 않고 밥을 올린다.

“정월 초하룻날 차례지낸 거는 10년 조금 넘었을 건데. 그전에는 다 (설날) 그믐날 지냈어. 율리, 가덕(성북동), 장항 할 것 없이 용원도 그래 지냈는데 뭐. 내가 듣기로는 그냥 그렇게 지내면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다 그래 지내니까 그 때 지냈겠지. 근데 요새야 다 노는 날(공휴일) 정해졌으니까 멀리 나간 사람들 오기 좋으라고 다들 정월 초하룻날 지내지.”²⁰⁵⁾

“글쎄 확실히는 몰라도 예전에 어릴 때 어른들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게, 가덕도가 유배지였다 아녘니까. 물에 사는 양반들이 자기들이랑 제사(차례)지내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유배 온 사람들도 다들 양반들 아니었겠냐만은 보기에 고깝게 보였을 수도 있지요 뭐.”²⁰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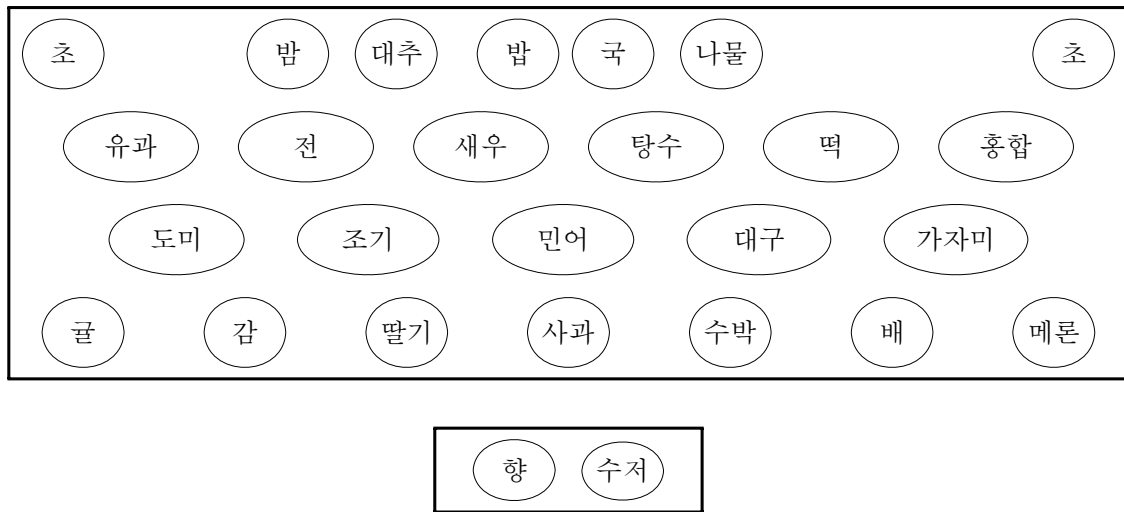


<사진 80> 하춘자씨 댁의 설차례상

설 차례상의 진설 순서는 첫 번째 열에 밥, 국, 나물을 올리고 그 옆에 밤과 대추를 올린다. 두 번째 열에는 유과, 전, 떡을 올리고 새우와 홍합과 같은 해산물과 탕수를 올린다. 탕수에는 굴이나 미역과 같은 해산물들이 많이 들어간다. 세 번째 열에는 도미, 조기, 민어, 대구, 가자미 등과 같은 생선을 올린다. 마지막 열에는 과일을 올리고 차례 상 앞에 따로 향과 수저를 둔다.

205) 안유선(여, 76세)의 제보(2009년 5월 9일, 제보자의 집).

206) 박치근(남, 54세)의 제보(2009년 2월 22일, 하춘자씨의 집).



〈그림 13〉 하춘자씨 덕의 설차례상 진설도



〈사진 81〉 하춘자씨 덕의 설차례 모습 1



〈사진 82〉 하춘자씨 덕의 설차례 모습 2

차례가 끝나면 다 같이 음복을 하고 새배를 한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웃어른에게 새배를 하는데 새배를 받은 웃어른은 덕담을 해준다. 덕담은 한해의 운수대통을 빌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것들이었다.

“덕담은 뭐 있나. 그냥 운수 좋으라고 그러지. 건강하고, 다 좋은 말 해준다. 아들 다 잘되라고 그러는 거지.”²⁰⁷⁾

2) 성주상

차례를 지낸 다음에는 차례상을 물러 거실에서 여성이 혼자 성주상을 올렸다. 성주상에는 밥, 나물, 국, 고기, 과일 등을 차례상과 가지 수를 같게 해서 올렸다. 성주는 집의 주인격이기 때문에 집안의 안정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성주상을 올렸다.

²⁰⁷⁾ 하춘자(여, 74세)의 제보(2009년 6월 22일, 마을회관).

“차레지내고 나면 이제 성주상 올려야 되거든. 성주상은 다 같이 안하고 내 혼자만 하는거라. 차레상을 이래 거실에 물려가지고 그 위에 밥하고 나물하고 국만 다시 떠서 성주상을 올려. 성주가 집주인이거든. 그래 집이 평안하라고 성주상을 올리는거지.”²⁰⁸⁾

3) 윷놀이

우리마을에서는 설날에 윷놀이를 했다. 사용되는 윷은 가락윷이 아니라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크기였다. 이 윷은 개목나무나 참나무를 잘라서 만들었는데 크기만 작을 뿐 모양은 보통의 윷과 같았다. 네 개의 윷가락을 작은 그릇에 넣고 흔들어서 바닥에 던졌다. 이렇게 던진 윷을 보고 도, 개, 걸, 윷, 모에 따라 말을 놓았다. 말을 놓고 승패를 결정짓는 방법은 보통의 윷놀이와 같았다. 마을별로 편을 나누지는 않고 가정마다 상품을 걸고 윷놀이를 했다.

“우리는 윷까치를 이래 큰 거 안 쓰고 쪼매난 거 쓰거든. 요래 손가락 마디 한 개만 큼 작아. 그래 만들어서 그거 종지에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바닥에 던져서 했어.”²⁰⁹⁾

4) 정월 대보름

정월 보름에는 팔, 쌀, 수시(수수) 보리, 찰쌀 등의 잡곡을 넣은 오곡밥을 지어먹는다. 열 나흘날 저녁과 보름날 저녁에는 ‘보름 밥을 얻어먹는다’하여 동네 아이들이 가정마다 보름밥을 얻으러 다녔다. 열 나흘날 저녁부터는 마을 청년들이 가정마다 마당이나 집 앞에 북조리를 던져두었다가 보름날 아침부터 북소리 값을 받으러 다녔는데 그 값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집안의 형편에 따라 각각 다르게 셈을 치렀다.

“북조리는 우리는 안 만들고 사서 했어. 정초나 보름날 되면 북소리 장수가 오거든. 오면 이래 돈을 얼마씩 주고, 북소리 사가지고 걸어놓고. 그런데 또 요새는 안 오데. 윷리 있을 때도 잘 안 오데.”²¹⁰⁾

5) 줄당기기

우리마을에서는 설날, 혹은 정월대보름에 줄당기기를 했다. 현재 마을회관을 기점으로 나뉘는 1반, 2반으로 편을 나눴다. 이 때 쓰는 줄은 배를 고정시키는 훑줄을 사용했다. 윷리의 줄당기기는 승패를 가리는 성격보다는 서로가 모여 한마음으로 단결한다는 데 의의를 두어 한쪽편이 이기면 다음번에는 진편이 이길 수 있도록 하여 항상 무승부가 나도록 진행했다.

208) 안유선(여, 76세)의 제보(2009년 6월 23일, 제보자의 집).

209) 하춘자(여, 74세)의 제보(2009년 6월 22일, 마을회관에서 제보).

210) 안유선(여, 76세)의 제보(2009년 6월 23일, 제보자의 집).

“보름날 줄다리기하면 1반하고 2반하고 편을 나눠가지고 했지. 줄은 배에 묶는 거 안 있나. 그런 거 가지고 요 회관 앞에 모여가지고 했어. 그럼 1반이 이기면 또 다음 판에는 2반이 이기게 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잘 단합하라고 그래 한 거지.”²¹¹⁾

2. 이월의 세시풍속

■ 영등할매 오신 날

영등할매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올 때 딸을 데리고 오면 치마가 팔랑팔랑 거러 예쁘라고 바람이 불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못나게 보이라고 비가 내린다. 그래서 비가 오면 풍년이 들고 바람이 불면 흉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어촌마을은 농사보다는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고 비나 바람이나 반가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거나 치성을 드리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3. 삼월의 세시풍속

■ 삼진날

삼월 삼진날에는 할머니들만 모여서 십시일반 쌀과 반찬을 모아 음식을 한 뒤 뒷산에 올랐다. 뒷산에 오르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화전놀이를 하였다.

“화전놀이 했지. 집집마다 쌀하고 반찬할거 모다가지고 요 뒤에 산에 올라가거든. 산에 가서 이제 음식 해온 거 먹고, 술도 먹고, 술 먹으면 또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그래가 놀았지.”²¹²⁾

4. 사월의 세시풍속

■ 초파일

초파일에는 절에 가서 기도하고 불공을 드린다. 울리마을 사람들은 인근의 영주사나 미타암, 천성에 있는 오리정사를 주로 찾는다. 아침 일찍 와서 봉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등을

211) 하춘자(여, 74세)의 제보(2009년 6월 22일, 마을회관에서 제보).

212) 이일선(여, 75세)의 제보(2009년 6월 22일, 마을회관에서 제보).

달기도 하였다. 또 점심때가 되면 절에서 식사도 한다.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과 복을 빌고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였다.



<사진 83> 초파일 불공(미타암)



<사진 84> 불공드리는 모습(오리정사)

5. 오월의 세시풍속

■ 어버이날

어버이날에는 마을 어른들을 회관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드렸다. 2002년까지는 마을기금을 사용하여 음식과 술, 선물들을 장만하였으나 현재는 마을기금이 없어 마을 이장인 김성진씨가 사비를 털어 음식을 마련한다. 가덕도 마을청년회에서는 음료수와 술을 각각 한 박스씩 준비하여 통별로 나누어 드리고 있다.



<사진 85> 회관으로 모이는 마을어른들



<사진 86> 2009년도 어버이날 식사대접

현재는 철거로 인해 마을사람들이 이주해 나가고 남은 가정이 얼마 없기 때문에 통장이 직접 기금을 마련하여 음식을 장만하고 어른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한다. 천성과 선창으로 이주해 나간 사람들은 이날 율리마을로 돌아와 점심부터 저녁까지 음식을 먹고 놀며 옛날이

야기를 하며 논다.

6. 유월의 세시풍속

■ 삼복

삼복은 여름철의 가장 더운 기간이다. 이때 시절식으로 닭을 잡아먹어 기력을 보충해 긴 여름을 보냈다. 더운 날씨에 있는 복날은 보름을 주기로 초복, 중복, 말복으로 나뉘어 삼복 더위라 부른다. 울리에서는 개장국을 먹는 사람은 없으며, 주로 닭을 잡아 몸보신을 했다. 최근에는 번거롭다 하여 마을회관에서 함께 모여 통닭을 시켜 먹는다. 간혹 외지에 나간 가족들이 찾아와 용원, 부산 등지로 나가 삼계탕을 먹기도 하지만, 가구 수가 많지 않아 교외로 나가기보다는 마을 회관에서 통닭을 시켜 먹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복날에는 뭐 닭 먹지. 여기는 개 잡아 먹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가 닭 먹거든. 요즘에는 회관에 모이가 통닭 시켜 먹거든. 뭐 아들 내나 딸 내 오면 부산이나 용원이나 나가 먹는 사람도 있고. 통닭 많이 시켜 먹지.”²¹³⁾

7. 칠월의 세시풍속

■ 칠석

칠석날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로 늘 비가 온다고 전해진다. 종교가 불교인 사람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또한 칠석날에는 밀가루떡을 먹으면 좋다고 하여 밀가루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칠석날 뭐 따로 하는 거 없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가서 불공드리고. 그런데 밀가루떡을 해 먹으면 좋다 그러데. 그래가 밀가루 떡 해먹고. 그런 거 밖에 없어.”²¹⁴⁾

8. 팔월의 세시풍속

■ 추석

213) 하춘자(여, 74세)의 제보(2009년 6월 22일, 마을회관에서 제보).

214) 하춘자(여, 74세)의 제보(2009년 6월 22일, 마을회관에서 제보).

추석날 아침에는 햇곡으로 빻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며 성묘를 한다.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집보다 성묘를 하러 가는 집이 더 많다. 추석날 집에서 차례만 지내는 가정의 경우 추석 전에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한다.

9. 구월의 세시풍속

■ 중구

추석 때 차례를 지내지 못했거나 성묘를 다녀오지 못한 가정에서는 중구에 제사를 지낸다. 예전에는 추석 무렵에 햅쌀이 나지 않아 중구에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많았다. 추석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날 차례를 지내는 집이 늘어나서 이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추석날에 차례를 지낸다. 한편, 죽은 날짜를 모르는 사람들 제사를 지낼 경우 중구 때 지냈다. 외지에서 객사한 사람들의 경우 기일을 모르기 때문에 중구 때 다 같이 지냈다고 한다.

“중구날에는 옛날에는 추석 때 햅쌀이 잘 안 났거든. 그래가 중구 날 지내는 집들이 많았어. 성묘도 그 때 가고. 요새는 추석이 공휴일로 돼 있으니까 다 추석 때 지내지. 중구 날 안하고. 요새는 중구날은 인제 죽은 날 모르는 사람. 객사한 사람들 제사 지내고 하지.”²¹⁵⁾

10. 상달의 세시풍속

■ 시제

시월상달에 문중 사람들이 모여서 날짜를 정하여 시사를 지낸다. 김해김씨의 경우 마을에 ‘경률제’라는 재실이 있는데 이곳에서 시제를 지낸다. 재실이 없을 때에는 묘마다 찾아다니며 지냈지만 20여 년 전에 재실이 생겨 일일이 묘를 찾지 않고 한꺼번에 시제를 지내게 되었다.

11. 동짓달의 세시풍속

■ 동지

215) 이일선(여, 75세)의 제보(2009년 6월 22일, 마을회관에서 제보).

율리마을에서는 동지에 팔죽을 쑤어 집안 곳곳에 뿌리며 잡귀잡신을 물렸다. 아침에 일어나 새알을 넣고 팔죽을 쑤어 먹는데 팔죽을 쑤면 먼저 주춧돌, 마당, 대문, 길가 순으로 뿌린다.

“동짓날 팔죽 쑤자나. 그러면 이제 집집마다 뿌렸거든. 그것도 순서가 있어. 먼저 주춧돌에 뿌리고, 마당에 뿌리고, 대문에 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길가에 뿌리는 거라. 그러면 팔죽이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그래 팔죽을 뿌린 거지.”²¹⁶⁾

12. 선달의 세시풍속

■ 선달그믐

선달그믐날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변한다고 하여 집 곳곳에 불을 밝히고 잠을 자지 않는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데 지금은 잠은 자더라도 집안에 불을 꼭 켜놓고 잔다고 한다.

“옛날에는 방이고 화장실이고 다 불 켜놓고 안 잤거든. 자면 눈썹 하얗게 쏜다고. 그래가 안자고 했는데. 요즘에도 그래. 뭐 잠이야 자지만 불은 꼭 켜놓는다. 자더라도 방방마다 다 켜놓고 그런다.”²¹⁷⁾

13. 윤달의 세시풍속

윤달은 ‘남의 달’, ‘썩은 달’이라고 하여, 무슨 일을 해도 아무 탈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평소에 꺼리던 일들을 한다. 노인이 있는 집안에서는 윤달에 수의를 지어둔다. 묘 이장도 윤달에 한다. 윤달에는 부정이나 액이 없다 하여 평소 조심스럽게 여기던 집안 수리를 하거나 이사를 하기도 한다.

“윤달에는 이제 탈 없는 달이라고 남의 달, 썩은 달이라고 했거든. 그래가 뭐든 해도 탈이 없어. 그래 윤달 들면 수의도 만들고 묘 이장할 일 있으면 하고. 집수리를 해도 되고. 이사도 윤달 때 가고 그러거든.”²¹⁸⁾

216) 하춘자(여, 74세)의 제보(2009년 6월 22일, 마을회관).

217) 이일선(여, 75세)의 제보(2009년 6월 22일, 마을회관).

218) 안유선(여, 76세)의 제보(2009년 6월 23일, 제보자의 집).

Ⅶ. 민속신앙

1. 마을신앙

율리마을에서는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마을신앙의 형태가 미약하다. 마을사람들이 ‘당산 나무’라고 부르는 나무가 있기는 하지만 일종의 서낭당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이다. 나무의 수령이 200여년 정도 되는 느티나무일 뿐이지만 골짜기를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던져 놓은 돌이 쌓이고 쌓여 돌무덤이 된 일종의 서낭당과 같은 성격을 지닌 나무를 ‘당산나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따금씩 집안의 큰 우환이 있거나,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가는 집안에서 출항 전 만선을 빌기 위해 당산나무를 찾아가 비손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공동체 신앙의 신격으로 보기에 어렵다. 마을사람들 또한 동제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당산나무라고 있어. 근데 마을 어른들 다 모여서 지내는 그런 제사는 따로 안 지냈어. 아주 옛날에도 그런 건 없었어. 내가 시집 온 지가 50년이 넘도록 안했으니 안 한 거지. 집집마다 가서 빌기는 했어. 집안에 무슨 큰일 생기거나 배 있는 사람들이야 집안끼리 모여서 따로 제사는 모시도 우리 동네서는 동제라 하는 게 옛날부터 없더라고. 장항에서는 하던데. 당산나무는 고개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금수 만나지 말고 무사히 넘어가게 해달라고 서낭당에 빌듯이 돌 한 개씩 얹어놓고 절하고 가고 그런 게 지금 돌이 그래 많이 안 쌓인다.”²¹⁹⁾



<사진 87> 율리 당산나무



<사진 88> 당산나무의 돌무덤

219) 안유선(여, 76세)의 제보(2009년 5월 9일, 제보자의 집),

2. 가정신앙

율리마을에서 모시는 가신은 일정한 신체를 가지지 않는 건궁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신체를 지니고 있는 것은 성주신 정도로 나머지의 가신들은 일정한 형태가 없다. 현재 율리마을에서 가신신앙의 제의형태를 이어오는 집은 거의 없다. 가신이 사라진 가장 큰 계기는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1970년대 중반부터 가정신앙이 미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기존의 가옥이 개조되면서 점차 소멸되기 시작하였고, 1994년 신항만 건설로 인해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예전에야 어른들이 많이 모셨지만, 요새야 누가 그런 거 다모시나. 제사도 머느리 눈치 보면서 지내는데. (율리마을에서) 조왕님이니 세존할매, 이분저분 다 모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몇 집은 안됐어. 그 분 돌아가시고는 그냥 바다로 띄어 보내고. 그래도 성주님은 집집이 모셨었는데,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 미신이라고 다 없애라 그래서 다 없애고 그랬어.”²²⁰⁾

■ 삼신

아기를 점지하고 출산을 관장하는 신을 '삼신할매'라 한다. 삼신은 산모와 아기들의 건강, 성장까지 모든 과정에 영향을 주는 가신으로 일정한 신체를 가지지 않는 건궁의 형태로 모셨다. 현재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삼신에 대한 믿음과 영향력은 약화되었지만 전통사회에서 삼신에 대한 믿음은 간절하고도 절대적인 것이었다.

“새벽에 해뜨기 전에 샘에 가서 물을 떠와. 깨끗하게 정갈하게 머리 빗고 세수하고 물동이 이고 가서 물을 떠오거든. 이제 그 물을 그릇에다 한바가지 떠서 장독대 위에 놓고 비는 거야. “아들하나 점지해 주소”하고. 정성으로 모시는 거라.”²²¹⁾

3. 무속신앙

보문사²²²⁾의 주지스님인 박연이(여, 85세)씨는 보문사의 스님이 되기 이전에는 무속인으로 활동했다. 18세에 율리에서 천성으로 시집을 왔으며, 결혼 이후 10년 만에 신병을 앓기 시작했고, 52세에 남편이 죽고, 아들과 딸을 분가시킨 이후에는 신내림을 받아 보살이 되었다. 신병을 앓을 때에는 이유 없이 집을 뛰쳐나가 산으로 가서 자는 등 정신이상자와 같은 행동을 했었다. 신내림을 받지 않자, 주변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남편도 사고로 죽고 말았다. 이후 30여 년간 무속행위를 하며 다양한 무속신앙의 주체자로 활동했다. 보문사 주지

220) 하춘자(여, 72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5월 1일, 제보자의 집).

221) 하춘자(여, 72세, 김해댁)의 제보(2009년 5월 1일, 제보자의 집).

222) 보문사는 오리정산 오리정골에 있는 사찰이라 하여 오리정사로 불렸으나, 1986년도에 보문사로 바뀌었다.

스님이 되기 전까지는 박보살로 불렸다. 박보살이 하던 제의는 객귀물림, 고사, 성주고사 등 작은 일부터 풍어제 및 어선의 무사안녕과 만선을 기원하는 곳까지 담당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무속행위를 하고 있다.

1) 객귀물리기

‘객귀가 들렸다’는 것은 혼례식 혹은 상갓집에 찾아 온 객귀가 음식을 통해 사람에게 들러 붙어 몸에 탈이 나서 경기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경환자(驚患者)’라 한다. 이때에는 몸에 붙은 객귀를 물려내기 위해 양밥을 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먼저 객귀가 들린 사람을 문지방 한복판에 눕혀 놓고 팔 세알을 입에 넣은 뒤 칼을 입 위에 비스듬히 세워 그 칼에 바가지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주문을 읽는다.

“헛세! 걸귀걸신을 물린다. 성주·조왕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절대장군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좌청룡 우백호를 물리는 것도 아니고 동네방네 제왕님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이 골 산신령님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앞도당산 천왕대신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뒷도당산 주신할배를 물리는 것도 아니고, 따라 들어온 걸귀걸신을 물린다.”²²³⁾

주문을 외고 난 후에는 마당의 대문 쪽을 향하여 칼을 던진다. 이 때 칼끝이 밖으로 향하면 객귀가 나갔다고 생각하고, 칼이 떨어진 곳에 가서 십자(十字)를 긋는다. 이곳에 칼을 꽂은 다음 칼 위로 바가지를 덮어씌운다. 그리고 환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와서 한숨 재우면 낮게 된다. 만일 두 번을 던질 때까지 칼의 끝부분이 밖을 향하지 않을 때에는 객귀가 깊이 들었다고 여겨 다시 환자를 마루에 앉혀 놓은 다음, 물밥을 담은 바가지와 칼을 들고 와 다시 주문을 외운다.

“○○살 목은 여자(혹은 남자)가 오늘 운수가 나빠 음식에 따라 들고, 손길에 따라 들고, 발길에 따라 들어 온 오신걸귀를 물리니 앉아서도 거역 말고, 서서도 거역 말고, 쪽박 밥에 다가 한 대접 물에 안 나갈 것 같으면, 엄나무에 은장도 드는 칼에 대동강 물에 띄워 죽인다.”²²⁴⁾

이때도 비슷한 과정을 반복하는데 주문을 읽은 후에 칼끝이 밖으로 향할 때까지 칼을 던진 후, 밖으로 향해 떨어진 곳에 가서 십자(十字)를 긋고 칼을 꽂는다. 바가지에 든 물밥은 바깥쪽을 향해 버리고 바가지를 칼 위에 덮어씌운다. 그리고 짚단에 불을 붙여 환자의 몸을 두어 바퀴 두른 뒤 불붙은 짚단으로 환자의 등을 치면서 “헛세!”라고 소리 친 다음, 환자를 방으로 데리고 와서 발이 문지방 쪽을 향하도록 거꾸로 눕히고 재우면 곧 낮게 된다.

2) 아이팔기

223) 박연이(여, 82세)의 제보(2009년 5월 9일, 보문사), 울리에서 태어나 18세에 본동으로 이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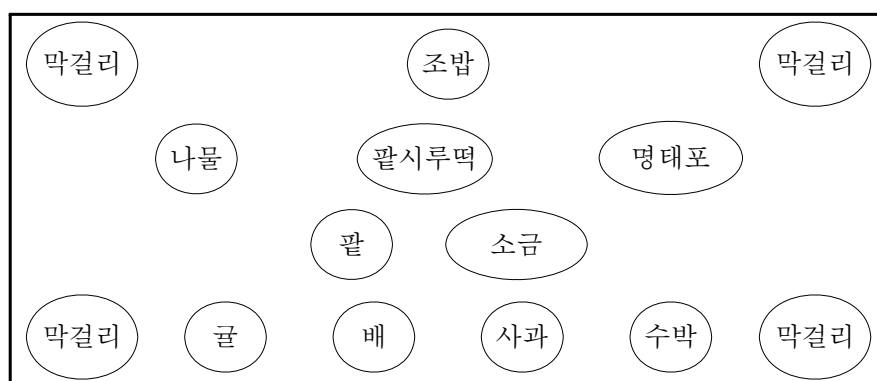
224) 박연이(여, 82세)의 제보(2009년 5월 9일, 보문사),

아이팔기는 귀한 자식을 얻었을 때, 자연물에 대한 영구성과 신격을 아이에게 부여하여 오랜 기간 동안 무병장수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행하던 민속현상이다. 엄마의 젖이 잘 안 나올 때, 한 돌이 지나기 전에 낱을 잡아 아이팔기를 한다. 강이나 산, 또는 바위나 큰 나무, 부처님이나 산신 등에 ‘판다’는 것은 곧 ‘맡긴다’는 의미로 아이팔기 풍속에는 바위나 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라달라는 소망이 깃들여 있다. 아이팔기는 부모는 아이를 낳고 자연은 아이를 길러준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즉, 자연물을 대부(代父)로 삼게 하여 아이팔기를 통해 자연으로 귀화하는 강과 산은 또 다른 아이다. 따라서 강산이 온전치 못하고 파괴되면 아이에게 병이 들거나 수명이 짧아진다고 본다.

“아이팔기라는 것은 산신님이나, 제석님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당나무라든가 영원 불멸의 대상에게 귀의시켜서 애기들 무병무탈하게 잘 자라라고 하는 것이야. 일단 한 돌이 지나기 전에 빌어야 된다. 1년이 지나면 실제로 잘 죽기도 하고, 태어난 다음에 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빌어줄 때는 제석님한테도 빌어주고, 부처님한테도 빌어주고 그랬어.”²²⁵⁾

3) 안택고사

안택고사(安宅告祀)는 신과 조상에게 재수를 축원하고 고하는 의례로, 이름 그대로 집안의 평안을 비는 고사이다. 한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에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불길한 일이 생길 때에도 지낸다. 안택고사는 주재자인 무당이 정을 치며 집안의 가신들에게 일 년 간의 운수를 비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곳거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고사의 상황에 맞게 축원하는 것이 강조된다.



<그림 14> 안택고사 상차림

반야심경까지의 모든 축원이 끝이 나면 화엄성중을 염송하며 안택고사상에 차려진 막걸리를 집안 곳곳에 붓고, 팔과 소금도 집안 곳곳에 뿌린다. 고사 상에는 상의 네 귀퉁이에 막

225) 박연이(여, 82세)의 제보(2009년 5월 9일, 보문사),

걸리를 한 사발씩 부어 놓고, 팔시루떡을 시루채로 올리며, 마른 명태와 나물을 양옆으로 진설한다. 과일은 정해진 과실 없이 넉넉하게 준비하고 팔시루떡 앞에는 팔과 소금을 한 그릇씩 가득 담아둔다.

4) 사자풀이

박연이씨는 신병을 앓는 기간에 남편을 잃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자, 자녀들을 분가 시키고 내림굿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이 때 경신신동²²⁶⁾을 하여 얻은 것이 ‘사자(死者)풀이’다. 경신신동을 마치고 나자 머릿속에 사자풀이의 내용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박연이씨는 망자의 한을 기리기 위해 사자풀이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다.

“사자풀이는 간단히 입담으로만 빌어 주는 게 아니고 조상 받들듯이 사자, 아니아니 저승사자가 아니라 환자 몸에 붙어있는 객귀를 사자라 하는 거지. 그걸 보살이 몸으로 받아서 한을 풀어줘야 하는 거야. 그거를 사자풀이라 한다. 우선 ‘사자걸이’라고 소금 10접시, 고춧가루 10접시, 명태(노가리) 10접시, 과일하고 술하고 사자 신발 3켢레, 삼베 10쪽으로 가지런히 당가집에 놓고 기본 경문축원 하고 사자풀이경 경송을 하는 거야. 꼭 죽은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미친 사람들 정신 채리라고 하는 것도 많아.”

226) 경신신동(敬神神童)은 24시간동안 잠도 자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은 채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무속에서 비손의 일종이다.

VIII. 생애담

부산댁 이일선 할머니는 1934년 경남 김해의 굴라마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다. 19세에 부산광역시 영도로 이사해 23세에 가덕도의 율리마을로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53년째 거주하고 있다. 마을에서 장기간 살아왔고, 부녀회장으로 장기간 생활하며 마을의 많은 일을 도맡아 했던 부산댁의 생애담을 통하여 율리마을 주민들의 생활상과 마을의 변화양상을 일정부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댁 이일선할머니는 2남 4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이일선할머니의 집은 김해에서 몇 십 마지기의 땅을 갖고 있는 부유한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시는 큰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셨다. 집안 구성원은 큰 어른인 부산댁의 할머니와 부산댁의 부모님 그리고 동생들과 머슴 2명이었다. 할머니는 그 시절 다른 여성들과는 다르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김해 대저에 있는 중앙국민학교를 졸업하였다. 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댁 나이 열아홉 살에 부산댁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 후 영도로 이사해 어린동생들을 보살피고 집안 살림을 맡아서 생활하였다.

“김해공항 밑에 굴라부락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대저 중앙초등학교 졸업했거든.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부산영도로 이사를 하자 그래서, 영도로 이사 가서 4년 정도 살다가 이리로 시집왔지. 그래서 내 택호가 부산댁이야. 나는 김해에서 더 많이 살았는데 부산에서 왔다고 부산댁이야. 김해에서 잘 살았지. 우리엄마 살아 있을 때는 아버지는 사업하러 다니고, 엄마는 가정꾸리고, 농사도 몇 십 마지기씩 하고 그랬어. 머슴도 2명이나 있었는데, 이름은 누가 지어준거냐면 아버지가 지어줬지. 한일 착한선. 근데 착하게 살지도 못해. 집에서 따로 부르던 이름은 없었어. 아들 없으면 아들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나는 동생이 바로 아들이니까 그런 것도 없었어. 어릴 때 좋았지. 학교도 땡기고 학교땡기면서 연뿌리도 캐먹고, 집에 농사를 많이 지니까 먹을 것도 많았어. 밭에 수박도 천지고 머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 그러다가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신기라. 집은 좀 살았으니까. 엄마 돌아가실 때 까지 내가 일을 해봤나.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래서 살림 할라니까 힘들더라고. 그래도 할머니가 있어서 할머니가 도와줘서 살았어. 막내 동생은 지금은 오십 일곱인데 막내가 일 년도 안 되었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 바람에 갓 태어난 동생 있지. 3살짜리 동생 있지, 5살짜리도 있지, 8살짜리 동생 있지, 그리고 15살 먹은 동생 있지. 그것 때문에 내가 결혼을 일찍 못하고 살림했지. 부산에 나가서도 아버지는 하던 일 계속하시고 했지. 물건사다가 부산에 큰 상회에 가파 팔고 머 그런 일 하셨는데 나는 잘 몰라 그게 뭐였는지는.”²²⁷⁾

227) 이일선(여, 75세, 부산댁)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제보자의 집).



<사진 89> 부산택의 국민학교 동창회



<사진 90> 친구들과 함께 남장을 한 모습

부산택은 스물세살에 율리마일로 시집을 왔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들을 보살피느라 혼기를 놓친 것이다. 부산택이 스물세살 되던 봄에 부산택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집에 계모가 들어오면서 아버지는 부산택을 시집보낼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부산택은 이미 혼기도 늦었고 어린동생들도 있고 해서 시집을 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었다.

중신은 아버지의 친한 친구 분이 섰는데 신랑 될 사람이 가덕도에서 배 선장을 한다기에 부산택의 아버지는 직업이 선장이면 괜찮을 것 같다며 결혼을 결정했다. 그렇지만 부산택은 시집이 가기 싫어 선보는 자리에서 한 번도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고, 시집을 가는 당일에는 미용실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 끌려나와 결혼식장에 가게 됐다.

결혼식을 끝내고 가덕도에 처음 들어오는 날, 바람이 심해 용원에서 한나절을 보낸 후에야 바람이 잠잠해진 틈을 타 돛단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부산택의 아버지는 섬 인줄은 알고 있었지만 교통이 생각보다 불편한 것을 알고 많이 울었다고 한다.



<사진 91> 부산택 부부내외

“내가 시집을 제일 늦게 왔다. 초등학교 내 친구들은 다 열아홉 살에 결혼을 했는데 나는 집에 일이 있어서 엄마가 돌아가셨거든. 내가 열아홉 살 때 그래서 동생들 좀 보살피느라고 늦게 왔다. 내가 6남매 중에 맏이고 그러니깐 늦게 왔지. 아버지가 재혼을 해가지고 스물세 살 되니까 봄에 계모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 계모랑 6개월을 살다가 시집을 왔지. 나는 가덕도라 해도 이레 섬 인줄은 모르고 왔다. 아버지가 결혼해가

가야된다 하니 할 수 없이 이렇게 왔지 계모는 부산에 이사 나와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한번 만나 보라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만나봐서 같이 살았지. 원래는 북한사람인데. 같이 살게 됐어. 중매는 아버지 친구 되는 사람이 소개를 했는데. 속았지.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배타고 선장이라 그래서 아 그래도 괜찮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냈는데. 와보니까 선장도 아니고 저기 객지로 배 타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지. 결혼할 때 선을 봤지. 중매해준 아저씨가 신랑을 대리고 왔더라고. 근데 나는 동생들도 있고 나이도 많으니까는 결혼 안 할거라고 생각했거든. 나는 결혼 안한다고 아버지한테도 말을 했는데. 선 볼 때 신랑얼굴도 쳐다 안 봤어. 결혼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 결혼 날짜가 되니까. 집에서 결혼식은 해도 도시가 되니까 신부화장을 한다고 미장원에 델꼬 갔거든. 미장원에는 따라갔는데. 결혼은 하기 싫으니까 미용실에 숨어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지지바 토끼마고. 그러는거야. 그래서 동생들하고 가족들하고 찾아다니다가 시집왔지. 우리아버지가 나 여기 델꼬 오면서 우리아버지가 사업도 크게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그랬거든. 섬이라고 그런 거는 알아도 교통이 이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지. 시집오는 날에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섬에 몬 들어온다고. 그때는 기계배도 아니고 돛단배니까 바람 부니까 몬 들어온다고. 그래서 용원에서 기다리다가 오후에는 바람이 좀 덜하니까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왔지. 그때 파도치고 말도 몬해. 처음 배 타보는데 죽는 줄 알았다. 나 델따주고 가면서 우리아버지가 얼마나 울었는지. 이런 섬에 처박아 놓고 간다고.”²²⁸⁾

부산댁은 부유한 집안 환경에서 자라 험한 일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울리마일로 시집을 오게 되었다. 가난한 섬마을의 생활은 모든 게 생소하고 힘이 들었다. 일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부산댁이 가장 힘들어 했던 일은 나무하기와 오물 버리기, 그리고 매일 먹을 만큼의 곡식을 절구에 찧는 일이었다. 나무는 혼자서는 하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의 처자들과 함께 가거나 어린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나무를 하러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 나무를 해왔다. 또한 풍족하게 살던 부산댁이 하루하루 끼니 이을 걱정을 하며 그날 먹을 만큼의 곡식을 계산하여 절구로 빻는 일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시집을 와보니까 말도 몬 해. 시집오는데. 여 와보니까 말도 몬해. 난 그래도 농사도 많이 짓고 해서. 밥걱정 없이 살았는데 와보니까 쌀 딱 한말 있더라고. 역시로 힘들었다. 나는 일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첨에 와서 일하러가자고 여는 나무를 해다가 때야 되잖아. 나무 하러 가니까 혼자 짊어지고 내려올 수나 있나. 딴 사람들은 자기가 나무를 위에도 놓고 머리에 한 번에 달랑 지고 내려오는데. 나는 두 명이 붙잡고 해서 머리에 이어주면 몇 걸음 내리 오다가 쿵 떨어지는거야. 그러면 막 굴리고 내려가고 있으면 동네 처자들이 자기 끼는 일찍 집에다 가져다 놓고 올라와서 내꺼 같이 들어 주고 그랬지. 얼마나 고마웠다고. 그리고 여기는 곡식도 조금씩 뿐이 없으니까 다 손으로 찧어서 밥해먹는 기라. 그것도 얼마나 고역이라고. 우리 집은 옛날에 일꾼부리고 살았으니까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봤지. 방아 찧는 거 몬하겠고. 나무하러 다니는 거 몬 하겠고. 아휴 몬 하겠더라고. 그러니 맨날 울고 다니는거라.”²²⁹⁾

228) 이일선(여, 75세, 부산댁)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제보자의 집).

229) 이일선(여, 75세, 부산댁)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제보자의 집).

시택식구는 시부모님과 남편, 시누이 2명, 그리고 시동생 2명이 있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은 멀리 객지로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으러 다녔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들도 부산에서 양장점을 운영했기 때문에 집을 혼자 지키는 날이 많았다. 그 같은 상황 때문에 일을 더 빨리 배울 수도 없었고 시집살이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다.

“시집을 왔더니만. 그때 식구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두 명, 시동생 두 명이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시아버지랑 배를 타고 멀리 나가니까. 한번 나가면 두세 달씩은 집에 안 들어오거든. 그리고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부산에서 양장점을 했거든. 그래서 나가 살고. 시동생들은 부산에서 공부하니까. 시어머니랑 지들 누이 있는데서 학교 땡기는 거지. 그러니 집에 뭐가 있나 혼자 집보고 있을 때가 많았지. 뭘 일을 같이 할 수가 있나. 아니면 배울 수가 있나. 또 혼자 있을 심심하고 옛날 생각나고 그런 거지 뭐.”²³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으므로 부산댁은 마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박정희대통령 시기에 생기기 시작한 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당시 울리마을의 부녀회의 이름은 “축진회”였는데 축진회의 회장으로, 또한 축진회가 새마을운동과 함께 이름을 “부녀회”로 바뀐 후에도 부녀회의 회장으로 20여년 이상 역임하였다. 초기에는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심심해서 시작한 일이었고, 나중에는 다른 여성들이 아이들 문제로 시간을 낼 수 없을 때 자식이 없었던 부산댁은 부녀회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부녀회장일을 해 올 수 있었다.

부녀회장직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면으로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부산이나 진해 등 큰 교육도 빼놓지 않고 참석하였다. 오래 하면서도 힘든 것은 몰랐으나 다른 마을의 부녀회장과의 나이차이가 많이 나서 부산댁 스스로 부끄러워 부녀회장직을 그만 두었다.



<사진 92> 청년교육원 교육사진



<사진 93> 농촌부녀지도자 교육사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 그래서 나오라는 데 나가고. 뭐 청소하자 그러면 시골벽 적하잖아. 그러니까 신나서 나가서 열심히 하고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모임을 만

230) 이일선(여, 75세, 부산댁)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제보자의 집).

들자 그래. 축진회라 그랬는데 왜 축진회라 그러는 줄은 나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회장을 하라 그러드라고 그래서 한다 했지. 말도 마라. 얼마나 일이 많았다고. 박정희 때니까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몇 년 있다 보니까 부녀회라고 이름을 바꾼다네. 바꾸고서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동네 여자들이 바쁘거든. 그때는 자식들도 다 큰 다음이 아니니까. 물일도 해야지. 애들도 키워야지. 누구 선뜻 한다고 하나. 그런데 나는 자식들이 없거든. 한명도 없어. 그래서 내가 시간이 많이 남고 해 오던 거도 있으니 계속하게 된 거지. 그거 하면 뭐를 많이 하나면 한 달에 한 번씩 면에 가서 회의하고 교육받고. 또 어떨 때는 멀리까지 가서 교육받으라 하네. 부산이나 진해까지 가서 교육받으라 하는데. 안 빼놓고 댕겼어. 근데 한 20년을 넘게 했거든. 근 30년을 하니까 기력이 딸리는 게 아니라 탄 마을에서 오는 부녀회장들은 젊은 사람들이잖아. 나는 그때 60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생각하고 나도 젊은 사람들 보기 남사스럽고 해서 이젠 죽어도 못 한다고 내려놓고 안했지. 그래서 회장이름은 바꿨는데 바쁘거든. 그래서 지금도 내가 부탁하면 도와주고 하지 뭐.”²³¹⁾

자식이 없는 적절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활력소는 관광이었다. 우리마을은 1980년대 이후, 피조개 양식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부녀회장으로서 동네사람들의 친목 유지에도 공을 많이 들이던 부녀회장은 관광도 자주 계획했다. 언제 간다는 것은 정해 놓지 않았지만 마을사람들끼리 시간이 맞으면 자주 관광을 갔다. 부산택의 남편은 2000년에 사망했다. 그 후에도 부산택은 주변의 친척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소수의 마을사람들과 회관에서 소일거리를 즐기면서 생활하고 있다.

“자식도 없고 한테 뭘 낙이 있노. 그냥 관광이나 가고 하는 거지. 물일하고 밭일 하다가 안 바쁠 때 있잖아. 그러면 관광객자 누가 그래요. 그러면 가는 거지. 돈이야 그때 바다가 좋아서 많이 벌이가 꽤 괜찮았거든. 돈 걱정은 별로 안했어. 마을사람들. 관광을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별 데 별 데 다 가봤어. 국내도가보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가보고 그렇지. 요샌 마을에 사람 다 나가고 관광 갈 사람도 없지. 요새는 낮으로 모여서 회관에서 밥이나 해먹고 화투나 치고 하는 거지. 화투 한판에 10원짜리 있잖아. 민화투 친다.”²³²⁾



<사진 94> 부산택의 관광사진



<사진 95> 회관에서 화투치는 모습

231) 이일선(여, 75세, 부산택)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제보자의 집).

232) 이일선(여, 75세, 부산택)의 제보(2009년 6월 20일, 제보자의 집).